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사회자본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박 소 연

#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사회자본 비교 연구

지도 유 석 춘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박 소 연

# 박소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년 6월 일

# 차 례

그림 차례 .....	iii
표 차례 .....	iv
우리말 줄임글 .....	vi
<b>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b> .....	1
<b>제2장 이론적 논의</b> .....	4
1. 사회자본: 개념과 논쟁 .....	4
(1) 연결망: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연대) .....	5
(2) 신뢰와 호혜성: 도구적/완성적 동기 .....	7
2. 연고집단에 대한 비판적 입장 .....	8
(1) 연결망: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유대) .....	8
(2) 신뢰와 호혜성: 도구적/완성적 동기 .....	11
3. 연고집단에 대한 긍정적 입장 .....	12
(1) 연결망: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유대) .....	12
(2) 신뢰와 호혜성: 도구적/완성적 동기 .....	13
<b>제3장 자료와 측정 및 분석의 틀</b> .....	16
1. 자료의 수집과 표본의 특성 .....	16
2. 개념의 측정 .....	21
(1) 연결망: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유대) .....	22
(2) 신뢰와 호혜성: 도구적/완성적 동기 .....	25
1) 신뢰 .....	25
2) 호혜성 .....	27
3)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 .....	28
3. 논문의 분석틀 .....	29
<b>제4장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사회자본 비교</b> .....	33
1. 연결망: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유대) .....	34

(1) 연결망 밀도 .....	34
(2) 관계의 빈도와 지속성 .....	36
(3) 관계의 중복성 .....	39
(4) 교환자원총량 .....	42
2. 신뢰와 호혜성: 도구적/완성적 동기 .....	47
(1) 신뢰 .....	47
(2) 호혜성 .....	51
(3)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 .....	54
3. 소결 .....	58
<b>제5장 개인/집단의 속성과 사회자본 .....</b>	<b>60</b>
1. 동창회의 개인적 속성과 사회자본 .....	63
2. 시민단체의 개인적 속성과 사회자본 .....	67
3. 개인/집단의 속성과 사회자본 .....	71
4. 소결 .....	78
<b>제6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b>	<b>79</b>
참고문헌 .....	82
부록1 중앙65교우회 설문지 .....	85
부록2 환경운동연합 설문지 .....	94
부록3 심층면접 질문지 .....	103
부록4 중앙65교우회 회칙 .....	105
부록5 환경운동연합 2004 정관 .....	109
부록6 동창회 correlation matrix .....	121
부록7 시민단체 correlation matrix .....	124
ABSTRACT .....	127

## 그림 차례

<그림 3-1> 논문의 분석틀1 .....	30
<그림 3-2> 논문의 분석틀2 .....	31
<그림 5-1> 동창회의 개인적 속성과 사회자본 .....	66
<그림 5-2> 시민단체의 개인적 속성과 사회자본 .....	70
<그림 5-3> 두 집단의 개인/집단의 속성과 사회자본 .....	77

## 표 차 례

<표 2-1> 두가지 연결망의 이념형적 비교 .....	11
<표 3-1> 응답자 특성 .....	17
<표 3-2> 연결망의 측정: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유대) .....	23
<표 3-3> 유대의 종류 .....	24
<표 3-4> 신뢰의 측정 .....	26
<표 3-5> 호혜성의 유형 .....	27
<표 3-6> 호혜성의 측정 .....	28
<표 4-1> 연결정도 .....	33
<표 4-2> 동창회 연결정도에 따른 실선수 .....	35
<표 4-3> 시민단체 연결정도에 따른 실선수 .....	35
<표 4-4> 연결망 밀도 .....	36
<표 4-5> 관계의 빈도 분포 .....	36
<표 4-6> 관계의 빈도 측정 .....	37
<표 4-7> 관계의 지속성 .....	38
<표 4-8> 관계의 분포 .....	39
<표 4-9> 중복된 관계수 .....	39
<표 4-10> 시민단체 회원들의 활동기간 .....	41
<표 4-11> 교환자원의 분포 .....	42
<표 4-12> 교환자원총량과 중첩성 .....	44
<표 4-13> 연결망 측정 .....	45
<표 4-14> 연결망의 성격(강한/약한 유대) .....	45
<표 4-15> 신뢰의 측정 .....	48
<표 4-16> 호혜성의 측정 .....	52
<표 4-17>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신뢰와 호혜성 .....	55
<표 4-18>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 .....	56
<표 5-1> 동창회의 회귀분석 .....	65
<표 5-2> 시민단체의 회귀분석 .....	68
<표 5-3>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연결망 .....	71
<표 5-4>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신뢰와 호혜성 .....	72
<표 5-5> 두 집단의 연결망 총량 .....	72
<표 5-6> 두 집단의 연결망, 신뢰, 호혜성, 사회자본 총량 .....	73

<표 5-7> 두 집단의 사회자본 ..... 75



## 우리말 줄임글

###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사회자본 비교 연구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인간관계의 독특한 특징을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다양한 인간관계가 혼재하는 한국사회에서 서로 상반된 구성원리로서 대조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한국사회의 인간관계를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진단하려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연고집단과 시민단체의 사회자본을 살펴보기 위해 주목한 개념은 사회자본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라고 간주되는 연결망, 신뢰, 호혜성이다. 연결망의 성격에 따라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유대)을, 신뢰와 호혜성에 따라 도구적/완성적 동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념형적 예측대로 연고집단은 폐쇄적 성격과 완성적 동기를 지니며, 자발적 결사체는 개방적 성격과 도구적 동기를 지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동창회와 시민단체를 선택하여 각각 설문지 100명과 심층면접 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창회는 한국사회에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고집단이며, 시민단체는 시민사회론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발적 결사체로 서로 대조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동창회는 연결망 밀도, 관계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강한 유대를, 관계의 빈도, 관계의 중복성, 교환자원총량을 기준으로 약한 유대를 가진 반면, 시민단체는 관계의 지속성, 교환자원총량을 기준으로 약한 유대를, 연결망 밀도, 관계의 빈도, 관계의 중복성을 기준으로 강한 유대를 가졌다. 한편 두 집단 모두 신뢰와 호혜성이 비교적 풍부한 완성적 동기에 기초하고 있었다.

동창회와 시민단체는 연결망, 신뢰, 호혜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두 집단 모두 강한 유대와 동시에 약한 유대를 지니면서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완

성적 동기에 기초한 정서적 공동체라는 사실은 두 집단의 성격이 이념형적 예측과 같이 대립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두 집단은 한국사회에서 긴밀하게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은 한국사회 인간관계의 특수성에 덧붙여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한다. 두 집단은 한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요한 집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의 축적과 유지에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양립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

핵심되는 말 : 연고집단, 자발적 결사체, 동창회, 시민단체, 사회자본, 연결망, 신뢰, 호혜성, 폐쇄성, 개방성, 강한 유대, 약한 유대, 도구적 동기, 완성적 동기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는 압축적 성장을 통해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공존이라는 복합적 상황을 경험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후발 산업사회의 복잡한 현실 특히 ‘근대적이고 이차적인 인간관계’와 ‘전근대적이고 일차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이에 더해 ‘탈근대적이고 삼차적인 인간관계’<sup>1)</sup>까지 뒤엉켜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sup>2)</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97년에 불어 닥친 경제 위기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이는 결국 기존의 발전국가 모델을 부정하고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을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전근대적, 근대적, 탈근대적 인간관계가 공존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과연 적절한 선택인지 나아가서 바람직한 선택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다양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앞으로는 어떠한 인간관계가 바람직한가 하는 실증적이고 규범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한국사회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통적 연고집단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한편 이와 대조되는 서구식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가지 상반되는 입장이 다투고 있다.

먼저 이재열(2001)<sup>3)</sup>은 인격주의<sup>4)</sup>의 강력한 공동체 의식은 폐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 내의 결속이 정의적(情誼的)이고 정서적인 성격을 강하게

---

1) ‘탈근대적이고 삼차적인 인간관계’란 사이버 공간상의 익명적인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초고속 인터넷 보유율 세계 1위로 평가받는 한국에서 사회적 이슈들이 쟁점화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탈근대적이고 삼차적인 인간관계’가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다.

2) 유석춘·장미혜·배영, 2002, “사회자본과 신뢰:한국,일본,덴마크,스웨덴의 비교연구”,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pp217

3) 이재열, 2001, “의리인가 계약인가?:인격주의와 개인주의의 갈등적 공존과 한국사회의 제문제”, 석현호·유석춘 공편, 「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 현대, pp178-183

4) 이재열은 장윤식의 “인격윤리와 한국사회”에서 장윤식이 언급한 인격윤리를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혈연·지연·학연을 중심으로 발달되어온 연고집단의 원리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인격윤리란 자발적 결사체의 원리와 대조적인 연고집단의 원리를 의미한다.

떨수록 집단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연대감이 약화되므로, 연고집단은 지양되고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연줄망<sup>5)</sup>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유석춘 등(2002)<sup>6)</sup>은 연고집단은 내부와 외부로 가르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한 개인은 여러 개의 연고집단에 동시에 소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연고집단은 경우에 따라서 그 경계가 유연하게 확대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서구 결사체의 경우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었느냐의 여부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하면서 연고집단의 잠재력과 활용가능성을 역설한다.

여기서 이재열과 유석춘이 연고집단과 서구식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대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적인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입장에 기초한 논쟁만이 있었을 뿐 그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려는 작업은 소홀히 다루어졌다.<sup>7)</sup> 특히 서구식 자발적 결사체는 서구 사회가 아니라 한국사회에 적용되면서 변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고집단보다 그 성격을 예측하기 더욱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미래의 한국사회 발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sup>8)</sup>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5) '연결망'과 '연줄망'은 '연결'이라는 기능적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어 김용학은 「사회 연결망 이론」에서 '연줄'은 지연이나 학연, 혈연처럼 특수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관계인 반면 '연결'은 보편주의적 성격에 의해 맺어지는 개방적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저서들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구분이 흔해져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흔하고 또한 본 논문의 목적이 network의 평가가 아닌 성격과 기능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연결망'과 '연줄망'을 의미의 구분없이 각 저자들이 사용한 용어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6) 유석춘·장미혜·김태은, 2000, "동아시아의 연고집단과 세계화", 「전통과 현대」 13호(가을호), pp212

7) 한국사회의 연결망에 관한 연구로는 김용학(「사회 연결망 이론」, 「사회 연결망 분석」)과 송호근·김우식·이재열(「한국사회의 연결망 연구」)의 연구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이 각 사례별 케이스를 연구한 반면, 본 논문은 연고집단과 서구식 자발적 결사체를 동일한 자료를 통해 동시에 비교하였다.

8) 본 논문의 자료는 "한국학술진흥재단 2003학년도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선정과제인 "한국의 사회자본: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사회자본 비교연구(Social Capital in Korea:Comparative Studies On Social Capital in Traditional and Modern Society)"(연구책임자: 유석춘, 과제번호:2003-074-BS0033)의 2차년도의 연구의 일환으로 8개 대상 집단(중친회, 동창회, 향우회, 어촌계, 시민단체, 교회, 아파트, 인력시장)에 기초하고 있다. 본 논문은 8개의 집단 중 '동

보다 실증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 작업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자본<sup>9)</sup>논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연결망(network), 신뢰(trust)와 호혜성(reciprocity)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각 집단 연결망의 성격이 폐쇄적/개방적인지, 신뢰와 호혜성의 유형과 정도는 도구적/완성적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연고집단과 서구식 자발적 결사체가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경험적 측정에 소홀하였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구성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에 관하여 서로 동일한 잣대를 사용하여 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대조적인 두 집단의 구성원리 즉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구성원리를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사회구성의 원리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다.

---

창회'와 '시민단체'의 사회자본 비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9) 이러한 논의는 사회자본을 배경으로 전개되어 왔고, 이것은 결국 연고집단과 서구식 자발적 결사체의 구성원리 중 어느 것(연결망, 신뢰, 호혜성)이 한국사회에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그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 제2장 이론적 논의

### 1. 사회자본: 개념과 논쟁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과 기능을 가진 개념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경영학에서 사회자본은 기업조직의 해체를 방지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또한 생산의 혁신을 주도하는 수단으로 묘사되는 반면, 정치학에서 사회자본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인 동시에 집합행동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되기도 한다. 한편 사회학에서 사회자본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이나 신뢰와 호혜성에 기초한 공동체의 건설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sup>10)</sup>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자본의 기능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관하여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 사회자본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부르디외(Bourdieu, 1986)는 ‘사회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한다. 나아가 “특정한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그 연결망에 포함된 여러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함으로써 사회자본의 개념에서 연결망을 주목한다.

부르디외 이후에 사회자본 논의를 주도하여 전개한 콜만(Coleman, 1990)은 사회자본을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이룩하기 어려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나아가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사회자본이 생산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연결망의 폐쇄성, 신뢰, 효과적인 규범이 필요하다”면서 폐쇄

---

10)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공편역, 2003, 「사회자본:이론과 쟁점」, 그린, pp15

적 연결망에 흐르고 있는 신뢰, 규범을 강조한다.

반면 콜만의 사회자본 개념에 기반을 두고 이탈리아와 미국의 사례로부터 사회자본과 경제·정치발전의 연관을 연구한 퍼트남(Putnam, 2000)은 사회자본을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신뢰,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 등)의 속성”으로 정의함으로써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서의 신뢰, 규범, 연결망에 주목한다. 이에 반해 사회자본의 기원과 효과를 구분하는 뉴튼(Newton, 1997)은 사회자본을 “규범과 가치, 연결망, 결과로서 나타나는 자발적으로 생산된 집합적 자원”이라는 세 측면으로 정의하면서 사회자본의 핵심적 요소로서의 신뢰와 호혜성을 강조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자본은 연결망과 그 속에 흐르는 자원 그리고 행위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생산적 자원을 형성 촉진하는 상호 신뢰, 호혜성 등을 그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즉 다양한 사회자본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연결망(network), 신뢰(trust), 호혜성(reciprocity)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사회자본은 쉽게 연결망이나 신뢰의 논의로 전이되거나,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연결망과 신뢰에 대한 논의만이 집중되어 호혜성을 간과해온 경향이 있다(최종렬, 2004).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논의에서 주로 다루어진 연결망과 신뢰에 호혜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 세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사회자본의 속성과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연결망의 성격을 통한 집단의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유대)과 신뢰와 호혜성을 통한 집단의 도구적/완성적 동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 (1) 연결망: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연대)

집단의 폐쇄성/개방성<sup>11)</sup>이 사회자본의 창출과 축적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

---

11) 흔히 강한 연대는 폐쇄성과, 약한 연대는 개방성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역시 폐쇄성/개방성을 강한/약한 유대로 동일시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공편역, 2003, 「사회자본:이론과 쟁점」, 그린의 제1장 “사회자본과 한국사회”를 참고하자. 한편 기존의 연구들이 ‘유대’(ties)와 ‘연대’(solidarity)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

으나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관하여는 상반된 두 입장이 존재한다.

먼저 집단의 폐쇄성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에는 콜만(Coleman, 1988)과 포르테스(Portes, 1998)가 있다. 콜만<sup>12)</sup>에게 집단의 경계가 모호한 개방적인 구조에서는 규범에 대한 압력이 적어 효과적인 규범이 창출되지 않고 신뢰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신뢰와 효과적인 규범은 폐쇄성 혹은 닫힘(closure)에 의해서 창출된다. 따라서 집단의 폐쇄성은 콜만에게 사회자본의 출현에 불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포르테스<sup>13)</sup>는 콜만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있어 폐쇄성을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상호간의 기대와 의무에 기반한 사회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 간의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한 연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버트(Burt, 2000)와 그라노베타(Granovetter, 1973)는 약한 연대의 개방성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들은 연결망의 구속력이 강한 닫힌 세계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직원들은 저조한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강한 연대의 집단과 사회자본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집단의 개방성은 사회자본의 축적에 유리하다고 본다. 버트는 신뢰가 집단 간에 있든 없든 간에 구조적 구멍(structural hole)<sup>14)</sup>이 중개해주는 약한 연대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자본을 축적하는데 유리하다고 말한다. 또한 그라노베타는 강한 연대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로 자주 접촉을 하여 정보가 중첩되는 반면, 약한 연대는 공유하는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아 사회자본의 축적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러한 논쟁의 근원은 강한 연대가 폐쇄성을, 약한 연대가 개방성을 의미한다는데 있다. 강한 연대로 이루어진 집단은 약한 연대로 이루어진 집단에 비

---

하는 경우가 흔한데, 본 논문에서 측정된 개념은 '연대'(solidarity)가 아닌 '유대'(ties)이므로 '유대'(ties)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 단 기존의 연구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언급된 그대로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12) Coleman, Jame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s94-s121

13) Portes, Alej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pp.1-24

14) 버트(Burt)에 따르면 '구조적 구멍(structural hole)'이란 중복되지 않은 관계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해 연결망의 중첩이 많아 구성원들 간에 정보나 자원에 관한 위계적 조직의 형태가 쉽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과도한 규범과 제한이 강한 연대의 부작용으로 흔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강한 연대의 비판은 주로 외부조직에 대한 제한, 배타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유석춘 등(2002)은 “기존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자본을 확대하려면 약한 연대가 필요하고, 기존 집단의 정체성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강한 연대가 사회자본의 확대에 보다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할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라고 주장한다.<sup>15)</sup>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에 관한 논쟁을 각 집단이 발생하고 작동하는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구성원이 속해있는 집단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따라 연대의 성격과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대의 성격은 유동적이며 그 성격을 통해 집단에 대한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 (2) 신뢰와 호혜성: 도구적/완성적 동기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적 구성 요소로서의 신뢰와 호혜성은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유대)에 대한 문제와 같이 논쟁적이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신뢰와 호혜성은 사회자본의 축적에 긍정적이며 심지어는 필수적이라고 이해된다.

후쿠야마(Fukuyama, 1995)는 신뢰를 대기업 조직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인·조직 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안정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여, 조직의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윤활유(lubricant)와 같은 것으로 설명한다. 반면 퍼트남(Putnam, 2000)은 사회자본을 “연결망, 규범, 그리고 신뢰와 같이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정의하여 “자발적 협력은 호혜성의 규범과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자본이 충분히 축적된 공동체에서 더 쉽게 달성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신뢰와 호혜성을 사회자본의 축적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또한 뉴튼(Newton, 1997)은

15) 유석춘·장미혜, 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8, 사회발전연구소, pp109

신뢰와 호혜성을 사회적 및 정치적 안정과 협력을 만들어 내는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로 간주한다.

신뢰와 호혜성은 그 집단의 성격이 도구적/완성적인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사회자본 제공자의 동기를 ‘완성적 동기(consummatory motivations)와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s)로 구분하는 포르테스(Portes, 1998)의 논의에서 잘 드러난다. 포르테스가 정의하는 완성적 동이란 관습상 혹은 의무감 내지는 규범의 내면화를 통해 사회자본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고, 도구적 동이란 상호성의 근원이 전제되어 사회자본에 투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적 동기에는 관습, 규범 결속력이 전제되고, 도구적 동기에는 이해관계가 전제된다. 따라서 완성적 동기는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정의적(情誼的) 성격과 대응되고, 도구적 동기는 신뢰와 호혜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단적 성격과 대응된다.

앞서 설명한 사회자본의 두가지 논쟁의 쟁점을 본 논문의 주제인 연고집단과 서구식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로 사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연결망(network)의 성격이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유대)인지, 신뢰(trust)와 호혜성(reciprocity)로 미루어 볼 때 도구적/완성적 동기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기존 논의로는 연고집단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긍정적 입장이 있다. 다음에 전개되는 대립적인 두 입장에서의 연결망(network), 신뢰(trust)와 호혜성(reciprocity)에 대한 논의는 현실적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념형적으로 재구성한 개념이다.

## 2. 연고집단에 대한 비판적 입장

### (1) 연결망: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유대)

먼저 이재열(2001)<sup>16)</sup>은 인격주의<sup>17)</sup>의 강력한 공동체 의식은 폐쇄적 성격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 내의 결속이 정의적(情誼的)이고 정서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수록 집단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연대감은 오히려 약화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다른 논문(1998)<sup>18)</sup>에서도 한국의 현대사는 시민사회의 발달이 매우 미약했고 공식적 규칙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시에 공공자원과 규칙을 거의 배타적으로 독점한 강한 국가권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적인 신뢰에 기반한 연고주의가 강화되고 그 성격은 단힌 관계망을 통해 배타적인 파당으로 전환해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덧붙여 근대 자유주의 사상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주의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연줄사회의 사적인 신뢰를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단힌 관계망이 열린 관계망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혁(1999a)<sup>19)</sup>도 파당적 연줄망이 갖는 집단 내적 호혜와 사적 신뢰가 배타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집단의 범주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타자에의 신뢰 혹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게임의 룰에 대한 공적 신뢰가 훼손된다고 말한다. 그의 다른 논문(1999b)<sup>20)</sup>에서도 연줄망은 집단 내적에서는 효율적일지도 모르나 집단 내적 호혜와 집단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회적으로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제도적 불신을 낳는다고 함으로써 연고집단의 성격을 집단을 넘어서지 못하는 폐쇄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용학(1997)<sup>21)</sup>은 혈연 연줄망, 지연 연줄망 등의 특수주의적 연줄망은 정당성의 위기와 효율의 위기를 낳기 때문에 보편주의적 연결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16) 이재열, 2001, “의리인가 계약인가?:인격주의와 개인주의의 갈등적 공존과 한국사회의 제문제”, 석현호·유석춘 공편, 「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 현대, pp178-183

17) 이재열은 장윤식의 “인격윤리와 한국사회”에서 장윤식이 언급한 인격윤리를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혈연·지연·학연을 중심으로 발달되어온 연고집단의 원리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인격윤리란 자발적 결사체의 원리와 대조적인 연고집단의 원리를 의미한다.

18)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사상37호(여름호), pp75, 79

19) 이재혁, 1999a, “동태론적 구조이론의 가능성:행위의 구조의 되먹임”, 「한국의 사회구조와 지역사회」, 서울대 출판부, pp49

20) 이재혁, 1999b, “사회적 통제의 정치경제학-규범과 관습, 그리고 교환”, 「한국의 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대우학술총서, 아르케, pp236

21) 김용학, 1997, “고신뢰 사회를 향한 연결망 구축방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pp100-103

고 말한다. 덧붙여 연고주의에 의해 유지되는 연줄망 안에서만 존재하는 신뢰와 상호부조의 정신을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선택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연결망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주장한다. 김용학 역시 연고주의를 집단에 한정되는 특수주의로 파악함으로써 연고주의의 폐쇄성을 인정한 것이다.

한준과 박찬웅 역시 연고집단의 성격을 폐쇄성으로 규정하는데, 한준(2000)<sup>22)</sup>은 실리콘 벨리의 연고주의는 공정한 시장경쟁에서 개방적 속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반면 한국의 연고집단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한국 연고주의의 ‘닫힌’ 특성은 네트워트의 ‘열린’ 특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찬웅(1999)<sup>23)</sup>은 한국사회가 저신뢰 사회라고 평가되는 이유는 연줄망이 배타적인 것에 근거하여 사적 신뢰를 높일지라도 상대적으로 전체적 수준의 사회적 신뢰를 낮추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연줄망이 흔히 혈연주의, 학연주의, 지연주의, 가족주의 등과 같이 가입기준이 귀속적이거나 대상의 자격이 의도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연결망은 가입기준이 성취적, 보편적, 확장적이기 때문에 연결망을 통한 신뢰확충이 한국사회의 신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연고집단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연고집단의 폐쇄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고집단이 폐쇄적이라는 말은 연결망 크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구성밀도가 비교적 높고 강한 유대로 이루어져 확장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그들이 연고집단의 반대급부로 내세우는 확장된 연줄망/연결망 혹은 서구식 자발적 결사체는 연결망 크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구성밀도가 비교적 낮고, 개방적이고 열린 관계를 통해 확장 가능성이 크며 성취주의·보편주의적인 성격을 띤다.<sup>24)</sup>

---

22) 한준, “연고주의는 네트워크 걸림돌인가”, 중앙일보 2000.3.27 17면

23) 박찬웅, 1999, “신뢰의 위기와 사회적 자본”, 사회비평19호, pp59-62

24) 연고집단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아니지만 김상준(2002)의 글에서도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의 구분은 잘 드러난다. 그는 귀속적 사회자본은 닫힌(closure), 강한 연결의(strong ties), 결속적인(binding) 사회자본적 측면을 가지는 반면, 성찰적 사회자본은 열린, 약한 연대의, 교량적인 사회자본과 친화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여기서 귀속적 사회자본과 성찰적 사회자본을 구분하는 기준은 연고집단의 연결망과 확장된 자발적 결사체의 연결망과 동일한 차원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속적 사회자본은 연고집단의 사회자본을, 성찰적 사회자본은 서구식 자발적 결사체의 사회자본을 의미한다.

## (2) 신뢰와 호혜성: 도구적/완성적 동기

이재열(2001)<sup>25)</sup>은 “시민사회 내에서 기존의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적이고 개혁적이며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갖추어진 집단들은 주로 약한 연줄망 혹은 도구주의적 연줄망을 발달시키는 반면, 연줄망의 밀도가 높은 강한 연줄망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제도나 규칙의 공정성에 대해 순박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에 그다지 비판적이지도 않고 동시에 연줄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즉 사회적 자본을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시키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표2-1>은 그가 이념형적으로 구분한 연줄망의 성격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2-1> 두가지 연줄망의 이념형적 비교

종류	규모나 범위	밀도	가족 지향성	공공 지향성	가치지향	제도적 신뢰	관계의 성격
약한 연줄망	넓음	낮음	약함	강함	탈물질적, 탈권위적, 모험적	낮음	도구적
강한 연줄망	좁음	높음	강함	약함	전통적, 권위적, 위험회피경향	높음	정의적

출처: 이재열(2001:182)

이재혁(1999a)<sup>26)</sup>은 혈연, 지연, 학연 등은 음성적 교환 당사자들 간의 상호신뢰와 암묵적 호혜의 집단규범이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1차집단을 의미하며, 시민사회의 구성은 혈연이나 지연을 넘어서는 ‘보편적 타자’와의 만남과 조직화를 통한 2차집단으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이재혁이 연고집단을 신뢰와 호혜성이 풍

25) 이재열은 약한 연줄망과 강한 연줄망의 이념형적 비교를 하는데, 두개의 대변되는 연줄망은 단순히 약한/강한 유대의 구분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조적 연결망에 대한 구분이다. 따라서 약한 연줄망은 확대된 연결망을 의미하며, 강한 연줄망은 연고집단의 연결망을 의미한다. (이재열, 2001, “의리인가 계약인가?:인격주의와 개인주의의 갈등적 공존과 한국사회의 제문제”, 석원호·유석춘 공편, 「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 현대, pp182)

26) 이재혁, 1999a, “동태적 구조이론의 가능성:행위와 구조의 되먹임”, 「한국의 사회구조와 지역사회」, 김일철 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47-48, pp51-52

부한 1차집단으로, 확대된 서구식 자발적 결사체는 1차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와 호혜성의 수준이 낮은 2차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결국 신뢰와 호혜성의 문제는 그 집단의 성격이 1차/2차집단의 성격을 띠느냐 혹은 도구적/완성적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연고집단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는 연고집단을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1차집단 혹은 완성적인 성격을 지닌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 확대된 연결망의 결사체는 상대적으로 신뢰와 호혜성의 수준이 낮은 2차집단 혹은 도구적인 성격을 띠는 집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 3. 연고집단에 대한 긍정적 입장

#### (1) 연결망: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유대)

반면 유석춘 등은 연고집단의 폐쇄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인정한다는 점에서 연고집단을 비판하는 입장과 다르다. 먼저 유석춘 등(2000)<sup>27)</sup>은 연고집단 내부에서는 상호호혜에 기초한 신뢰의 원리가 작용하는 반면, 연고집단 외부에는 배제와 불신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연고집단의 내적 신뢰와 사회의 보편적인 신뢰를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서구식의 이분법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하면서 연고집단 개방성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에 따르면 “한 개인은 여러 개의 연고집단에 동시에 소속될 수 있고 연고집단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는 폐쇄적으로 닫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확대될 수 있는데다가 배타적인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 없이 유동적으로 연고집단에 참여함으로써 개방성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연고집단과 대비되는 자발적 결사체의 경우 가입의 조건은 성취적이지만 가입 후의 집단 개념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고집단보다 더 폐쇄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유석춘 등은 연고집단에 폐쇄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연고집

27) 유석춘·장미혜·김태은, 2000, “동아시아의 연고주의와 세계화”, 「전통과 현대」 가을호(13호), pp211-213

단의 확장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서구식 자발적 결사체의 폐쇄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연고집단의 성격이 연결망 크기를 기준으로 구성밀도가 높지 않고 약한 유대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면 자발적 결사체가 연결망 크기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구성밀도가 높고 강한 유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함축을 담고 있다.

## (2) 신뢰와 호혜성: 도구적/완성적 동기

유석춘(1998)<sup>28)</sup>은 연고집단의 기능과 필요성을 사회 심리적 차원에서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연고집단이 국가와 시장 이외에도 소속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개인을 자연스럽게 방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한국사회에서는 자발적 결사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소속을 갖지 못한 채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연고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심리적인 귀속감을 얻게 된다고 덧붙인다.

즉 유석춘은 연고집단을 신뢰와 호혜성이라는 정서적 만족감을 가져오는 1차 집단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반면 서구식 자발적 결사체는 개인의 귀속감과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데 실패하는 2차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하지만 연고집단의 폐쇄성에 관한 유석춘의 입장에서 특이한 점은 그가 연고집단이 반드시 전근대적인 1차집단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한국사회에서는 국가와 시장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결사체 속에서도 전통적인 연고관계가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sup>30)</sup> 이것은 그의 다른 논문(2002)<sup>31)</sup>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시민단체

28) 유석춘, 2002, “한국의 비영리·비정부 영역과 사회발전:연고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pp99-101

29) 연고집단의 성격을 잘 드러내면서 연고집단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글로 인격주의를 연구한 장윤식(2001)의 논문을 꼽을 수 있다. 장윤식은 한국사회에는 호혜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원리를 지닌 인격주의가 현대까지 변형되어 잔존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주의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연고집단의 연결망으로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정의적이고 1차집단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의 자원동원과정도 이러한 연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시민 단체에 가입하는 회원의 참여 혹은 시민단체 활동가의 충원방식에 연고에 의한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송호근(1998)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고집단과 시민사회를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전자의 입장<sup>32)</sup>과는 대조적이다. 유석춘은 시민사회와 연고집단 사이의 관계를 대립적인 시각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연고집단의 영역은 사적인 영역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는 서로 중첩되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연고집단의 자발적 결사체 개입 가능성과는 별개로 그의 논의에서 확장된 연결망에서의 1차집단의 성격은 배제되어 있는 듯하다. 자발적 결사체에 연고집단이 침투한다면 그 성격이 비슷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집단의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논의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에게 자발적 결사체는 연고집단을 보완하는 기능은 할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유석춘의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연고집단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대조적일 뿐만 아니라 서구식 자발적 결사체에 연고집단이 침투함으로써 두 집단이 서로 닮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따라서 유석춘은 두 입장을 극명하게 대립되는 동떨어진 차원이 아니라 연장선 상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역시 자발적 결사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활성화보다는 연고집단의 기능적 활용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발적 결사체는 연고집단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견해에서 나온다.

이러한 대립적 논쟁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연결망의 측면에서 연고집단의 친밀한 구성원 사이에는 내적 결속이 강한 유대와 동시에 약한 유대를 띠기 때문에

---

30) 유석춘·장미혜, 1998, “한국의 비영리·비정부 영역과 사회발전:유교적 가치의 재발견”, 「전통과 현대」 7(봄호)

31) 유석춘, 2002, “한국 시민운동의 문제와 바람직한 개선방향”,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 자본」, 자유기업원, pp76

32) 이재혁(1999a:48-50)은 “연출사회적 균형은 시민사회의 왜소화를 초래할 것이며, 반대로 연출사회적 균형의 붕괴는 시민사회의 강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확장가능성을 가질 것이라는 점과 자발적 결사체의 친밀한 구성원 사이에는 약한 유대와 동시에 내적 결속이 강한 유대가 존재하여 개방성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신뢰와 호혜성의 측면에서는 연고집단은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완성적 공동체인 동시에 도구적 공동체일 것이라는 점과 자발적 결사체는 도구적 공동체의 성격도 지니지만 동시에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완성적 공동체일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 제3장 자료와 측정 및 분석의 틀

### 1. 자료의 수집과 표본의 특성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sup>33)</sup>의 사회자본의 측정은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지 100부와 심층면접 5 사례<sup>34)</sup>를 통해 이루어졌다. 동창회는 국가와 시장, 제3의 영역에서 자원의 충원 및 사회적 영향력 행사에 지속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고집단이다. 한편 시민단체는 사적 신뢰가 아닌 연결망의 형성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공론장의 시민사회로서 당위와 지향점으로 제시되는 즉 시민사회론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발적 결사체로 여겨진다. 이 논문은 이들을 대표하는 각각의 집단으로 중앙 고등학교 제65회 졸업생(중앙65교우회)과 환경운동연합<sup>35)</sup>을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65교우회<sup>36)</sup>는 한국사회에서 인지도 있는 학교 중 하나인 중앙 고등학교 제65회 졸업생(1974년 졸업)으로 구성된 동창회이다. 1명의 회장, 2명의 부회장, 1명의 총무, 20명 이내의 간사, 1명의 감사를 포함하여 총 502명으로 구성된 중앙 65교우회의 구성원들은 1년에 1번의 총회(매년 6월 5일)와 연말모임(12월)을 정기적·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교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회보 발간 사업, 장학 사업, 모교 발전을 위한 기타 사업 등을 통해 사회자본을 지속적으로 축적·유지하고 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sup>37)</sup>은 1982년 한국 최초의 환경단체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

---

33) 본 논문에서 연고집단이란 당사자의 선택보다는 생애의 과정을 통해 획득한 특정한 경험의 공유가 회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자발적 결사체란 가입과 탈퇴가 당사자에 의해 결정되어 특정한 이념이나 관심 혹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집단의 구성이 중복된다고 할지라도 소속된 집단 선택의 가입과 탈퇴의 선택가능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본 논문의 경우 시민단체의 회원 중 연고집단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어 이러한 구분이 용이하였다.

34) 설문지와 심층면접 질문지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35) 동창회의 회칙과 환경운동연합의 정관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36) [www.gyewoo.com/default.asp](http://www.gyewoo.com/default.asp) 중앙교우회 홈페이지 참고

37) [www.kfem.or.kr](http://www.kfem.or.kr)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참고

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sup>38)</sup> 1993년 환경문제라는 전문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로 출범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운동과 반핵국민 행동을 포함한 환경조사활동을 포함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안, 국회의정활동에 대한 감시 등 환경에 대한 정책활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시민단체들과 대외 연대활동과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시민단체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는 중요한 단체이다.<sup>39)</sup> 2000년 8월 46개 지역조직과 7만3천 회원이 함께 하는 최대의 환경단체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언론이나 일반 시민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비교적 자율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여타의 시민단체들이 30대 중반의 남성이 시민단체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주부를 포함한 여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가 두드러진 조직일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다양한 소모임 참여와 상호대면을 통해 사회자본을 지속적으로 축적·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중앙65교우회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인구/사회/경제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3-1> 응답자 특성

		동창회(N=100)	시민단체(N=100)
성별	남자	<b>100</b>	<b>65</b>
	여자	0	35
연령	20대	0	25
	30대	0	21
	40대	0	21
	50대	<b>100</b>	<b>26</b>
	60대 이상	0	7
	연령평균	50	41

38) '사회자본'과 '시간'의 관계는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자본 측정의 전제사항으로서 역사가 오래된 환경운동연합을 선택하였다.

39) 한국사회 시민단체의 독특한 특징은 유석춘·김용민, 유석춘, 2002, "한국 시민단체의 목적전치: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참고

교육수준	초등학교	0	4
	중학교	0	19
	고등학교	1	26
	대학교	43	<b>43</b>
	대학원	<b>55</b>	8
	무응답	1	0
	교육년수 <sup>40</sup> 평균	18	14
직업	전문/자유직	<b>62</b>	16
	일반사무직/관리직	26	20
	판매직/서비스직	6	<b>29</b>
	생산직/기술직	2	11
	농림/어업/축산업	2	0
	학생	0	12
	가정주부	0	6
	무직/은퇴	1	2
	군인	0	1
	기타	1	2
	무응답	0	1
종사상 지위	고용자	31	2
	피고용자	<b>48</b>	29
	자영업	20	<b>46</b>
	비해당	1	23
생활수준	상의 상층	3	1
	상의 하층	22	2
	중의 상층	<b>60</b>	19
	중의 하층	13	<b>52</b>
	하의 상층	2	17
	하의 하층	0	9
	한달수입 <sup>41</sup> 평균	584	186
고향	수도권	<b>84</b>	<b>56</b>
	충청권	4	12
	호남권	2	15
	영남권	8	11
	강원	1	6
	제주	0	0

	해외	1	0
	이북	0	0
선호정당	열린우리당	12	10
	한나라당	<b>51</b>	23
	민주노동당	2	16
	새천년민주당	1	1
	자민련	0	1
	기타정당	0	5
	없다	29	<b>37</b>
	잘모르겠다	5	7

중앙65교우회의 경우 응답자 모두 중앙고등학교 제65회 졸업생(1974년 졸업)이기 때문에 성별은 남성, 연령은 50대로 모두 동일하다. 그 밖에도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생활수준, 고향, 선호정당에서 비교적 동질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데, 그 분포는 대학원, 전문/자유직, 피고용자, 중의 상층, 수도권, 한나라당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은 동창회보다 그 분포가 다양하지만 성별,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생활수준, 고향, 선호정당에서 한가지 항목에 응답자가 집중되어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여성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는 남성이 대다수였으며, 대학교, 자영업, 중의 하층, 수도권, 선호정당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령과 직업의 경우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와 이를 보충하기 위한 심층면접의 방법을 병행하였다. 2004년 후반부터 실제적인 조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2004년 9월부터 각 집단별로 설문지와 심층면접을 위한 사전작업(pre-test)을 네차례 수행하였으며, 이를 수정한 본격적인 조사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각각 설문지 100부와 심층면접 5 사례를 동시에 수행되었다. 환경운동연합과 동창회의 사회자본을 비교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은 공통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자료수집의

40) 교육년수평균이란 초등학교를 6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각 3년, 대학교를 4년, 대학원이상을 4년으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값의 평균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년수평균 18은 대학교~대학원을, 14는 고등학교~대학교 범주에 속한다.

41) 한달수입평균은 설문지의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7'(Q7)에서 보기1(100만원 미만)부터 보기16(800만원 이상)까지 50만원 단위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방식은 다음과 같다.

중앙65교우회는 1차적으로 1년에 한번 열리는 연례행사인 송년회에 참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2명으로 구성된 중앙65교우회의 송년회 참석자 80명 중 56개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나머지 44개의 설문지는 2차 조사에서 회원명부를 통해 개별방문과 우편조사, 이메일 조사 등이 추가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의 사회자본 측정을 위해 선택된 회원은 서울·중앙 환경운동연합<sup>42)</sup>을 중심으로 한 소모임 활동회원과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의 상근자 및 자원 봉사자이다. 시민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으로 회원 명부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회원명부를 얻는다고 했을지라도 회비만 내는 회원들을 대상으로는 사회자본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43)</sup> 또한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상근자가 다른 시민단체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근자도 설문 대상자에 포함하였으나 설문지의 30%가 넘지 않도록 조절하였다.<sup>44)</sup> 또한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의 상근자 조사를 위한 방문에서 자원봉사 중이던 자원 봉사자들도 상근자와 회원들과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설문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서울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된 소모임 회원들과 상근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환경운동연합의 소모임은 보통 한달에 1~2번, 많게는 4번의 모임을 갖는데 회원수는 대개 10명 내외이다. 설문에 응답한 소모임은 솔바람(노래모임), 여성원회(주부들의 모임), 하호(동물보호 모임), 그린허브(국제연대 자원활동가 모임), 햇살지기(대학생들의 모임), 생활환경실천단(택시 자영업자들의 모임)으로 소모임 회장과 사전에 연락하여 방문하여 조사하였

---

42) 서울과 중앙 환경운동연합이 환경운동연합의 중심이라고 파악하였기 때문에 자료 수집은 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43) Kenneth Newton,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March/April, pp.575-586에서 "회비만 내는 조직은 외부효과인 다원적 민주주의에는 공헌을 할 수 있으나, 내부효과인 사회자본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44) 상근자의 경우 지속적인 대면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사회자본이 축적되기 때문에 샘플의 대표성을 위하여 그 수를 제한하였다.

고 경우에 따라 이메일 조사도 병행되었다. 조사기간 동안 활동 중인 소모임은 거의 조사되었다. 단 활동이 저조하거나 연말과 동절기 동안 방학이던 두개의 모임(물과 댄, 인왕사랑-각각 회원 5명)<sup>45)</sup>은 제외되었다.

반면 심층면접은 중앙65교우회 회장, 총무, 열혈 동창회원, 동창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회원, 동창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회원을 구분하여 조직에 관여하는 정도와 참여하는 정도를 차별화하였다. 서울·중앙 환경운동연합 역시 회원 및 회계 상근자, 환경정책 상근자, 소모임 단장, 일반 소모임 활동가, 소모임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회원을 구분하여 조직에 깊게 관여하는 사람에서부터 조직의 실정을 잘 모르는 일반회원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개념의 측정

본 연구의 설문지는 자아중심 연결망(ego-centric network)<sup>46)</sup> 자료수집 방법을 통해 응답자로 하여금 ‘(시)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친한 정도에 따라’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선택하여 기입한 정보<sup>47)</sup>에 의해 사회자본을 측정하고자 하였다(문3부터 문15까지). 조사방법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집단의 경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집단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뚜렷한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완전 연결망(complete network)이지만 자료를 조사하는 여건상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자아중심 연결망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응답자와 친분이 있는 다섯 명으로 구성된 연결망의 속성만을 보여준다.

45) 실제로 서울 환경운동연합의 소모임은 예상보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다가 모임과 회원의 수도 적어 100부의 설문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일단 형성된 소모임 회원들 간에는 사회자본이 유의미하게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46) 자아중심 연결망이란 “무작위로 추출된 응답자들로부터 그들이 맺고 있는 연결망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관하여 모아진 자료로부터 구해진 연결망”으로 정의된다. 또한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관계망으로부터 거시적인 사회 구조적 속성을 밝혀 낼 수 있는 특징 때문에 미시적 관계로부터 거시적 속성을 도출하는 좋은 기법이 된다.”(김용학, 2003a, 「사회 연결망 이론」, 박영사)

47) 문3부터 문15까지 ‘(시)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친한 정도에 따라’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떠올리게 하여 그 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그 분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응답하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아중심 연결망에 따라 앞서 논의된 사회자본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자본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연결망(network), 신뢰(trust)와 호혜성(reciprocity)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결망의 성격은 집단의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유대)을, 신뢰와 호혜성은 집단이 도구적/완성적 동기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기준이 된다. 신뢰와 호혜성이 종합적으로 집단의 도구적/완성적 동기를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후 통합하였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분석요소들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 (1) 연결망: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유대)

사회자본이 주어진 구조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관계의 총합이라고 정의될 때 연결망(network)에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사회자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결망은 사회자본의 측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하지만 사회자본의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유대)에 관한 논쟁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강한 유대이고 무엇이 약한 유대인지에 대한 규정이 연구자들마다 서로 달라서<sup>48)</sup> 유대를 측정하는 합의된 적절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대의 종류를 가늠하는 여러가지 기준 중 연결망 밀도, 관계의 빈도, 관계의 지속성, 관계의 중복성, 교환자원총량으로 유대의 종류를 측정하고자 한다.

---

48) 그라노벤탐타(Granovetter, 1973)는 관계의 '접촉 빈도'를 사용하여 1주일에 1회 이상 만나는 친한 친구는 '강한 연대'로 보고, 어쩌다 만나는 면식만 있는 경우는 '약한 연대'로 보았다. 한편 에릭슨과 양시(Erickson&Yangsii, 1980)는 관계의 원천을 따져서 친척, 친구이면 '강한 연대', 그냥 아는 사람이면 '약한 연대'로 정의 내렸다. 프리드킨(Friedkin, 2001)은 관계 조사 대상인 두 사람이 모두 관계를 인정하면 '강한 연대'로 보고, 어느 한쪽만 인정하면 '약한 연대'로 분류하였다. 또한 마르스텐과 캠벨(Marsden, 1982)은 관계의 '지속성'과 관계의 '빈도'라는 두 가지 지표는 관계 중심이 누구냐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 정확한 지표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친밀성'이 관계의 강도를 잘 표현해준다고 주장한다.



<표3-2> 연결망의 측정: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유대)

	차원	측정(설문지 문항)	척도
연결망	연결망 밀도	서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지 여부 (문4)	아는 사람끼리 그어진 실선의 총수
	관계의 빈도	대면접촉 빈도 (문8-1) 전화접촉 빈도 (문8-2) 인터넷접촉 빈도 (문8-3)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한번 ③ 1달에 한번    ④ 3-4달에 한번 ⑤ 6개월에 한번   ⑥ 1년에 한번 ⑦ 하지 않는다
	관계의 지속성	서로 알고지낸 기간 (문3-11)	1년 단위
	관계의 중복성 (중복체크가능)	응답자와 어떤 관계인가 (문3-2)	① 친(인)척      ② 직장상사/동료/부하 ③ 초중고교 동문 ④ 대학 동문 ⑤ 이웃          ⑥ 같은 고향 사람 ⑦ 모임/단체의 회원 ⑧ 기타
	교환자원총량 (중복체크가능)	교환되는 자원 (문6, 7)	①중요한 정보나 소식 ②돈/중요한 물건(자동차 등) ③개인적인 고민을 의논/위로 ④집안일(이사,김장,아기돌보기 등) ⑤취직이나 승진 ⑥명절인사/선물/경조사 부조 ⑦기타

주: (1)'연결망 밀도'란 사람들 사이에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관계의 수에서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최소 0에서 최대 1까지의 값을 갖는다. 밀도의 계산에는 응답자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문4에 응답자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2)'관계의 빈도'란 접촉의 빈도를 의미하며, 관계의 빈도의 계산은 대면접촉 3, 전화접촉 2, 인터넷접촉 1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접촉의 빈도에 따라 '접촉하지 않는다'에서 '거의 매일 접촉한다'까지 7개의 응답을 0점에서 6점까지로 부여한 후에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관계의 빈도가 잦고 대면적 접촉일수록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관계의 지속성'은 알고 지낸 기간을 년 단위로 파악하여 측정하였다. (4)'관계의 중복성'이란 응답자와 관련된 개인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복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창회와 시민단체 각각 초,중,고교 동문과 모임의 회원이라는 항목에 기본적으로 해당하므로 최소 1에서 최대 8까지(범주의 총수)의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한 응답자가 특정 개인과 '친척', '동문', '동향' 등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 응답자의 관계의 중복성은 3이 된다. (5)'교환자원총량'이란 지난 1년 사이에 기입한 5명에게 도움을 주고받은 정도를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오고 간 내용으로 중요한 정보나 소식을 전해 들었다/주었다는 '정보', 급하게 돈을 꾸거나 중요한 물건(자동차 등)을 빌렸다/빌려 주었다는 '재화', 개인적인 고민을 의논하거나 위로를 받았다/주었다는 '위로', 집안일(이사,김장,아기 돌보기 등)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주었다는 '용역', 취직이나 승진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주었다는 '위세', 명절 인사/선물이나 경조사 부조를 받았다/주었다는 '평판'으로 유형화하여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결망 밀도가 높을수록, 관계의 빈도가 잦을수록, 관계의 지속성이 오래될수록, 관계가 중복될수록, 교환자원총량이 클수록 연결망의 강도는 강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응답자가 자신과 연결된 한 개인과의 관계가 '친인척', '동료', '학교 동문' 등으로 중복되어 나타난다면 그 연결 강도가 하나의 단일한 관계로만 연결되는 것보다 강할 것이며, 또한 연결된 개인이 응답자가 거명한 다른 개인들과의 상호 교환하는 자원이 '정보', '재화', '용역', '위세' 등으로 다양하고 많을수록 연결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표3-3> 유대의 종류

	강한 유대	약한 유대
연결망 밀도	높다	낮다
관계의 빈도	높다	낮다
관계의 지속성	높다	낮다
관계의 중복성	높다	낮다
교환자원총량	높다	낮다

출처: 최중렬(2004:116) 재구성

하지만 강한/약한 유대를 구분하는 기준의 높고 낮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집단의 유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측정값이 큰 경우를 강한 유대로, 측정값이 작은 경우를 약한 유대로 구분하였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 측정시 기대되는 최대값을 고려하여 강한/약한 유대를 구분하였다.<sup>49)</sup>

49) 예를 들어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관계의 지속성의 평균이 각각 30.53, 5.4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진다면, 평균값이 높은 동창회가 강한 유대를, 평균값이 낮은 시민단체가 낮은 유대를 갖는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연결망 밀도가 0.85, 0.8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두 집단의 연결망 밀도는 밀도의 기대되는 최대값 1에 근접한 수준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모두 '강한 유대'를 갖는것으로 분석하였다.

## (2) 신뢰와 호혜성: 도구적/완성적 동기

사회자본에 관한 많은 글들이 신뢰와 호혜성을 소홀히 하고 연결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뢰와 호혜성이야말로 사회자본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최종렬(2004)의 견해에 따라 연결망과 함께 신뢰와 호혜성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뢰와 호혜성은 집단의 도구적/완성적 동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연결망의 측정과 달리 신뢰와 호혜성의 측정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신뢰와 호혜성의 유형과 정도를 측정하기란 어렵다. 또한 신뢰와 호혜성이 개인적인 느낌이나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설문조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신뢰와 호혜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문항만으로는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존재하는지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역으로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이 깨지거나 어긋나는 사례를 가정하여 응답자가 반응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통하여 신뢰와 호혜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 1) 신뢰

신뢰란 일반적으로 타자가 자신의 기대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신뢰의 개념을 체계화한 주커(Zucker, 1986)에 의하면 “신뢰란 사회학적 견지에서 신뢰는 교환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련의 기대”로 정의된다. 본 논문은 주커의 이러한 신뢰개념을 “일상생활의 자연적 태도에서 나오는 기대를 하나의 도덕으로 보고 그에 동조하는 행위를 말하는 현상학적 개념”으로 정의하는 최종렬(2004)의 견해에 따라 신뢰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그는 주커가 구분한 신뢰의 유형을 따라 신뢰를 한 집합체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상징과 해석들에 따라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배경적 기대’(background expectations),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맥락과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구성적 기대’(constitutive

expectations), 의심의 유보를 거부하는 ‘불신’으로 유형화한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배경적 기대란 하나의 집합의식만이 존재하는 ‘기계적 연대’ 혹은 김용학(2004)이 말하는 ‘상태로서의 신뢰’와 상통하며, 구성적 기대는 공동의 집합의식들이 존재하면서 주요 분업에 각각 구체화되어 양심들이 존재하는 ‘유기적 연대’ 혹은 김용학(2004)이 말하는 ‘사건으로서의 신뢰’와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신-구성적 기대-배경적 기대로 갈수록 신뢰의 정도는 두터워진다고 할 수 있다.

신뢰는 ‘물질적 기대’, ‘비물질적 기대’, ‘신뢰회복방법’의 세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신뢰가 어긋나거나 깨지는 상황을 가정하여 -2점에 가까울수록 ‘불신’, 0점에 가까울수록 ‘구성적 기대’, 2점에 가까울수록 ‘배경적 기대’를 갖는것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응답자와 연결된 개인들의 신뢰의 정도는 -2점에서 2점까지의 척도가 상쇄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표3-4> 신뢰의 측정

구성 요인	차원	측정(설문지 문항)	불신 (-2점)	구성적 기대 (0점)	배경적 기대 (2점)
신뢰	물질적 기대	3달치 생활비를 빌려가서 갚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문12)	법적인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낸다	반반이다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기다린다
	비물질적 기대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문13)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	반반이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는다
	신뢰회복 방법	기대에 어긋나는 처신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문14)	기준에 있는 법이나 규칙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	그 사람과 나를 모두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 알아본다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해 본다

주: 본래 설문지는 신뢰의 척도가 1에서 5까지였으나 신뢰의 유형과 정도 분석의 편의상 -2에서 2까지로 리코드(recode)하여 분석하였다.

## 2) 호혜성

호혜성이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이를 되갚아야 한다는 일반적 규범을 일컫는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호혜성을 “도덕적 의무감에 기반하여 교환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것을 되갚아야 할 의무와 자신이 베푼 것을 되돌려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서로에게 공유되는 인류학적 개념”으로 이해한 최종렬(2004)의 개념에 따라 호혜성의 유형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그는 호혜성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한 셀린스(Sahlins,1972)에 따라 호혜성을 일반화된 호혜성 (generalized reciprocity), 균형잡힌 호혜성(balanced reciprocity), 부정적 호혜성 (negative reciprocity)으로 유형화한다. 일반화된 호혜성은 되도록이면 더 빨리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경향을 가리키고, 균형잡힌 호혜성은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동일한 양으로 주고 받으려는 직접적인 교환을 의미하며, 부정적 호혜성은 상호적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정적 호혜성-균형잡힌 호혜성-일반화된 호혜성으로 갈수록 호혜성의 정도는 두터워진다고 할 수 있다.

<표3-5> 호혜성의 유형

	부정적 호혜성	균형잡힌 호혜성	일반화된 호혜성
이해관계의 방향성	자신의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	자신과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동등하게 고려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
예상된 보상의 즉각성	즉각성이 높다 (보상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짐)	즉각성이 중간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음)	즉각성이 낮다 (정해지지 않음)
예상된 보상의 등가성	부등가적 (자기자신을 위한)	등가적	정해지지 않음

출처: 최종렬(2004:109) 재구성

호혜성 역시 ‘이해관계의 방향성’,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 ‘예상된 보답의 등가성’을 기준으로 -2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호혜성’, 0점에 가까울수록 ‘균형잡힌

호혜성', 2점에 가까울수록 '일반화된 호혜성'을 갖는것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응답자와 연결된 개인들의 신뢰의 정도는 -2점에서 2점까지의 척도가 상쇄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표3-6> 호혜성의 측정

	차원	측정(설문지 문항)	부정적 호혜성 (-2점)	균형잡힌 호혜성 (0점)	일반화된 호혜성 (2점)
호혜성	이해관계 방향성	평소 누구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 (문9)	전적으로 나의 입장	반반이다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	호의에 대한 보답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문10)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반반이다	보답이 아무리 늦어져도 상관없다
	예상된 보답의 등가성	보답의 정도 또는 크기는 어떠해야 하는가? (문11)	내가 대접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아야 한다	반반이다	내가 대접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

주: 본래 설문지는 신뢰의 척도가 1에서 5까지였으나 신뢰의 유형과 정도 분석의 편의상 -2에서 2까지로 리코드(recode)하여 분석하였다.

신뢰와 호혜성은 모두 응답자와 연결된 개인들에 대하여 세가지 분석적 차원을 기준으로 -2점에서 2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신뢰와 호혜성을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하자면 배경적 기대는 일반화된 호혜성과 짝을 맺고, 구성적 기대는 균형잡힌 호혜성과 짝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 3)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

개별적으로 측정한 신뢰와 호혜성이 집단의 도구적/완성적 동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념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뢰는 호혜성이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호혜성이 없는 대상에 대해 결코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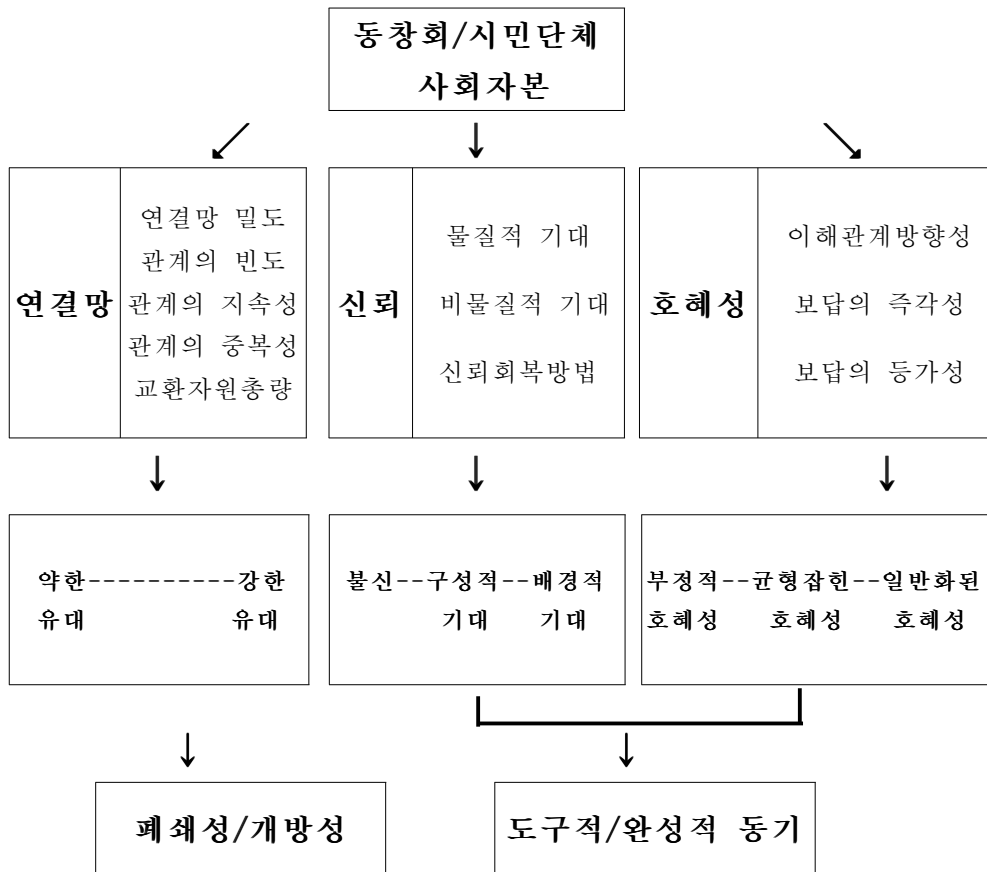
종렬, 2004) 호혜성 없는 신뢰 역시 완성적 동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은 신뢰와 호혜성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통합된 신뢰와 호혜성 척도의 유형은 합산된 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신뢰의 유형 중 불신은 호혜성의 유형 중 부정적 호혜성과, 구성적 기대는 균형잡힌 호혜성과, 배경적 기대는 일반화된 호혜성과 짝을 맺기 때문에, -2는 불신과 부정적 호혜성을, 0은 구성적 기대와 균형잡힌 호혜성을, 2는 배경적 기대와 일반화된 호혜성을 가리킨다. 불신(-2)과 부정적 호혜성(-2)에서 배경적 기대(+2)와 일반화된 호혜성(+2)으로 갈수록 그 성격이 완성적이다.

### 3. 논문의 분석틀

<그림3-1>은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사회자본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연결망, 신뢰와 호혜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려는 본 논문의 분석틀을 정리한 것이다. 즉 연결망 밀도, 관계의 빈도, 관계의 지속성, 관계의 중복성, 교환자원총량을 기준으로 연결망의 성격(강한/약한 유대)을, 물질적 기대, 비물질적 기대, 신뢰회복방법에 따라 신뢰의 유형과 정도를, 이해관계의 방향성, 보답의 즉각성, 보답의 등가성을 기준으로 호혜성의 유형과 정도를 구분한 후, 강한/약한 유대로 집단의 폐쇄성/개방성을, 신뢰와 호혜성의 유형과 정도로 도구적/완성적 동기를 분석한다.

<그림3-1> 논문의 분석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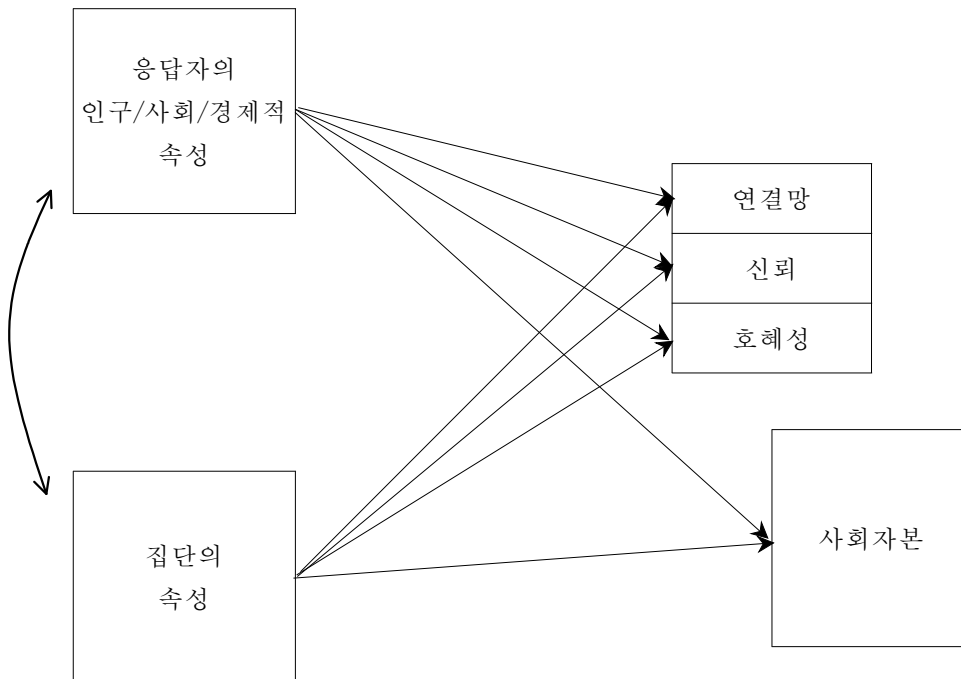


하지만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축적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다양한 속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감안하여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속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속성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소라 한다면,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사회자본이 집단별 특성에 기인한다는 본 논문의 목적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핵심요소와 전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속성인지 집단의 속성인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림3-2>는 이



러한 과정을 나타내는 분석틀이다. 개인/집단의 속성이 사회자본의 세가지 구성요소(연결망, 신뢰, 호혜성)와 사회자본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그림3-2> 논문의 분석틀2



이러한 두가지 분석틀에 의해 검증하려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두 집단의 사회자본이 개인의 속성보다는 집단의 속성에 기인한다는 가정 아래,

1. 연결망: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유대)

1) 연고집단의 친밀한 구성원 사이에는 내적 결속이 강한 유대와 동시에 약한 유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확장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sup>50)</sup>(가설1)

50) 유석춘, 2002,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pp128:11-130:15

2) 서구식 자발적 결사체의 친밀한 구성원 사이에는 약한 유대와 동시에 내적 결속이 강한 유대가 존재한다.<sup>51)</sup> 따라서 개방성만을 가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가설2)

## 2. 신뢰와 호혜성: 도구적/완성적 동기

1) 연고집단은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완성적 공동체인 동시에 도구적 공동체일 것이다.<sup>52)</sup> (가설3)

2) 자발적 결사체는 도구적 공동체의 성격도 지니지만 동시에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완성적 공동체일 것이다.<sup>53)</sup> (가설4)

이러한 가설에 따라 “서로 다른 구성원리를 지닌 두 집단의 성격에 관한 대립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현실에서 두 집단은 강한/약한 유대를 동시에 지니면서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정서적 공동체라는 점에서 이념형적 예측과 같이 대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

---

51) 유석춘, 2002,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pp128-130

52) 유석춘, 2002,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pp124:17-20

53) 확장된 연줄망은 도구적 성격을 가진다는 이재열(2001)의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 제4장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사회자본 비교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연결망의 성격을 살펴보기에 앞서 ‘연결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자아중심 연결망의 방법을 통해 응답자로 하여금 ‘(시)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친한 정도에 따라’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선택하여 기입한 정보<sup>54)</sup>를 중심으로 연결망이 구성되어 있다. 바로 이 값이 한 결점(node)이 맺고 있는 결점의 숫자를 의미하는 ‘연결정도’로 본 조사에서 최소 1에서 최대 5까지의 값을 갖는다.

<표4-1> 연결정도

	1명	2명	3명	4명	5명	평균	표준편차	t	p
동창회(N=100)	3	3	7	2	85	4.63	0.96	2.056	0.041
시민단체(N=100)	1	13	11	3	72	4.32	1.16		

주: 문3부터 ‘(시)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친한 정도에 따라’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떠올려 그 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그 분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조사하였다. 연결정도란 응답자가 꼽은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연결정도 평균은 각각 4.63, 4.3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창회와 시민단체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5명을 기입하였지만 시민단체 회원들이 5명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와 그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이다. 각 집단에서 응답자가 기입한 사람의 수가 다르므로 응답자와 연결된 개인의 수도 달라지는데, 각 집단별로 100부의 설문지가 조사되었으므로 응답자를 중심으로 동창회와 시민단체는 각각 463, 432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결망, 신뢰, 호혜성의 측정은 응답자와 연결된 개인 혹은 그 연결망을 중심으로 측정되었다.

54) 문3부터 문15까지 ‘(시)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친한 정도에 따라’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떠올리게 하여 그 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그 분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응답하게 하였다.

## 1. 연결망: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유대)

### (1) 연결망 밀도

연결망 밀도란 사람들 사이에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관계의 수에서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범위에서 그들끼리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개념이다. 밀도의 계산에는 자동적으로 응답자가 포함되므로 실제로 조사된 관계에 더하여 응답자와의 관계까지 포함된다. 즉 본 설문지에서는 응답자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응답자가 기입한 사람의 수(연결정도)에 따라 가능한 모든 관계의 수에 아는 사람끼리 그어진 실선의 총수(문4)<sup>55)</sup>의 비율을 구한 후 다시 응답자를 포함시켜 밀도가 구해졌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기입한 사람(연결정도)이 5명이고 문4에 그어진 실선의 수가 4이면, 5명이 연결되는 모든 관계의 수인 10에서 실제로 연결된 수 4의 비율은 0.4가 된다. 하지만 0.4는 응답자가 포함된 개념이 아니므로 응답자를 포함시켜 계산한다면, 가능한 모든 관계의 수  $10+5$ (응답자를 포함해서 추가된 수)=15에 실제로 연결된 수  $4+5$ (응답자를 포함해서 추가된 수)=9로 밀도는  $9/15 \approx 0.27$ 이 된다.

<표4-2,3>은 밀도와 그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가 기입한 사람의 수인 연결정도(세로축)와 문4에서 그어진 실선의 수(가로축)를 교차시킨 것이다.

---

55) (문4) “귀하가 문3에서 응답해주신 분들끼리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지 여부를 표시해주십시오.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분들끼리 실선으로 연결해주십시오. 단 문3에서 아무도 접촉하지 않았거나 1명만 접촉했을 경우에는 이 문항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4-2> 동창회 연결정도에 따른 실선수

연결정도 \ 실선수	0	1	2	3	4	5	6	7	8	9	10	합계
1	3											3
2	1	2										3
3	0	1	4	2								7
4	0	0	0	1	0	0	1					2
5	0	2	6	4	1	10	7	6	3	5	41	85
합계	4	5	10	7	1	10	8	6	3	5	41	100

주: 세로축은 응답자가 기입한 사람수(연결정도)를, 가로축은 '문4'에서 그어진 실선의 수를 나타낸다. 응답자가 기입한 사람의 수에 따라 존재할 수 없는 실선의 총수가 생기는데, 이것을 빈칸으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기입한 사람의 수가 1명인 경우 실선은 그어질 수 없으므로 1이상은 공란이 되고, 응답자가 기입한 사람의 수가 3명이라면 가능한 실선의 수는 최소 0에서 최대 3이 되므로 4이상은 공란이 된다. 따라서 밀도가 1이 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공란 직전의 수가 된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기입한 사람의 수가 3명이 고 실선의 수가 3이라면 응답자를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밀도는 1이 된다. 마찬가지로 응답자가 기입한 사람의 수가 5인 경우 밀도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실선의 수가 10이어야 한다.

<표4-3> 시민단체 연결정도에 따른 실선수

연결정도 \ 실선수	0	1	2	3	4	5	6	7	8	9	10	합계
1	1											1
2	1	12										13
3	0	0	7	4								11
4	1	0	0	2	0	0	0					3
5	3	2	3	5	8	9	7	2	5	6	22	72
합계	6	14	10	10	8	9	7	2	5	6	22	100

주: 세로축은 응답자가 기입한 사람수(연결정도)를, 가로축은 '문4'에서 그어진 실선의 수를 나타낸다. 응답자가 기입한 사람의 수에 따라 존재할 수 없는 실선의 총수가 생기는데, 이것을 빈칸으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기입한 사람의 수가 1명인 경우 실선은 그어질 수 없으므로 1이상은 공란이 되고, 응답자가 기입한 사람의 수가 3명이라면 가능한 실선의 수는 최소 0에서 최대 3이 되므로 4이상은 공란이 된다. 따라서 밀도가 1이 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공란 직전의 수가 된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기입한 사람의 수가 3명이 고 실선의 수가 3이라면 응답자를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밀도는 1이 된다. 마찬가지로 응답자가 기입한 사람의 수가 5인 경우 밀도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실선의 수가 10이어야 한다.

다.

<표4-4>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해진 동창회와 시민단체 연결망 밀도를 정리한 결과이다.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연결망 밀도의 평균은 각각 0.85, 0.8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높은 밀도는 동창회와 시민단체 모두 일단 형성된 관계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 정도가 높아 그들의 관계가 촘촘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두 집단 모두 ‘연결망 밀도’를 기준으로 ‘강한 유대’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4-4> 연결망 밀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t	p
동창회(N=100)	0.40	1	0.85	0.19	1.430	0.154
시민단체(N=100)	0.33	1	0.81	0.20		

## (2) 관계의 빈도와 지속성

관계의 빈도란 접촉의 빈도를 의미하며, 만나는 빈도, 전화 빈도, 인터넷 빈도로 측정하였다(문8-1,2,3). <표4-5>는 관계의 빈도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표4-5> ‘관계의 빈도’ 분포

		거의 매일	1주일	1달	3~4달	6개월	1년	하지 않는다	
만나는 빈도	동창회(N=463)	7	47	<b>144</b>	148	64	53	*	
	시민단체(N=427)	<b>111</b>	161	108	23	17	7		
전화 빈도	동창회(N=463)	29	95	<b>151</b>	104	49	35		
	시민단체(N=420)	88	<b>143</b>	100	44	26	19		
인터넷 빈도	동창회(N=463)	1	15	47	<b>58</b>	27	24		<b>291</b>
	시민단체(N=427)	52	79	<b>88</b>	31	17	4		<b>156</b>

주: (문8-1,2,3)을 빈도 분석한 것이다. 응답자와 연결된 개인을 중심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동창회의 N은 463, 시민단체의 N은 432가 된다. 경우에 따라 missing value가 발생하였

다. 또한 \*표시는 ‘만나는 빈도’와 ‘전화 빈도’에서 ‘하지 않는다’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단체는 동창회보다 관계가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근자의 경우는 물론이고 소모임 회원들 역시 1달에 1~4번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창회(중앙65교우회)의 경우 정기적인 모임이 일년에 두번(총회, 연말모임)인데다 개별적으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거주지와 직업 등이 달라 관계의 빈도 주기가 긴 것으로 보인다. 즉 동창회의 경우 과거에 경험을 공유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주기적으로 혹은 빈번하게 만나지 못하는 반면, 시민단체 회원들은 모임의 성격상 주기적으로 관계하는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관계의 빈도 계산은 만나는 빈도 3, 전화 빈도 2, 인터넷 빈도 1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접촉의 빈도에 따라 ‘접촉하지 않는다’에서 ‘거의 매일 접촉한다’까지 7개의 응답을 0점에서 6점까지로 부여한 후에 합산하여 계산하였는데 <표4-6>은 이러한 과정의 결과를 정리한 결과이다.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평균은 각각 83.51, 109.2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관계의 빈도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표4-5>의 따라서 ‘관계의 빈도’를 기준으로 동창회는 ‘약한 유대’를, 시민단체는 ‘강한 유대’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표4-6> ‘관계의 빈도’ 측정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t	p
동창회(N=100)	11	145	83.51	31.31	-5.313	0.000
시민단체(N=100)	0	180	109.21	36.88		

주: ‘관계의 빈도’는 설문지에서 접촉의 빈도는 대면접촉, 전화접촉, 인터넷접촉으로 (1) 거의 매일, (2) 일주일에 한번, (3) 1달에 한번, (4) 3-4달에 한번, (5) 6개월에 한번, (6) 1년에 한번, (7) 하지 않는다 등으로 구분하였다. 관계의 빈도의 계산은 연결망을 중심으로 대면접촉 3, 전화접촉 2, 인터넷접촉 1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접촉의 빈도에 따라 ‘접촉하지 않는다’에서 ‘거의 매일 접촉한다’까지 7개의 응답을 0점에서 6점까지로 부여한 후에 합산한 것이다. 관계의 빈도가 잦고 대면적 접촉일수록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관계의 지속성도 관계의 빈도와 더불어 상호작용의 정도를 알려주는 중

요한 지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응답자로 하여금 연결된 개인과 서로 알고지낸 기간을 년 단위로 파악하여 측정하였다(문3-11).

<표4-7> 관계의 지속성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t	p
동창회(N=463)	1	43	30.53	6.47	30.181	0.000
시민단체(N=432)	1	53	5.48	5.19		

주: (문3-11) “알고지낸 기간(1년 단위로 적어주십시오.) \_\_\_\_년” 응답자와 연결된 개인을 중심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동창회의 N은 463, 시민단체의 N은 432가 된다.

동창회의 경우 ‘중앙65교우회’의 특성상 졸업한지 30년이 되기 때문에 지속성의 평균이 30.53이다. 하지만 소식이 끊겼다가 최근에 연락된 경우라든지 동창친구를 통해 다른 동창생을 알게 된 경우, 중앙 고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아는 경우 등이 있어 최소값, 최대값, 그에 따른 표준편차가 발생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회원들이 알고지낸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3년까지로 평균이 5.48이다. 환경운동연합이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라는 전신이 있는 후 1993년부터 전문적인 환경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로 출범하여 최대 24년의 역사를 갖는것을 고려할 때, 지속성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56)</sup>

종합하면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지속성의 평균은 각각 30.53, 5.48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중앙65교우회’의 특성상 졸업한지 30년이 되기 때문에 동창회원의 지속성은 거의 30년이 되는 반면, 환경운동연합의 역사는 전신을 고려하더라도 24년이 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이 동창회보다 낮다. 만약 졸업한지 3년이 지난 동창생을 중심으로 관계의 지속성을 측정했다면 그 동창회는 환경운동연합보다 지속성의 평균이 낮았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성의 측정에는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관계의 지속성의 측정값으로 유대를 구분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따르지만, 본 연구에서 중앙65교우회와 환경운

56) 이것은 ‘관계의 중복성’과 바로 직결되는데, 시민단체 회원들의 활동기간이 1~16년 사이로 제한되어 있음(평균:4.8년)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지속성의 폭이 더 넓다는 것은 바로 관계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연합을 조사대상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지속성’을 기준으로 동창회는 ‘강한 유대’를, 시민단체는 ‘약한 유대’를 가진다.

### (3) 관계의 중복성

관계의 중복성이란 응답자와 관련된 개인들이 응답자와 관계가 얼마나 중복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응답자로 하여금 연결된 개인과 어떠한 관계(친(인)척, 직장상사/동료/부하, 초중고교 동문, 대학 동문, 이웃, 같은 고향 사람, 모임/단체의 회원, 기타)에 있는지를 중복체크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표4-8>은 각 집단의 관계의 분포와 중복된 관계수를 정리한 결과이다. 관계의 분포에서 동창회와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각각 초중고 동문과 모임의 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복된 관계수는 최소 1이상 최대 8(범주의 총합)까지의 값을 갖는다.

<표4-8> 관계의 분포 단위: 명(%)

관계	관계								합계	평균
	친척	직장	초중고 동문	대학 동문	이웃	고향	모임	기타		
동창회 (N=463)	6 (1.30)	20 (4.32)	463 (100)	<b>86</b> <b>(18.57)</b>	10 (2.16)	7 (1.51)	32 (6.91)	3 (0.65)	627	1.34
시민단체 (N=432)	4 (0.93)	<b>159</b> <b>(36.81)</b>	13 (3.01)	15 (3.47)	27 (6.25)	11 (2.55)	432 (100)	17 (3.94)	678	1.61

주: (문3-2) “귀하와 어떤 관계입니까?(중복되는 경우 모두 표시해주세요) 보기:①친(인)척, ②직장상사/동료/부하, ③초중고교 동문, ④대학 동문, ⑤이웃, ⑥같은 고향 사람, ⑦모임/단체의 회원, ⑧기타”

<표4-9> 중복된 관계수

중복된 관계수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평균	t	p
동창회(N=463)	<b>323</b>	126	11	3	0	1.34	-4.183	0.000
시민단체(N=432)	203	<b>216</b>	10	2	1	1.61		

동창회의 관계의 중복성은 시민단체보다 작다. 특히 지역(이웃이나 고향)과 학력<sup>57)</sup>이 유사하고, 관계의 중복성에서 선후관계가 동창이라는 사실이 먼저일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관계의 중복성이 동창회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경우 관계의 중복성은 4(친·인척)+159(직장관련)+13(초중고동문)+15(대학동문)<sup>58)</sup>+27(이웃)+11(고향관련)+17(기타)=246(1.61)으로 동창회(1.34)보다 크다. 특히 이것은 직장과 관련하여 두드러지는데, 상근자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택시자영업자들이 직장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창회는 중복된 관계수가 1개인 경우가 323명(약 70%)인 반면, 시민단체는 2개 이상의 경우가 216명(약 50%)에 해당하였다. 이것은 동창회원들은 단일한 관계(다른 집단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유일하게 동창관계이기만 한 경우)가 더 많은 반면, 시민단체 회원들은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이외의 단체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환경운동 연합 이외의 집단에 동시에 소속된 사람과 시민단체에서 친분을 맺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관계의 중복성의 평균은 동창회와 시민단체가 각각 1.34, 1.61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관계의 중복성’을 기준으로 동창회는 ‘약한 유대’를, 시민단체는 ‘강한 유대’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연결망에서 관계의 중복성이 가지는 의미 또한 시민단체가 동창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관계의 지속성’과 관련시켜 본다면, 시민단체 내에서 지속성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3년까지로 환경운동연합의 최대역사 24년보다 긴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러한 비교적 긴 강한 유대는 관계의 중복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회원들의 활동기간이 1~16년 사이로 제한되어 있음(표4-10 참고)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지속성의 폭이 더 넓다는 것은 환경운동연합에 가입하기 전부터

57) 중앙65교우회는 비평준화였으므로 학력수준이 비슷하다.

58) 시민단체에 초중고 동문이 비교적 낮게 중첩되어 있어 시민단체와 동창회의 특성이 구분될 수 있었다.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관계의 중복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4-10> 시민단체 회원들의 활동기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시민단체(N=100)	1	16	4.77	3.27

주: (문12) “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모임에 참여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년” 이 문항은 동창회의 경우 비교적 동일할 것이라 예상되었기 때문에 환경운동연합 설문지에만 추가하였다.

시민단체 관계의 중복성의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생활환경실천단 회원들이 환경운동연합에 들어오는 것은 인맥이 꽤 중요하죠..서로 동료들 간에 내가 있으니, 내가 환경운동연합에 있으니 괜찮더라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우린 늘 항상 각 지역에 가스 충전소가 있어요.....충전소에 휴게소마다 한달에 한번씩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해서 월례회의의 공고를 붙여요.....이때 회의 주요안건도 삽입을 시켜요. 이렇게 우리 환경운동연합이 벌써 8년 정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구 내에서는 아는 사람이 8,90%가 되고...거의 인맥 쪽으로 들어오죠..(중략)...○○구에서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노상에 자판기..각처에 충전소마다 휴게실이 있어서 거기서 만나고,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그러다 보면 거기는 내 단체니 남의 단체니 해서 인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하죠...(생활환경실천단 ○○구 단장 김씨)

환경운동연합에서 생활환경실천단(택시 자영업자들의 모임)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발적으로 시민단체에 가입한 후에 회원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흔할수록 시민단체에서 관계의 중복성은 커지게 된다.

#### (4) 교환자원총량

교환자원총량이란 지난 1년 사이에 응답자가 기입한 5명에게 도움은 주고 받은 정도를 의미하는데, 실제 연결망 안에서 교환되는 자원의 종류와 총량을 통해 연결망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사실에서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오고 간 내용으로 중요한 정보나 소식을 전해 들었다/주었다는 ‘정보’, 급하게 돈을 꾸거나 중요한 물건(자동차 등)을 빌렸다/빌려 주었다는 ‘재화’, 개인적인 고민을 의논하거나 위로를 받았다/주었다는 ‘위로’, 집안일(이사,김장,아기 돌보기 등)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주었다는 ‘용역’, 취직이나 승진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주었다는 ‘위세’, 명절 인사/선물이나 경조사 부조를 받았다/주었다는 ‘평판’으로 유형화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중복체크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표4-11> 교환자원의 분포

단위: 명(%)

		정보	재화	위로	용역	위세	평판	기타	합계
동창회	받았다	221	25	184	58	13	102	47	650
		(34)	(3.85)	(28.31)	(8.92)	(2.00)	(15.69)	(7.23)	(100)
시민단체	받았다	306	35	138	38	9	82	9	617
		(49.59)	(5.67)	(22.37)	(6.16)	(1.46)	(13.29)	(1.46)	(100)
동창회	주었다	219	28	203	42	11	78	45	626
		(34.98)	(4.47)	(32.4)	(6.71)	(1.76)	(12.46)	(7.19)	(100)
시민단체	주었다	270	42	126	28	15	83	21	585
		(46.15)	(7.18)	(21.54)	(4.79)	(2.56)	(14.19)	(3.59)	(100)

주: (문6,7) “앞에서 응답하신 분들은 지난 1년 사이에 어떤 일 때문에 만났거나 또는 연락을 하셨습니까? 귀하께서 그분들에게 어떤 종류의 도움을 받으셨는지/제공하셨는지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다음의 보기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표시해주시시오.①중요한 정보나 소식, ②돈/중요한 물건(자동차 등), ③개인적인 고민을 의논/위로, ④집안일(이사,김장,아기돌보기), ⑤취직이나 승진, ⑥명절인사/선물/경조사 부조”. 이것을 중요한 정보나 소식을 전해 들었다/주었다는 ‘정보’, 급하게 돈을 꾸거나 중요한 물건(자동차 등)을 빌렸다/빌려 주었다는 ‘재화’, 개인적인 고민을 의논하거나 위로를 받았다/주었다는 ‘위로’, 집안일(이사,김장,아기 돌보기 등)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주었다는 ‘용역’, 취직이나 승진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주었다는 ‘위세’, 명절 인사/선물이나 경조사 부조를 받았다/주었다는 ‘평판’으로 유형화하였다.

두 집단 모두 주고 받은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환자원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연결망의 성격을 유의미하게 드러낸다고 판단된다. 동창회와 시민단체 모두 '정보'와 '위로'의 성격이 강하고 '재화'나 '위세'의 성격은 약하다. 이것은 두 집단 모두 돈이나 중요한 물건(자동차 등), 취직이나 승진 등을 교환하는 도구적 관계보다는 중요한 정보, 소식 혹은 개인적인 고민에 대해 의논하거나 위로 하는 등의 정서적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구성원리에 기초한 동창회와 시민단체이지만 일단 형성된 관계가 도구적 관계보다 정서적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집단에서 추구하는 관계의 유형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창회에서는 '정보'보다는 '위로'의 성격이 더 강하였고, 시민단체는 '위로'보다는 '정보'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나 동창회가 시민단체보다 더 정서적인 집단임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동창회는 예상외로 돈이나 중요한 물건(자동차 등), 취직이나 승진 등을 교환하는 도구적 관계가 약하다고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사회에서 만난 사람은 어떤 예를 들면 딱 맞지는 않지만, 아까처럼 돈을 꺼준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일부러 안꺼주지..돈이라는 게 상당히 절대 꺼주는 게 아니야..친구 사이에서는..웬만하면 안꺼주는거야..안꺼주는 게 나은거지..나도 꺼봤었구..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안꺼주려고 해..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개는 나한테 소중하기 때문에..내가 그걸 알아. 무슨 모임을 한다고 그러면 만나고..다 마찬가지로..자기가 다른 것 제치고 만나는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지..업무 쪽에는 안그렇지..그런 차이가 있지.. 그건 나뿐이 아니라 다 똑같은거야..(중앙65교우회 임원 박씨)

취직 같은 거는 세상이 맑아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럴잖아요....취직에 관한 정보나 그런 건 관찰아지겠지만 상대방 지위에 부담이 되는 그런 거는 안하는 게 서로 예의지..차라리 돈을 빌려주는 게 낫지..명예나 지위에 부담이 되면 안되지...박정희 때는 부탁하면 아..그거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그런 일 있음 큰일나지...서로가 조심해야지..그건 부탁하는 사람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런 건 하는게 아니라고 봐요..차라리 그나마 돈은 빌려줄 수 있지..그 사람이 재산이 어떨구 그런 거 아니까..차라리 돈이 낫지..(중앙65교우회 일반회원 이씨)

과거에 경험을 공유한 절친한 동창회원들 사이라고 하더라도 돈이나 취직과 같은 물질적 부탁은 비물질적 우정이나 명예를 위해서 조심해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완성적 동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교환의 흐름이 활발할 것이라 판단되는 동창회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재화, 위세와 같은 물질적 교환은 흔치 않은 경우로 보인다.

교환자원총량은 앞서 분석한 응답자와 연결된 개인들에 해당하는 정보, 재화, 위로, 용역, 위세, 평판의 주고 받은 양을 모두 합산하였으며, 교환자원의 중첩성은 교환자원총량에 연결된 개인의 수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교환되는 자원의 총량이 많고 중첩될수록, 연결망의 강도는 강할 것이다.

<표4-12> 교환자원총량과 중첩성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t	p
교환자원 총량	동창회(N=100)	0	50	11.84	9.15	0.098	0.922
	시민단체(N=100)	0	39	11.72	8.05		
교환자원 중첩성	동창회(N=100)	0	6	1.29	1.00	-0.214	0.831
	시민단체(N=100)	0	3.9	1.32	0.75		

주: 교환자원총량은 응답자와 연결된 개인들에 해당하는 정보, 재화, 위로, 용역, 위세, 평판의 주고 받은 정도를 모두 합산하였고, 교환자원의 중첩성은 교환자원총량에 연결된 개인의 수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교환자원총량을 연결정도로 나눈 교환자원의 중첩성의 평균은 동창회와 시민단체가 각각 1.29, 1.32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환자원의 종류와 별개로 연결망에서 실제로 오고가는 교환의 양이 많을수록 즉 교환자원의 중첩성이 강할수록 강한 유대를 가진다고 설명되는데, 두 집단은 모두 교환자원의 중첩성 최대치 7개 중 두개에 못 미치는 단일한 종류의 교환자원만 실질적으로 오가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교환자원의 중첩성’을 기준으로 모두 ‘약한 유대’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연결망의 측정과 그에 따른 유대의 성격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4-13> 연결망 측정

		연결망				
		연결망 밀도	관계의 빈도	관계의 지속성	관계의 중복성	교환자원 총량
평균	동창회 (N=100)	0.85	83.51	30.53	1.34	11.84
	시민단체 (N=100)	0.81	109.21	5.48	1.61	11.72
	t	1.430	-5.313	30.181	-4.183	-0.214
	p	0.154	0.000	0.000	0.000	0.831
표준 편차	동창회 (N=100)	0.19	31.31	6.47	0.41	9.15
	시민단체 (N=100)	0.20	36.88	5.19	0.48	8.05
최소값	동창회 (N=100)	0.4	11	1	1	0
	시민단체 (N=100)	0.33	0	1	1	0
최대값	동창회 (N=100)	1	145	40	2.8	50
	시민단체 (N=100)	1	180	31.2	3.4	39

<표4-14> 연결망의 성격(강한/약한 유대)

	연결망 밀도	관계의 빈도	관계의 지속성	관계의 중복성	교환자원 총량
동창회	<b>강한</b> 유대	<b>약한</b> 유대	<b>강한</b> 유대	<b>약한</b> 유대	<b>약한</b> 유대
시민단체	<b>강한</b> 유대	<b>강한</b> 유대	<b>약한</b> 유대	<b>강한</b> 유대	<b>약한</b> 유대

주: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측정값이 큰 경우를 강한 유대로, 측정값이 작은 경우는 약한 유대로 구분하였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는 측정시 기대되는 최대값을 고려하여 강한/약한 유대를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관계의 지속성의 평균이 각각 30.53, 5.4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진다면, 평균값이 높은 동창회가 강한 유대를, 평균값이 낮은 시민단체가 낮은 유대를 갖는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연결망 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연결망 밀도의 기대되는 최대값 1을 고려하면 0.85, 0.81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두 집단 모두 '강한 유대'를 갖는것으로 분석하였다.

연결망의 성격(강한/약한 유대)을 정리하면, 동창회의 경우 일단 형성된 관계

에서 사람들 사이에 알고 지내는 정도가 높고 그 관계맺음의 기간이 지속적인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상호작용하는 관계의 빈도와 교환자원의 총량은 비교적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동창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단체에 동시에 소속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과거에 동일한 추억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동창회일지라도 현실적으로 그 관계가 여러가지 여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동창회는 관계맺음에서 서로 비교적 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 가정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강한 유대만큼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연결망의 강도는 작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민단체는 일단 형성된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높아 사람들 사이에 알고 지내는 정도가 높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동시에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에서 실제로 주고 받는 교환은 적으며 비교적 그 관계도 지속성이지 않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것은 시민단체 회원들의 모임이 주기적·정기적일지라도 시민단체 회원들의 모임의 활동기간이 비교적 지속적이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관계가 유지·지속되는 측면에서는 약한 유대를 가지지만, 시민단체에 소속되거나 관계가 형성·축적되는 시점에서는 비교적 강한 유대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연고집단의 친밀한 구성원 사이에는 내적 결속이 강한 유대와 동시에 약한 유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확장가능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1>과 ‘서구식 자발적 결사체의 친밀한 구성원 사이에는 약한 유대와 내적 결속이 강한 유대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방성만을 갖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가설2>가 경험적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는 유대의 성격이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오히려 두 집단이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를 동시에 가져 폐쇄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사실은 두 집단이 경험적 현실에서 이념형적 예측과 같이 대립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신뢰와 호혜성: 도구적/완성적 동기

### (1) 신뢰

연결망과 더불어 신뢰 역시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특히 신뢰는 호혜성과 더불어 집단이 완성적/도구적 동기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가 어긋나거나 깨지는 상황을 ‘물질적 기대’, ‘비물질적 기대’, ‘신뢰회복방법’라는 세가지 분석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 신뢰를 ‘불신’, ‘구성적 기대’, ‘배경적 기대’로 유형화하였다.

물질적 기대는 “상당한 금액(예를 들면 3달치 생활비 정도)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 ‘법적인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낸다’에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기다린다’까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비물질적 기대’는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부터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는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반면 ‘신뢰회복방법’은 “위의 상황과 같이 상대방이 당신의 기대와는 다른 처신을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물어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해본다’, ‘그 사람과 나를 모두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 알아본다’, ‘기존에 있는 법이나 규칙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를 1, 2, 3의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하지만 신뢰의 유형과 정도 구분의 편의를 위해 본래의 척도(1에서 5)를 -2에서 2까지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신뢰회복방법의 경우 신뢰의 유형을 다른 두가지 분석적 차원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1을 2로, 2를 0으로, 3을 -2로 변환하였다. -2점에 가까울수록 ‘불신’, 0점에 가까울수록 ‘구성적 기대’, 2점에 가까울수록 ‘배경적 기대’를 가지므로 불신-구성적 기대-배경적 기대로 갈수록 신뢰 또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통합된 신뢰’란 이렇게 구성된 세가지 차원의 신뢰를 합산하여 재구성한 개념이다. <표4-15>는 신뢰의 측정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4-15> 신뢰의 측정

척도&신뢰유형		-2	-1	0	1	2	평균	t	p
유형기준		불신		구성적 기대		배경적 기대			
물질적 기대	동창회 (N=100)	0	0	2	32	<b>66</b>	7.49	5.666	0.000
	시민단체 (N=100)	0	14	19	28	<b>38</b>	4.21		
비물질적 기대	동창회 (N=100)	1	8	<b>48</b>	24	19	2.47	0.034	0.973
	시민단체 (N=100)	1	9	<b>40</b>	29	19	2.45		
신뢰회복 방법	동창회 (N=100)	0	1	12	18	<b>69</b>	7.20	5.312	0.000
	시민단체 (N=100)	4	6	31	22	<b>37</b>	3.72		
통합된 신뢰	동창회 (N=100)	0	0	0	<b>84</b>	16	17.16	5.119	0.000
	시민단체 (N=100)	0	13	6	<b>71</b>	8	10.38		

“상당한 금액의 돈을 벌리고도 갚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즉 ‘물질적 기대’를 기준으로 한 신뢰에서 동창회와 시민단체 모두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기다린다”의 경우가 가장 많아 배경적 기대를 보이면서 신뢰의 수준 또한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신뢰 유형은 보다 다양했으며 평균도 동창회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sup>59)</sup> 반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경우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즉 ‘비물질적 기대’를 기준으로 한 신뢰의 경우 두 집단 모두 반반이

59) 실제로 ‘물질적 기대’를 기준으로 한 신뢰의 평균비교 결과,  $t=5.666$ ,  $p=0.000$ 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평균 차이와 별개로 두 집단 모두 배경적 기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구성적 기대를 보였으며 그 분포도 비슷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들이 물질적 기대보다는 비물질적인 기대가 깨졌을 경우, 즉 상당히 많은 돈을 벌리고도 갚지 않은 경우보다는 자신을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경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동창회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모두 비물질적 신뢰를 물질적 신뢰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물질적·도구적인 요소보다 명예와 평판과 같은 비물질적·정서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기대에 어긋나는 처신을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즉 ‘신뢰회복방법’을 기준으로 한 신뢰에서 동창회와 시민단체 모두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것은 두 집단 모두 회원들 간의 신뢰는 제도나 제3의 수단이 아닌 대면접촉에 의해 축적·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형성된 신뢰의 경우 쉽게 깨지거나 사라지기보다는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조율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경우 동창회보다 그 사람과 나를 모두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 통해서 왜 그러는지 알아본다거나 기존에 있는 법이나 규칙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경우가 많아 신뢰의 유형이 다양하였고 신뢰의 평균 역시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sup>60)</sup>

이러한 세가지 차원의 신뢰를 합산한 ‘통합된 신뢰’에서 동창회와 시민단체 모두 구성적 기대 및 배경적 기대의 중간단계에 해당하여 비교적 풍부한 신뢰를 보였다. 하지만 동창회의 경우 두가지 유형의 신뢰에만 해당하였고 시민단체는 불신을 제외한 네가지 유형의 신뢰를 보여주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sup>61)</sup> 그러나 두 집단 간의 신뢰의 정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은 신뢰의 유

---

60) 실제로 ‘신뢰회복방법’을 기준으로 한 신뢰의 평균 비교 결과,  $t=5.312$ ,  $p=0.000$ 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평균 차이와는 별개로 두 집단 모두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1) 실제로 ‘통합된 신뢰’의 평균 비교 결과,  $t=5.119$ ,  $p=0.000$ 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평균 차이와는 별개로 두 집단 모두 전체적으로 구성적 기대 및 배

형과 정도로 미루어 볼 때 비교적 풍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동창회에서 신뢰가 풍부하다는 것은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람들 사이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과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나이가 들수록 가장 믿을 만한 친구를 찾게 되거든요..친구들이 나이가 들수록 결속력이 필요하거든요..음으로 양으로.....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우리 정도 나이면 인생의 절반을 살았죠..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중심점이 필요하지 않을까...친구라는 이름으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동창회가 아닌가 생각해요....동창회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동창회 하나 때문에 힘이 되는...실질적으로 사회 생활하다보면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창들끼리 도움을 주고받고 그러죠.....(중략)... 친구라는 게 같은 이웃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동창이라든가...사실 그거 말고 친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또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게 쉽지 않을 거고, 사권다고 하더라도 진심 되게 마음을 주고 받지는 않게 되죠....동창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신뢰 관계가 생기는 거고 그 친구가 동창사이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기만하는 행위를 할 수 없죠...그렇게 신뢰가 생기는거죠..동창들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중략)...동창회가 뭐 대단한 거라기 보다는 제가 봤을 때 친구들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없어져버리면 안타깝죠....(중략)...일단 동창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구, 가장 순수한 시절에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가 묻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서, 아까도 말했듯이 신뢰가 쌓이고..부담없는..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일단 목적이 있어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죠..목적이 개입되어서 만나게 되었고.. 그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을 동창처럼 만나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죠..취미 모임 등산 바둑 같은 것을 할 때 사회 생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중앙65교우회 임원 최씨)

동창회원들은 과거의 추억과 경험을 공유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특별한 조건을 전제하지 않는 이러한 신뢰는 다른 관계에서의 신뢰보다 더 풍부한 것처럼 보인다.

---

정적 기대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신뢰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호혜성

연결망(network), 신뢰(trust)와 더불어 호혜성 역시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특히 사회자본의 기존 논의들이 호혜성을 소홀히 다루었다는 최종렬(2004)의 주장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호혜성을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세가지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특히 호혜성은 신뢰와 더불어 집단이 완성적/도구적 동기를 지니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해관계의 방향성’,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 ‘예상된 보답의 등가성’이라는 세가지 분석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 ‘부정적 호혜성’, ‘균형잡힌 호혜성’, ‘일반화된 호혜성’으로 호혜성을 유형화하였다.

‘이해관계의 방향성’은 “평소 누구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를 물어 ‘전적으로 나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까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의 경우 “상대방의 가족을 모두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을 경우, 그것에 대한 보답은 어느 정도나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물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에서 ‘보답이 아무리 늦어져도 상관없다’까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예상된 보답의 등가성’은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보답의 정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물어 ‘내가 대접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야 한다’에서 ‘내가 대접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까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하지만 호혜성의 유형과 정도 구분의 편의를 위해 본래의 척도(1에서 5까지)를 -2에서 2까지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2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호혜성’, 0점에 가까울수록 ‘균형잡힌 호혜성’, 2점에 가까울수록 ‘일반화된 호혜성’을 가지므로 부정적 호혜성-균형잡힌 호혜성-일반화된 호혜성으로 갈수록 호혜성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통합된 호혜성’이란 이렇게 구성된 세가지 차원의 호혜성을 합산하여 재구성한 개념이다. <표4-16>은 호혜성의 측정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4-16> 호혜성의 측정

척도&호혜성유형 유형기준		-2	-1	0	1	2	평균	t	p
		부정적 호혜성		균형잡힌 호혜성		일반화된 호혜성			
이해관계 방향성	동창회 (N=100)	0	16	<b>53</b>	30	1	0.37	-1.295	0.197
	시민단체 (N=100)	3	21	<b>38</b>	<b>38</b>	0	0.82		
보답의 즉각성	동창회 (N=100)	1	16	18	20	<b>45</b>	4.41	2.916	0.004
	시민단체 (N=100)	10	19	23	20	<b>28</b>	2.04		
보답의 등가성	동창회 (N=100)	0	2	34	18	<b>46</b>	5.02	2.960	0.003
	시민단체 (N=100)	4	12	<b>37</b>	16	31	2.97		
통합된 호혜성	동창회 (N=100)	0	15	9	<b>75</b>	1	9.80	2.757	0.006
	시민단체 (N=100)	1	26	14	<b>59</b>	0	5.83		

“평소 누구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 즉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한 호혜성에서 동창회와 시민단체가 모두 ‘반반’의 경우가 많아 균형잡힌 호혜성의 모습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경우 ‘대체로 그 사람의 입장’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반반’이라고 대답한 사람과 동일한 비율을 차지해 균형잡힌 호혜성 및 일반화된 호혜성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경우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평균에 있어서 동창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창회가 이해관계의 방향성이 낮다는 즉 평소 상대방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구 실제로 한번 모일 때 기대했던 인원의 절반도 안 모인다..실망스런 부분이죠...동창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못하고 있죠..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이익집단으로서의 역할만 하지 사회봉사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우리 동창회에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데 귀찮게..이렇게 생각하죠.. 기금 같은 거 모으고 이럴 때도 정반대예요..이건 우리 동창회의 문제만이 아닌 거 같구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거 같아요....기득권층이 자기 스스로 현재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지 않고 대신에 남한테 피해 받고 싶어 하지도 않고 기여하고 싶지도 않고...책임이 없죠..제가 받을 때는 쟈 실망스러운 부분이죠..우리 동창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죠...

사실 동창이라고 해서 비즈니스를 같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니예요..동창들끼리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편의를 도모하는 거지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건 아니예요..왜냐하면 비즈니스를 같이 하면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친한 친구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비즈니스를 같이 하다보면 친해지기도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죠..아무리 형제 같은 사이라도 해도 쉽지 않잖습니까...아시다시피 친구들끼리 비즈니스 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경우는 별로 없잖습니까..동업이라는 건 어렵죠,, 권력을 나누기 어렵듯이...동창들끼리도 마찬가지요..가끔씩 동창들끼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게 끝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마지막에는 약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중앙65교우회 임원 최씨)

동창회에서 기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과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을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동창회에 있어서도 이해관계는 관계의 성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관계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동창회는 다른 종류의 인간관계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반면 “호의에 대한 보답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즉 ‘보답의 즉각성’에서 동창회와 시민단체 모두 ‘보답이 아무리 늦어져도 상관없다’의 비중이 가장 많아 일반화된 호혜성을 보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동창회보다 각각의 유형에 퍼져있는 정도가 다양하여 평균이 동창회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sup>62)</sup> 반면 “보답의 정도 또는 크기는 어떠한가” 즉 ‘보답의 등가성’을 기준으로 동창회는 ‘내가 대접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가 가장

62) 실제로 ‘보답의 즉각성’을 기준으로 한 호혜성의 평균 비교 결과,  $t=2.916$ ,  $p=0.004$ 로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 전체적으로 일반화된 호혜성의 유형을 보여 호혜성이 풍부하다고 판단된다.

큰 비중을 차지해 일반화된 호혜성을, 시민단체는 ‘반반’이 가장 많아 균형잡힌 호혜성을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호혜성의 유형을 신뢰의 유형과 비교하면, 동창회와 시민단체에 해당하는 각 유형이 호혜성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고, 평균 역시 신뢰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세가지 분석적 차원의 호혜성을 합산한 ‘통합된 호혜성’에서 동창회와 시민단체는 모두 균형잡힌 호혜성 및 일반화된 호혜성의 중간단계에 해당하여 호혜성이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동창회의 경우 부정적 호혜성이 없는 반면, 시민단체는 일반화된 호혜성이 나타나지 않고 퍼져있는 정도가 더 다양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sup>63)</sup> 그러나 두 집단의 평균 차이와 별개로 호혜성의 유형과 정도를 미루어 볼 때 두 집단 모두 호혜성이 풍부하다고 판단된다.

### (3)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

개별적으로 측정된 신뢰와 호혜성을 통합한 것은 집단의 신뢰와 호혜성을 종합해서 도구적/완성적 동기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이다. 신뢰는 호혜성이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호혜성이 없는 대상에 대해 결코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렬, 2004), 호혜성 없는 신뢰 역시 완성적 동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은 집단의 도구적/완성적 동기를 구분하는데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앞서 측정된 ‘통합된 신뢰’와 ‘통합된 호혜성’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통합된 신뢰와 호혜성 척도의 유형은 합산된 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신뢰의 유형 중 불신은 호혜성의 유형 중 부정적 호혜성과, 구성적 기대는 균형잡힌 호혜성과, 배경적 기대는 일반화된 호혜성과 짝을 맺기 때문에, 불신(-2)과 부정적 호혜성(-2)에서 배경적 기대(+2)와 일

---

63) 실제로 ‘통합된 호혜성’ 평균 비교 결과,  $t=2.757$ ,  $p=0.006$ 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평균 차이와 별개로 두 집단 모두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호혜성 및 일반화된 호혜성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호혜성을 갖는다.



반화된 호혜성(+2)으로 갈수록 그 성격이 완성적이다. 또한 -2는 불신과 부정적 호혜성을, 0은 구성적 기대와 균형잡힌 호혜성을, 2는 배경적 기대와 일반화된 호혜성을 가리킨다. <표4-17>은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신뢰와 호혜성을, <표4-18>은 신뢰와 호혜성을 통합하는 과정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4-17>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신뢰와 호혜성

		신뢰				호혜성				신뢰 호혜성 통합
		물질적 기대	비물질적 기대	신뢰 회복 방법	통합된 신뢰	이해 관계 방향성	보답의 즉각성	보답의 등가성	통합된 호혜성	
평균	동창회 (N=100)	7.49	2.47	7.20	17.16	0.37	4.41	5.02	9.8	26.96
	시민 단체 (N=100)	4.21	2.45	3.72	10.38	0.82	2.04	2.97	5.83	16.21
	t	5.666	0.034	5.312	5.119	-1.295	2.916	2.960	2.757	4.723
	p	0.000	0.973	0.000	0.000	0.197	0.004	0.003	0.006	0.000
표준 편차	동창회 (N=100)	3.15	4.21	3.81	8.06	2.17	5.53	4.62	9.63	14.71
	시민 단체 (N=100)	4.86	4.13	5.33	10.51	2.72	5.95	5.16	10.71	17.36
최소값	동창회 (N=100)	0	-6	-2	2	-6	-10	-5	-11	-5
	시민 단체 (N=100)	-7	-10	-10	-15	-6	-10	-10	-19	-21
최대값	동창회 (N=100)	10	10	10	30	6	10	10	25	52
	시민 단체 (N=100)	10	10	10	30	7	10	10	26	55

<표4-18>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

지표		척도					평균	t	p
		-2	-1	0	1	2			
통합된 신뢰	동창회 (N=100)	0	0	0	<b>84</b>	16	17.16	5.119	0.000
	시민단체 (N=100)	0	13	6	<b>71</b>	8	10.38		
통합된 호혜성	동창회 (N=100)	0	15	9	<b>75</b>	1	9.80	2.757	0.006
	시민단체 (N=100)	1	26	14	<b>59</b>	0	5.83		
신뢰와 호혜성 통합	동창회 (N=100)	0	1	1	<b>98</b>	0	26.96	4.723	0.000
	시민단체 (N=100)	0	16	2	<b>80</b>	0	16.21		

동창회와 시민단체 모두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에서 구성적 기대 및 균형잡힌 호혜성과 배경적 기대 및 일반화된 호혜성의 중간단계에 해당하였다. 이것은 두 집단 모두 신뢰와 호혜성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동창회가 시민단체보다 더 완성적 동기에 근거하고 있고, 역으로 시민단체는 동창회보다 더 도구적 동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집단은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하여 도구적 동기보다는 완성적 동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도의 차이로 신뢰와 호혜성의 근본적인 유형의 차이는 아니다. 시민단체 역시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정서적 공동체라는 사실은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근자 사이에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상태가 별로 안좋기 때문에 특히 애가 아플 경우가 좀 있더라구요..그러면 수술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니까 심시일반 해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어린 데 특이한 질병이라 그러더라구요...상근자들이 심시일반해서 도와주고 그랬어요..어제 같

은 경우도 ○○님이 2년 동안 나가있는데, 저희가 얼마 안되는데 여비라고 쓰시라고 좀 걸어드리고....정말 좋은 활동가는 공고라도 해야 하는데 여기 있다보면 저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그런데도 장학 캠페인 같은 것을 해요..월급서 만원씩 떼서...(환경운동연합 상근자 박씨)

자주 모이는 사람은 자주 모여서 뭉치고, 같은 뜻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처음부터 저조한 사람들은 얼굴을 내밀 기회가 별로 없다보니까 기회가 없는 거 같구..자주 모이는 사람들은 일적인 일 외에도 사적인 일로도 자주 만나는 거 같아요..주말에 모여서 영화를 본다던지 모여서 놀던지..친한 사람들끼리는 경조사나 집안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와주고 그래요..다른 회원들의 경우도 보고 들은 경우도 있어요...생일이나 그런 것도 챙기고....한명이 이사를 갔는데 도와드리고 짐 나르고..영화를 본적도 있고, 운동이나 다과회 같은 형식으로 모임을 가진 적도 있구...(중략)...물론 동창회보다는 빈번하고 학과 모임보다는 덜하겠지만..왜냐하면 학생이 많다보니까 학과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자원봉사 모임치고는 자주 모이는 거 같아요.. 또한 동창회원들보다 친한 느낌이 있어요..동창은 아무래도 같은 테두리 안에서 지낸 것이구..이 모임은 물론 처음에 가입한 이유는 다들 다르겠지만 일적인 유사성이 많으니까..공유점이 많죠...여기 일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좋은 뜻, 환경 쪽이니까 같은 지붕 아래 있는 거 같아요...그 사람들이랑...(환경운동연합 일반회원 이씨)

인터뷰 내용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어렵거나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상부상조하며 의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을 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인간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민단체 회원들 역시 동창회와 다른 구성원리를 지닌다고 할지라도 일단 형성된 관계에서는 도구적이기 보다는 완성적 동기에 근거하여 관계맺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의 신뢰와 호혜성(도구적/완성적 동기)을 정리하면,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신뢰와 호혜성은 분석적 차원에 따라 유형과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통합된 신뢰’, ‘통합된 호혜성’,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볼 때, 모두 신뢰와 호혜성이 비교적 풍부한 완성적 동기에 기초한 정서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는 도구적 성격을 지니지만 동시에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완성적 공동체

일 것'이라는 <가설4>가 한국사회의 경험적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고집단은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완성적 공동체인 동시에 도구적 공동체일 것'이라는 <가설3>은 경험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동창회가 이해관계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균형잡힌 호혜성을, 비물질적 기대를 기준으로 구성적 기대를 가지면서 시민단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은 <가설3>을 검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수준에서 동창회의 신뢰와 호혜성의 유형과 정도는 시민단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즉 동창회의 경우 신뢰와 호혜성의 유형에서 부분적으로 도구적 성격을 띠지만, 전체적으로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완성적 동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가설3>은 기각된다고 할 수 있다.

### 3. 소결

먼저 연결망의 성격(강한/약한 유대)을 정리하면, 두 집단 모두 연결망 밀도를 기준으로 강한 유대를, 교환자원총량을 기준으로 약한 유대를 띠었다. 반면 동창회는 관계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강한 유대를, 관계의 빈도와 관계의 중복성을 기준으로 약한 유대를 보이지만, 시민단체는 관계의 빈도와 관계의 중복성을 기준으로 강한 유대를, 관계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약한 유대를 보인다. 동창회와 시민단체는 유대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존재하는 양상은 다르지만 모두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연고집단의 친밀한 구성원 사이에는 강한 유대와 동시에 약한 유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확장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설1>과 서구식 자발적 결사체의 친밀한 구성원 사이에는 약한 유대와 내적 결속이 강한 유대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방성만을 갖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가설2>가 경험적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두 집단은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를 동시에 지닌다는 점에서 폐쇄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신뢰와 호혜성은 분석적 차원에 따라 유형과 정도

의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통합된 신뢰’, ‘통합된 호혜성’,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유형과 정도는 구성적 기대와 균형잡힌 호혜성 및 배경적 기대와 일반화된 호혜성을 보여 두 집단 모두 신뢰와 호혜성이 비교적 풍부한 완성적 동기에 기초한 정서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는 도구적 성격을 지니지만 동시에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완성적 공동체라는 <가설4>를 경험적으로 증명해준다. 하지만 ‘연고집단은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완성적 공동체인 동시에 도구적 공동체일 것’이라는 <가설3>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동창회가 이해관계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균형잡힌 호혜성을, 비물질적 기대를 기준으로 구성적 기대를 보이면서 시민단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은 <가설3>을 검증하는 듯 하지만, 전체적인 수준에서 동창회의 신뢰와 호혜성의 유형과 정도는 오히려 완성적 동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분석된 시민단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동창회의 신뢰와 호혜성은 부분적으로 도구적 성격을 갖지만, 이것이 전체 수준에서의 낮은 신뢰와 호혜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 <가설3>을 지지하기에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제5장 개인/집단의 속성과 사회자본

앞장에서는 연결망의 성격, 신뢰와 호혜성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각 집단의 폐쇄성/개방성(강한/약한 유대), 도구적/완성적 동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사회자본의 형성되고 축적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다양한 속성, 즉 인구/사회/경제적 속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장에서는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속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경우 개인의 속성을 나타내는 특정한 항목에 응답자가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개인의 속성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소라 한다면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사회자본이 집단별 특성에 기인한다는 본 논문의 목적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각 집단별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속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제3장 ‘자료의 측정 및 분석의 틀’의 표3-1 참고). 중앙65교우회의 경우 응답자 모두 중앙고등학교 제65회 졸업생(1974년 졸업)이기 때문에 성별은 남성, 연령은 50대로 모두 동일하다. 그 밖에도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생활수준, 고향, 선호정당에서 비교적 동질적인 구성을 보여주는데, 그 분포는 대학원, 전문/자유직, 피고용자, 중의 상층, 수도권, 한나라당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은 동창회보다 그 분포가 다양하지만 성별,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생활수준, 고향, 선호정당에서 한 가지 항목에 응답자가 집중되어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여성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는 남성이 대다수였으며, 대학교, 자영업, 중의 하층, 수도권, 선호정당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령과 직업의 경우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자본을 ‘연결망’ 총량, ‘신뢰’ 총량, ‘호혜성’ 총량이라는 세 축으로 구분한 후 ‘사회자본’ 총량으로 통합하였다. ‘연결망’ 총량은 강한/약한 유대의 기준이 되었던 연결망 밀도, 관계의 빈도, 관계의 지속성, 관계의 중복성, 교환자원총량을 각각 표준화하여 구한 총합을 다시 표준화하여 구성하였다. 각각의 항목을 표준화<sup>64</sup>시킨 이유는 각 항목의 척도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 차이가 컸기 때문에 동일한 차원에서 합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관계의 중복성의 경우 최소 1에서 최대 8까지의 차이 밖에 발생하지 않지만 관계의 빈도, 관계의 지속성, 교환자원총량과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훨씬 크다. 예를 들어 연결망 밀도는 최소 0에서 최대 1까지의 값을 가지지만 관계의 지속성의 경우 최소 1에서 최대 53까지의 값을 지녀 동시에 합산하는 것은 특정한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부적절하기 때문이다.<sup>65)</sup> 따라서 각 항목을 표준화의 과정을 거쳐 동일한 범주에 재배치시킨 후에 그것을 합산한 후 신뢰와 호혜성과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다시 표준화 과정을 거쳤다.

신뢰와 호혜성은 분석적 차원이 동일하였을 뿐만 아니라(각각 세가지 차원) 설문지 문항의 척도를 변환(recode)하여 그 값이 유형에 맞추어 상쇄되는 특성(척도가 -2에서 2까지 구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가지 차원을 합산하였다. 하지만 각각 '연결망' 총량과 비교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합산한 신뢰와 호혜성을 표준화시켰다.

'사회자본' 총량은 이렇게 구성된 세가지 구성요소인 '연결망' 총량, '신뢰' 총량, '호혜성' 총량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왜냐하면 연결망, 신뢰, 호혜성 모두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적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동일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자본' 총량은 사회자본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연결망, 신뢰, 호혜성이 동일한 차원에서 합산된 개념으로 사회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1/3로 같다.

또한 각각의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화하는 방식에서는 각 집단 고유의 개인적 속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표준화의 특성상 각 케이스의 합계가 0이 되므로 그 값을 비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집단의 사회자본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앞에서 설명한 방식과 동일하게 표준화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이 경우 두

64)  $Z=(X-m)/s$  (m은 평균, s는 표준편차)의 과정을 거쳐 표준화된다. 표준화는 평균의 차이를 편차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각 케이스의 합은 0이 된다.

65)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연결망 밀도와 관계의 지속성은 연결망의 성격을 결정하는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산한다면 관계의 지속성의 범위가 연결망 밀도의 범위보다 훨씬 커서 가중치가 부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집단의 사회자본을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더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의 속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분석할 수 있다. 각각의 총량은 동일한 범위로 재배치되어 그 수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서로 비교할 수 있지만 표준화의 기준이 두 집단의 평균이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연결망의 성격과 신뢰, 호혜성의 유형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동창회 ‘신뢰’ 총량이 양의 값으로 시민단체 ‘신뢰’ 총량인 음의 값보다 높게 나왔다면 동창회의 신뢰가 시민단체의 신뢰보다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동창회가 완성적 동기에 근거하고 시민단체가 도구적 동기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 없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민단체는 동창회보다 신뢰 평균이 낮아서 음의 값을 가진 것이 신뢰의 유형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up>66)</sup>

또한 두 집단의 ‘연결망’ 총량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표준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두 집단의 평균이 표준화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동창회 관계의 지속성의 ‘동일한 30년’이라는 문제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두 집단 관계의 지속성의 평균이 동창회의 30년이라는 값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창회의 표준화된 관계의 지속성은 거의 양의 값을 가진 반면, 시민단체 표준화된 관계의 지속성은 거의 음의 값을 가지면서 그 절대값도 다른 항목에 비하여 컸다. 따라서 그것을 합산하여 구한 두 집단 ‘연결망’ 총량의 경우 연결망의 성격(강한/약한 유대)이 고르게 반영되지 않아 그 수치로 유대의 성격을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연결망’ 총량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하지만 ‘연결망’ 총량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한 항목에 가중치가 부여되는 현상은 피할 수 있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속성이 ‘연결망’ 총량, ‘신뢰’ 총량, ‘호혜성’ 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이러한 분석을 위해 두 집단에 공통으로 투입될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속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생활수준, 교향, 선호정당이다. 또한 두 집단의 사회자본 비교에서는 집단변수가 투입되었다.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하기 위해 교육수준과 한달수입의 경우 비연속형 척도였으나 교육수준을 교육년수<sup>67)</sup>로, 한달수입은 각각의 척도 중앙값으로

66) 신뢰, 호혜성의 유형은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변환<sup>68)</sup>하여 연속형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나머지 비연속형 변수는 회귀분석을 위해 사례수가 가능한 적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만들었다.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연속형 척도라 판단되는 성별(남자), 직업(전문/자유직), 직업(사무/관리직), 직업(판매/서비스직), 직업(학생), 직업(주부), 고향(수도권), 고향(충청권), 고향(호남권), 고향(영남권), 지지정당(열린우리당), 지지정당(한나라당), 지지정당(민주노동당), 지지정당(없다/모름), 집단(시민단체)의 더미변수가 만들어졌다.<sup>69)</sup> 각 집단의 사회자본 분석에는 그 집단에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중심으로 투입시켰으며, 두 집단의 사회자본 비교 분석은 공통의 변수를 투입시켰고 집단더미(시민단체)를 추가하였다.

## 1. 동창회의 개인적 속성과 사회자본

동창회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투입된 변수는 동창회의 응답자 특성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교육년수, 직업(전문/자유직), 직업(일반사무/관리직), 한달수입, 고향(수도권), 고향(충청권), 고향(호남권), 고향(영남권), 지지정당(열린우리당), 지지정당(한나라당), 지지정당(없다/모름)이다. 동창회에서 응답자 모두는 50대 남성이므로 성별과 연령은 제외하였다. 다음은 동창회의 ‘연결망’, ‘신뢰’, ‘호혜성’, ‘사회자본’ 총량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모델이다.

$$Y_1 = \beta_{1(1)}X_1 + \beta_{2(1)}X_2 + \beta_{3(1)}X_3 + \beta_{4(1)}X_4 + \beta_{5(1)}X_5 + \beta_{6(1)}X_6 + \beta_{7(1)}X_7 + \beta_{8(1)}X_8 + \beta_{9(1)}X_9 \\ + \beta_{10(1)}X_{10} + \beta_{11(1)}X_{11} + \beta_{12(1)}X_{12} + \varepsilon_1$$

67) 교육수준을 교육년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를 6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각 3년, 대학교를 4년, 대학원이상을 4년으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졸업이하는 6, 중학교 졸업은 9, 고등학교 졸업은 12, 대학교 졸업은 16, 대학원 이상은 20으로 환산되었다.

68) 예를 들어 100-150만원은 125만원으로, 150-200만원은 175만원으로 변환하였다.

69) 직업 더미변수는 학생과 주부의 사회자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생산/기술직을 중심으로, 고향 더미변수는 강원, 제주, 해외, 이북 등의 기타를 중심으로, 지지정당은 자민련 등의 기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Y_2 = \beta_{1(2)}X_1 + \beta_{2(2)}X_2 + \beta_{3(2)}X_3 + \beta_{4(2)}X_4 + \beta_{5(2)}X_5 + \beta_{6(2)}X_6 + \beta_{7(2)}X_7 + \beta_{8(2)}X_8 + \beta_{9(2)}X_9 \\ + \beta_{10(2)}X_{10} + \beta_{11(2)}X_{11} + \beta_{12(2)}X_{12} + \varepsilon_2$$

$$Y_3 = \beta_{1(3)}X_1 + \beta_{2(3)}X_2 + \beta_{3(3)}X_3 + \beta_{4(3)}X_4 + \beta_{5(3)}X_5 + \beta_{6(3)}X_6 + \beta_{7(3)}X_7 + \beta_{8(3)}X_8 + \beta_{9(3)}X_9 \\ + \beta_{10(3)}X_{10} + \beta_{11(3)}X_{11} + \beta_{12(3)}X_{12} + \varepsilon_3$$

$$Y_4 = \beta_{1(4)}X_1 + \beta_{2(4)}X_2 + \beta_{3(4)}X_3 + \beta_{4(4)}X_4 + \beta_{5(4)}X_5 + \beta_{6(4)}X_6 + \beta_{7(4)}X_7 + \beta_{8(4)}X_8 + \beta_{9(4)}X_9 \\ + \beta_{10(4)}X_{10} + \beta_{11(4)}X_{11} + \beta_{12(4)}X_{12} + \varepsilon_4$$

$Y_1$  : 연결망 총량,  $Y_2$  : 신뢰 총량,  $Y_3$  : 호혜성 총량,  $Y_4$  : 사회자본 총량  
 $X_1$  : 교육년수,  $X_2$  : 직업(전문/자유직),  $X_3$  : 직업(사무/관리직),  
 $X_4$  : 직업(판매/서비스직),  $X_5$  : 한달수입,  $X_6$  : 고향(수도권),  
 $X_7$  : 고향(충청권),  $X_8$  : 고향(호남권),  $X_9$  : 고향(영남권),  
 $X_{10}$  : 지지정당(열린우리당),  $X_{11}$  : 지지정당(한나라당),  
 $X_{12}$  : 지지정당(없다/모름),  $\varepsilon_1, \varepsilon_2, \varepsilon_3, \varepsilon_4$  : 오차

<표5-1>은 분석된 동창회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분석결과, ‘연결망’ 총량과 신뢰 총량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속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호혜성의 경우 응답자의 직업(사무/관리직), 직업(판매/서비스직), 고향(수도권), 고향(충청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무/관리직과 판매/서비스직을 가진 응답자는 호혜성이 적은 것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이 고향인 응답자는 호혜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체적인 사회자본의 총량에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사람일수록 사회자본이 풍부하다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회귀모델의 결정계수가 모두 전체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와 개인의 속성에 의한 차이는 아주 미세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회귀분석의 단계별 투입(stepwise) 결과, ‘연결망’, ‘신뢰’, ‘사회자본’ 총량의 모든 변수들이 제거(removed)되었고, ‘호혜성’ 총량에서 직업(사무/관리직)의 경우  $R^2=0.045$ 의 설명력으로 Beta=-0.212, p=0.035이었다. 따라서 실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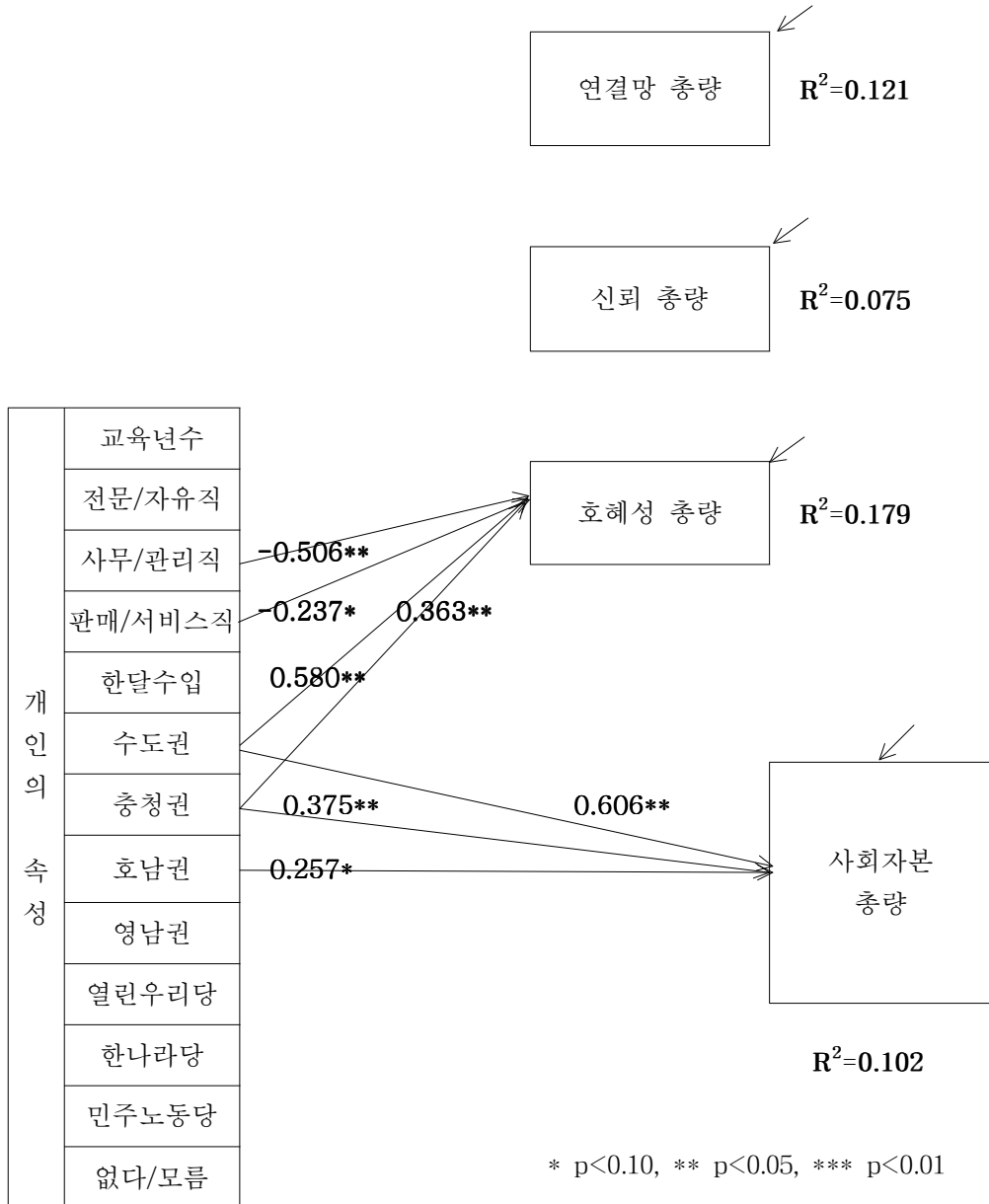
동창회의 개인적 속성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사무/관리직의 응답자가 호혜성이 적은 경우이다. 하지만 동창회에 투입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볼 때, 전체적으로 동창회의 사회자본은 개인적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5-1> 동창회의 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연결망 총량		신뢰 총량		호혜성 총량		사회자본 총량	
	Beta	Sig.	Beta	Sig.	Beta	Sig.	Beta	Sig.
(Constant)		0.103		0.861		0.943		0.460
교육년수	0.180	0.146	-0.085	0.502	-0.094	0.427	0.000	0.998
전문/자유직	-0.152	0.492	0.010	0.963	-0.354	0.101	-0.244	0.278
사무/관리직	0.061	0.766	-0.093	0.656	<b>-0.506</b>	<b>0.012</b>	-0.265	0.200
판매/서비스직	0.101	0.477	0.072	0.619	<b>-0.237</b>	<b>0.085</b>	-0.033	0.820
한달수입	0.009	0.935	-0.026	0.816	0.100	0.342	0.041	0.709
수도권	0.269	0.326	0.387	0.169	<b>0.580</b>	<b>0.030</b>	<b>0.606</b>	<b>0.030</b>
충청권	0.287	0.116	0.114	0.541	<b>0.363</b>	<b>0.041</b>	<b>0.375</b>	<b>0.043</b>
호남권	0.226	0.126	0.152	0.315	0.147	0.302	<b>0.257</b>	<b>0.086</b>
영남권	0.150	0.504	0.213	0.354	0.304	0.162	0.327	0.150
열린우리당	0.055	0.801	-0.104	0.639	0.036	0.864	-0.007	0.976
한나라당	0.180	0.556	-0.234	0.457	-0.080	0.788	-0.066	0.832
없다/모름	-0.057	0.845	-0.205	0.494	-0.015	0.957	-0.136	0.646
	R <sup>2</sup> =0.121 p=0.466		R <sup>2</sup> =0.075 p=0.854		R <sup>2</sup> =0.179 p=0.119		R <sup>2</sup> =0.102 p=0.636	

동창회의 개인적 속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그림은 5-1과 같다.

<그림5-1> 동창회의 개인적 속성과 사회자본  
(유의미한 회귀계수만 표시하였으며, 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의미)



## 2. 시민단체의 개인적 속성과 사회자본

시민단체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투입된 변수는 시민단체의 응답자 특성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성별(남자), 연령, 교육년수, 직업(전문/자유직), 직업(사무/관리직), 직업(판매/서비스직), 직업(학생), 직업(주부), 한달수입, 고향(수도권), 고향(충청권), 고향(호남권), 고향(영남권), 지지정당(열린우리당), 지지정당(한나라당), 지지정당(민주노동당), 지지정당(없다/모름)이다. 다음은 시민단체의 ‘연결망’, ‘신뢰’, ‘호혜성’, ‘사회자본’ 총량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모델이다.

$$\begin{aligned} Y_5 = & \beta_{1(5)}X_1 + \beta_{2(5)}X_2 + \beta_{3(5)}X_3 + \beta_{4(5)}X_4 + \beta_{5(5)}X_5 + \beta_{6(5)}X_6 + \beta_{7(5)}X_7 + \beta_{8(5)}X_8 + \beta_{9(5)}X_9 \\ & + \beta_{10(5)}X_{10} + \beta_{11(5)}X_{11} + \beta_{12(5)}X_{12} + \beta_{13(5)}X_{13} + \beta_{14(5)}X_{14} + \beta_{15(4)}X_{15} + \beta_{16(4)}X_{16} \\ & + \beta_{17(4)}X_{17} + \varepsilon_5 \end{aligned}$$

$$\begin{aligned} Y_6 = & \beta_{1(6)}X_1 + \beta_{2(6)}X_2 + \beta_{3(6)}X_3 + \beta_{4(6)}X_4 + \beta_{5(6)}X_5 + \beta_{6(6)}X_6 + \beta_{7(6)}X_7 + \beta_{8(6)}X_8 + \beta_{9(6)}X_9 \\ & + \beta_{10(6)}X_{10} + \beta_{11(6)}X_{11} + \beta_{12(6)}X_{12} + \beta_{13(6)}X_{13} + \beta_{14(6)}X_{14} + \beta_{15(6)}X_{15} + \beta_{16(6)}X_{16} \\ & + \beta_{17(6)}X_{17} + \varepsilon_6 \end{aligned}$$

$$\begin{aligned} Y_7 = & \beta_{1(7)}X_1 + \beta_{2(7)}X_2 + \beta_{3(7)}X_3 + \beta_{4(7)}X_4 + \beta_{5(7)}X_5 + \beta_{6(7)}X_6 + \beta_{7(7)}X_7 + \beta_{8(7)}X_8 + \beta_{9(7)}X_9 \\ & + \beta_{10(7)}X_{10} + \beta_{11(7)}X_{11} + \beta_{12(7)}X_{12} + \beta_{13(7)}X_{13} + \beta_{14(7)}X_{14} + \beta_{15(7)}X_{15} + \beta_{16(7)}X_{16} \\ & + \beta_{17(7)}X_{17} + \varepsilon_7 \end{aligned}$$

$$\begin{aligned} Y_8 = & \beta_{1(8)}X_1 + \beta_{2(8)}X_2 + \beta_{3(8)}X_3 + \beta_{4(8)}X_4 + \beta_{5(8)}X_5 + \beta_{6(8)}X_6 + \beta_{7(8)}X_7 + \beta_{8(8)}X_8 + \beta_{9(8)}X_9 \\ & + \beta_{10(8)}X_{10} + \beta_{11(8)}X_{11} + \beta_{12(8)}X_{12} + \beta_{13(8)}X_{13} + \beta_{14(8)}X_{14} + \beta_{15(8)}X_{15} + \beta_{16(8)}X_{16} \\ & + \beta_{17(8)}X_{17} + \varepsilon_8 \end{aligned}$$

$Y_5$  : 연결망 총량,  $Y_6$  : 신뢰 총량,  $Y_7$  : 호혜성 총량,  $Y_8$  : 사회자본 총량  
 $X_1$  : 성별(남자),  $X_2$  : 연령,  $X_3$  : 교육년수,  
 $X_4$  : 직업(전문/자유직),  $X_5$  : 직업(사무/관리직),  
 $X_6$  : 직업(판매/서비스),  $X_7$  : 직업(학생),  
 $X_8$  : 직업(주부)  $X_9$  : 한달수입,  $X_{10}$  : 고향(수도권),  
 $X_{11}$  : 고향(충청권),  $X_{12}$  : 고향(호남권),  $X_{13}$  : 고향(영남권),  
 $X_{14}$  : 지지정당(열린우리당),  $X_{15}$  : 지지정당(한나라당),  
 $X_{16}$  : 지지정당(민주노동당),  $X_{17}$  : 지지정당(없다/모름),  
 $\varepsilon_1, \varepsilon_2, \varepsilon_3, \varepsilon_4$  : 오차

<표5-2>는 분석된 시민단체의 회귀모델이다.

<표5-2> 시민단체의 회귀분석

	모델5		모델6		모델7		모델8	
	연결망 총량		신뢰 총량		호혜성 총량		사회자본 총량	
	Beta	Sig.	Beta	Sig.	Beta	Sig.	Beta	Sig.
(Constant)		0.941		0.742		0.340		0.822
남자	-0.159	0.319	-0.014	0.929	-0.158	0.260	-0.159	0.287
연령	0.311	0.164	0.233	0.286	0.059	0.762	0.291	0.165
교육년수	-0.245	0.130	-0.088	0.574	-0.121	0.391	-0.218	0.148
전문/자유직	<b>0.273</b>	<b>0.072</b>	<b>0.348</b>	<b>0.020</b>	0.123	0.353	<b>0.358</b>	<b>0.012</b>
사무/관리직	0.277	0.122	0.246	0.159	0.248	0.114	<b>0.370</b>	<b>0.028</b>
판매/서비스직	-0.027	0.868	0.152	0.328	-0.097	0.487	0.014	0.923
학생	<b>0.387</b>	<b>0.042</b>	<b>0.400</b>	<b>0.032</b>	<b>0.290</b>	<b>0.082</b>	<b>0.519</b>	<b>0.004</b>
주부	0.174	0.309	0.164	0.327	-0.051	0.734	0.139	0.386
한달수입	-0.045	0.730	0.037	0.768	0.074	0.517	0.032	0.794
수도권	-0.167	0.495	-0.120	0.615	-0.352	0.103	-0.306	0.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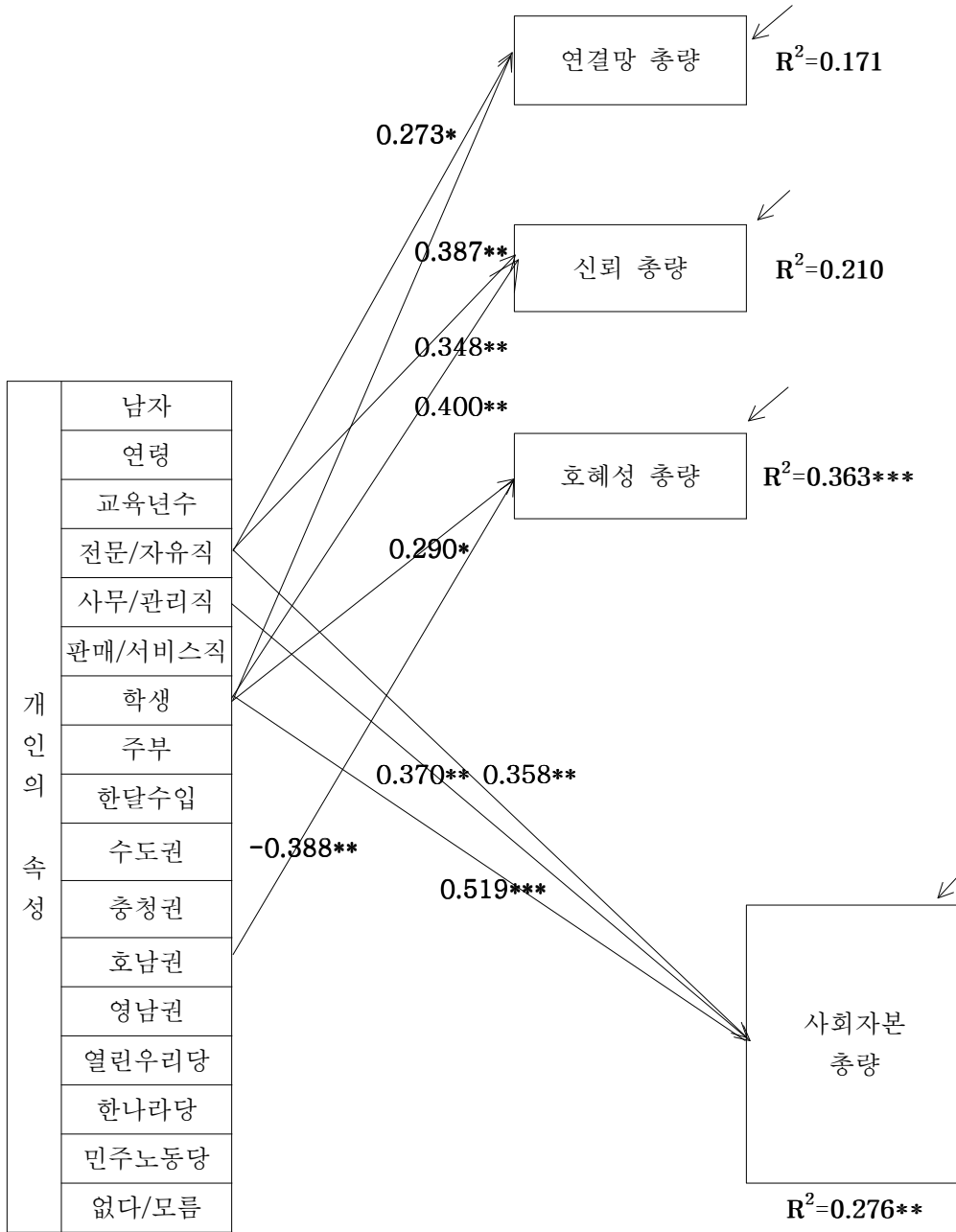
충청권	-0.083	0.642	-0.057	0.742	-0.188	0.229	-0.157	0.344
호남권	-0.057	0.764	-0.070	0.704	<b>-0.388</b>	<b>0.021</b>	-0.246	0.166
영남권	-0.184	0.290	-0.014	0.936	-0.175	0.253	-0.179	0.271
열란우리당	0.100	0.565	-0.157	0.357	-0.245	0.111	-0.145	0.376
한나라당	0.145	0.487	-0.234	0.254	-0.258	0.162	-0.165	0.398
민주노동당	0.031	0.871	0.134	0.467	0.088	0.596	0.122	0.492
없다/모름	0.100	0.664	-0.280	0.215	-0.185	0.360	-0.175	0.416
	R <sup>2</sup> =0.171 p=0.482		R <sup>2</sup> =0.210 p=0.236		R <sup>2</sup> =0.363 p=0.001		R <sup>2</sup> =0.276 p=0.040	

회귀분석 결과, ‘연결망’, ‘신뢰’ 총량의 경우 직업이 전문/자유직과 학생일수록 연결망의 유대가 강하고 신뢰가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경우 모두 회귀모델의 결정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아 그 영향력은 미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호혜성’ 총량의 경우 학생이 호혜성이 많고, 호남권의 사람이 호혜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경우 회귀계수의 결정계수 또한 유의미하여 개인적 속성에 의한 회귀모델이 적합하다고 분석된다. ‘사회자본’ 총량에서도 전문/자유직, 사무/관리직, 학생이 사회자본이 풍부하다고 분석되었으며, 회귀모델의 결정계수 또한 유의미하였다. 두 경우 모두 주어진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기득권일수록 사회자본이 풍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사무/관리직의 경우(20명) 응답자의 다수가 상근자로 지속적·대면적 상호작용으로 사회자본이 더 풍부한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12명)의 경우 역시 비교적 지속적이고 활동적으로 소모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풍부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시민단체의 개인적 속성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호혜성’, ‘사회자본’ 총량의 경우 주로 응답자의 직업과 관련한 경우이며, 다른 개인적 속성은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의 개인적 속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그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5-2> 시민단체의 개인적 속성과 사회자본

(유의미한 회귀계수만 표시하였으며, 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의미)



\* p<0.10, \*\* p<0.05, \*\*\* p<0.01



### 3. 개인/집단의 속성과 사회자본

개인의 속성 뿐만 아니라 집단의 속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연결망’, ‘신뢰’, ‘호혜성’, ‘사회자본’ 총량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결망’ 총량은 강한/약한 유대의 구분 기준이었던 연결망 밀도, 관계의 빈도, 관계의 지속성, 관계의 중복성, 교환자원총량을 두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각각 표준화하여 구한 총합을 다시 표준화하여 구성하였다. 반면 신뢰와 호혜성은 분석적 차원이 동일하였을 뿐만 아니라(각각 세가지 차원) 설문지 문항의 척도를 변환(recode)하여 그 값이 유형에 맞추어 상쇄되는 특성(척도가 -2에서 2까지 구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가지 차원을 합산하였다. 하지만 각각 ‘연결망’ 총량과 비교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합산한 신뢰와 호혜성을 두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화하였다. 다음은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전의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연결망, 신뢰, 호혜성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5-3>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연결망

		연결망				
		연결망 밀도	관계의 빈도	관계의 지속성	관계의 중복성	교환자원 총량
평균	동창회 (N=100)	0.85	83.51	30.53	1.34	11.84
	시민단체 (N=100)	0.81	109.21	5.48	1.61	11.72
	t	1.430	-5.313	30.181	-4.183	-0.214
	p	0.154	0.000	0.000	0.000	0.831
표준 편차	동창회 (N=100)	0.19	31.31	6.47	0.41	9.15
	시민단체 (N=100)	0.20	36.88	5.19	0.48	8.05
최소값	동창회 (N=100)	0.4	11	1	1	0
	시민단체 (N=100)	0.33	0	1	1	0

최대값	동창회 (N=100)	1	145	40	2.8	50
	시민단체 (N=100)	1	180	31.2	3.4	39

<표5-4>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신뢰와 호혜성

		신뢰			호혜성		
		물질적 기대	비물질적 기대	신뢰회복 방법	이해관계 방향성	보답의 즉각성	보답의 등가성
평균	동창회 (N=100)	7.49	2.47	7.20	0.37	4.41	5.02
	시민단체 (N=100)	4.21	2.45	3.72	0.82	2.04	2.97
	t	5.666	0.034	5.312	-1.295	2.916	2.960
	p	0.000	0.973	0.000	0.197	0.004	0.003
표준 편차	동창회 (N=100)	3.15	4.21	3.81	2.17	5.53	4.62
	시민단체 (N=100)	4.86	4.13	5.33	2.72	5.95	5.16
최소 값	동창회 (N=100)	0	-6	-2	-6	-10	-5
	시민단체 (N=100)	-7	-10	-10	-6	-10	-10
최대 값	동창회 (N=100)	10	10	10	6	10	10
	시민단체 (N=100)	10	10	10	7	10	10

다음은 위의 내용을 두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화 과정을 거쳐 구성한 '연결망', '신뢰', '호혜성', '사회자본' 총량을 보여준다.

<표5-5> 두 집단의 '연결망' 총량

	Z밀도	Z관계빈도	Z지속성	Z관계중복성	Z교환자원총량	'연결망'총량
동창회	0.10	-0.35	0.90	-0.28	0.01	0.16
시민단체	-0.10	0.35	-0.90	0.28	-0.01	-0.16

주: Z는 그 변수를 표준화시킨 것을 의미한다.

<표5-6> 두 집단의 ‘연결망’, ‘신뢰’, ‘호혜성’, ‘사회자본’ 총량

	‘연결망’총량	‘신뢰’총량	‘호혜성’총량	‘사회자본’총량
동창회	0.16	0.34	0.19	0.70
시민단체	-0.16	-0.34	-0.19	-0.70

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연결망 총량의 경우 동창회는 강한 유대가 5가지 중 2가지(연결망 밀도, 관계의 지속성), 시민단체는 3가지(연결망 밀도, 관계의 빈도, 관계의 중복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합산하여 표준화시킨 ‘연결망’ 총량의 경우 동창회가 양의 값을, 시민단체가 음의 값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표준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지속성의 경우 다른 유대의 차이보다 훨씬 커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결망’ 총량의 경우 그 수치로 유대의 성격을 단언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결망’ 총량의 경우 개인의 속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재구성한 개념임을 밝혀둔다. 또한 동창회의 신뢰와 호혜성이 시민단체보다 풍부하지만 두 집단의 평균이 표준화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도구적/완성적 동기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즉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집단 모두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집단이지만 표준화의 특성상 각 케이스의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값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동창회가 시민단체보다 신뢰와 호혜성이 더 풍부하여 동창회가 시민단체보다 더 완성적 동기에, 시민단체는 동창회보다 더 도구적 동기에 근거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다.

한편 두 집단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투입된 변수는 앞서 분석한 회귀모델에 포함된 변수인 성별(남자), 연령, 교육년수, 직업(전문/자유직), 직업(사무/관리직), 직업(판매/서비스직), 직업(학생), 직업(주부), 한달수입, 고향(수도권), 고향(충청권), 고향(호남권), 고향(영남권), 지지정당(열린우리당), 지지정당(한나라당), 지지정당(민주노동당), 지지정당(없다/모름)이다. 또한 집단의 속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집단(시민단체)변수를 추가하였다. 다음은 두 집단의 ‘연결망’, ‘신뢰’, ‘호혜성’, ‘사회자본’ 총량을 분석

하기 위한 회귀모델이다.

$$Y_9 = \beta_{1(9)}X_1 + \beta_{2(9)}X_2 + \beta_{3(9)}X_3 + \beta_{4(9)}X_4 + \beta_{5(9)}X_5 + \beta_{6(9)}X_6 + \beta_{7(9)}X_7 + \beta_{8(9)}X_8 + \beta_{9(9)}X_9 \\ + \beta_{10(9)}X_{10} + \beta_{11(9)}X_{11} + \beta_{12(9)}X_{12} + \beta_{13(9)}X_{13} + \beta_{14(9)}X_{14} + \beta_{15(9)}X_{15} + \beta_{16(9)}X_{16} \\ + \beta_{17(9)}X_{17} + \beta_{18(9)}X_{18} + \varepsilon_9$$

$$Y_{10} = \beta_{1(10)}X_1 + \beta_{2(10)}X_2 + \beta_{3(10)}X_3 + \beta_{4(10)}X_4 + \beta_{5(10)}X_5 + \beta_{6(10)}X_6 + \beta_{7(10)}X_7 + \beta_{8(10)}X_8 \\ + \beta_{9(10)}X_9 + \beta_{10(10)}X_{10} + \beta_{11(10)}X_{11} + \beta_{12(10)}X_{12} + \beta_{13(10)}X_{13} + \beta_{14(10)}X_{14} + \beta_{15(10)}X_{15} \\ + \beta_{16(10)}X_{16} + \beta_{17(10)}X_{17} + \beta_{18(10)}X_{18} + \varepsilon_{10}$$

$$Y_{11} = \beta_{1(11)}X_1 + \beta_{2(11)}X_2 + \beta_{3(11)}X_3 + \beta_{4(11)}X_4 + \beta_{5(11)}X_5 + \beta_{6(11)}X_6 + \beta_{7(11)}X_7 + \beta_{8(11)}X_8 \\ + \beta_{9(11)}X_9 + \beta_{10(11)}X_{10} + \beta_{11(11)}X_{11} + \beta_{12(11)}X_{12} + \beta_{13(11)}X_{13} + \beta_{14(11)}X_{14} + \beta_{15(11)}X_{15} \\ + \beta_{16(11)}X_{16} + \beta_{17(11)}X_{17} + \beta_{18(11)}X_{18} + \varepsilon_{11}$$

$$Y_{12} = \beta_{1(12)}X_1 + \beta_{2(12)}X_2 + \beta_{3(12)}X_3 + \beta_{4(12)}X_4 + \beta_{5(12)}X_5 + \beta_{6(12)}X_6 + \beta_{7(12)}X_7 + \beta_{8(12)}X_8 \\ + \beta_{9(12)}X_9 + \beta_{10(12)}X_{10} + \beta_{11(12)}X_{11} + \beta_{12(12)}X_{12} + \beta_{13(12)}X_{13} + \beta_{14(12)}X_{14} + \beta_{15(12)}X_{15} \\ + \beta_{16(12)}X_{16} + \beta_{17(12)}X_{17} + \beta_{18(12)}X_{18} + \varepsilon_{12}$$

$Y_9$  : 연결망 총량,  $Y_{10}$  : 신뢰 총량,  $Y_{11}$  : 호혜성 총량,  $Y_{12}$  : 사회자본 총량

$X_1$  : 성별(남자),  $X_2$  : 연령,  $X_3$  : 교육년수,

$X_4$  : 직업(전문/자유직),  $X_5$  : 직업(사무/관리직),

$X_6$  : 직업(판매/서비스),  $X_7$  : 직업(학생),

$X_8$  : 직업(주부),  $X_9$  : 한달수입,  $X_{10}$  : 고향(수도권),

$X_{11}$  : 고향(충청권),  $X_{12}$  : 고향(호남권),  $X_{13}$  : 고향(영남권),

$X_{14}$  : 지지정당(열린우리당),  $X_{15}$  : 지지정당(한나라당),

$X_{16}$  : 지지정당(민주노동당),  $X_{17}$  : 지지정당(없다/모름),

$X_{18}$  : 집단(시민단체),  $\varepsilon_9, \varepsilon_{10}, \varepsilon_{11}, \varepsilon_{12}$  : 오차

<표5-7>은 분석된 두 집단의 회귀모델이다.

<표5-7> 두 집단의 사회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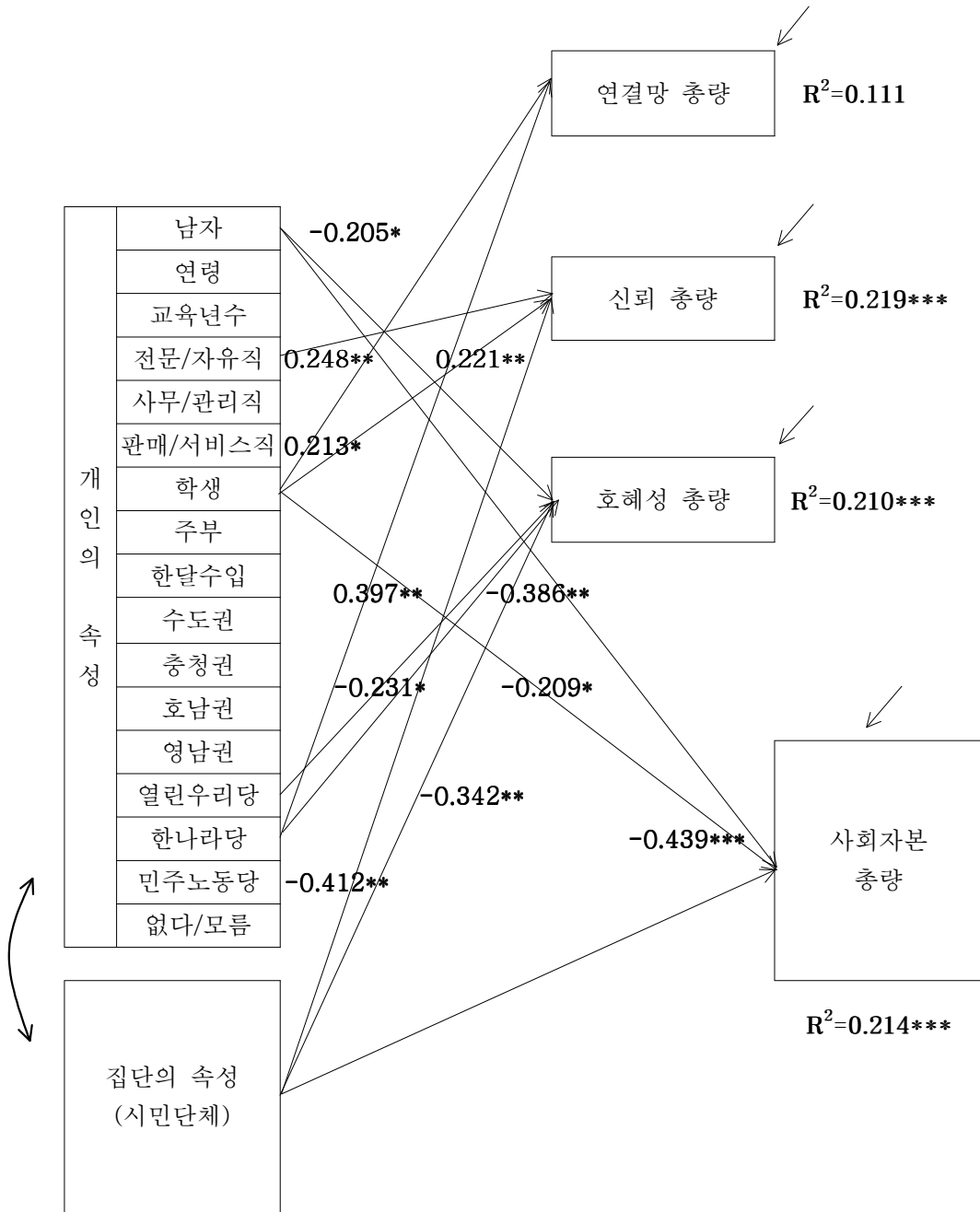
	모델9		모델10		모델11		모델12	
	연결망 총량		신뢰 총량		호혜성 총량		사회자본 총량	
	Beta	Sig.	Beta	Sig.	Beta	Sig.	Beta	Sig.
(Constant)		0.806		0.890		0.098		0.464
남자	-0.189	0.105	-0.046	0.675	<b>-0.205</b>	<b>0.063</b>	<b>-0.209</b>	<b>0.058</b>
연령	0.080	0.603	0.152	0.292	-0.043	0.767	0.090	0.534
교육년수	-0.109	0.381	-0.093	0.427	-0.116	0.324	-0.150	0.198
전문/자유직	0.161	0.243	<b>0.248</b>	<b>0.056</b>	0.009	0.943	0.199	0.126
사무/관리직	0.204	0.106	0.105	0.375	-0.093	0.432	0.102	0.389
판매/서비스직	0.068	0.532	0.116	0.252	-0.119	0.246	0.031	0.761
학생	<b>0.213</b>	<b>0.068</b>	<b>0.221</b>	<b>0.043</b>	0.089	0.414	<b>0.248</b>	<b>0.024</b>
주부	0.062	0.555	0.115	0.243	-0.042	0.674	0.064	0.515
한달수입	0.070	0.567	0.000	0.998	0.102	0.375	0.082	0.476
수도권	-0.034	0.851	0.056	0.738	-0.005	0.975	0.008	0.961
충청권	0.015	0.902	0.008	0.941	0.042	0.720	0.031	0.789
호남권	0.060	0.633	0.008	0.948	-0.161	0.175	-0.044	0.706
영남권	-0.011	0.935	0.046	0.702	-0.053	0.659	-0.008	0.944
열린우리당	0.220	0.115	-0.157	0.230	<b>-0.231</b>	<b>0.080</b>	-0.080	0.540
한나라당	<b>0.397</b>	<b>0.041</b>	-0.273	0.132	<b>-0.386</b>	<b>0.035</b>	-0.126	0.489
민주노동당	0.120	0.360	0.118	0.337	0.014	0.912	0.119	0.332
없다/모름	0.220	0.250	-0.271	0.132	-0.286	0.114	-0.161	0.372
집단(시민단체)	-0.170	0.321	<b>-0.412</b>	<b>0.011</b>	<b>-0.342</b>	<b>0.035</b>	<b>-0.439</b>	<b>0.007</b>
	R <sup>2</sup> =0.111 p=0.235		R <sup>2</sup> =0.219 p=0.000		R <sup>2</sup> =0.210 p=0.001		R <sup>2</sup> =0.214 p=0.000	

회귀분석 결과, 학생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강한 연결망을 갖는 반면, 집단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모델의 결정계수가 유의하지 않아 그 차이는 미세한 것으로 보인다. ‘신뢰’ 총량에서 전문/자유직인 사람과 학생이 신뢰가 풍부하다고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회귀모델의 결정계수가 유의미했던 시민단체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집단(시민단체)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와 ‘신뢰’ 총량은 집단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호혜성’ 총량에서는 남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호혜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귀모델의 결정계수도 유의미하다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남자가 호혜성에 미치는 영향은 동창회의 남성이 가중치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시민단체의 회귀분석에서 성별이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지정당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집단(시민단체)이 호혜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그 유의미한 정도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정도와 같아 호혜성은 개인의 속성 중 지지정당과 집단의 속성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자본’ 총량에서는 남자가 사회자본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회귀모델의 결정계수가 유의미하다고 할지라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생이 사회자본이 크다고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시민단체의 학생이 전반적으로 사회자본이 높았던 것에 기인한다. 반면 집단(시민단체)의 속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그 유의미한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두 집단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직업과 선호정당에 제한되는데 이것의 영향력은 집단의 속성에 비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개인의 속성이라기 보다는 집단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집단의 개인/집단의 속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5-3> 두 집단의 개인/집단의 속성과 사회자본

(유의미한 회귀계수만 표시하였으며, 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의미)



#### 4. 소결

개인의 다양한 속성, 즉 인구/사회/경제적 속성이 사회자본의 핵심적 구성요소(연결망, 신뢰, 호혜성)와 사회자본 총량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연결망’ 총량, ‘신뢰’ 총량, ‘호혜성’ 총량, ‘사회자본’ 총량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동창회의 경우 회귀모델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개인적 속성이 동창회에 주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단체는 ‘호혜성’, ‘사회자본’ 총량에서 주로 직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두 집단의 사회자본을 집단더미(시민단체)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신뢰’, ‘호혜성’, ‘사회자본’ 총량에서 직업과 선호정당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집단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지적된 동창회와 사회자본의 속성과 그에 따른 차이는 개인의 속성이라기 보다는 주로 집단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가설1>, <가설2>, <가설4>가 검증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두 집단의 사회자본은 개인적 속성보다는 집단의 속성에 기인한다’가 충족된다. 그러므로 <가설1>, <가설2>, <가설4>는 제4장에서와 살펴본 바와 같이 성립 가능하다.



## 제6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는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상반된 원리로 간주되어, 사회자본에 관한 논쟁에서 두가지 상반되는 입장이 다투어 왔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동창회와 시민단체에 동일한 잣대를 사용하여 사회자본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연결망(network), 신뢰(trust)와 호혜성(reciprocity)의 성격을 분석해 본 결과, 두 집단은 다른 구성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형성된 관계에서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를 갖는 동시에 신뢰와 호혜성이 비교적 풍부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동창회가 연결망 밀도와 관계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강한 유대를 가지지만, 관계의 빈도, 관계의 중복성, 교환자원총량을 중심으로 약한 유대를 갖는다는 사실에서 “연고집단의 친밀한 구성원 사이에는 내적 결속이 강한 유대와 동시에 약한 유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확장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가설1>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민단체가 관계의 지속성, 교환자원총량을 기준으로 약한 유대를 가지지만, 연결망 밀도, 관계의 빈도, 관계의 중복성을 기준으로 강한 유대를 가진다는 사실은 “서구식 자발적 결사체의 친밀한 구성원 사이에는 약한 유대와 동시에 내적 결속이 강한 유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개방성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가설2>도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신뢰와 호혜성의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와 호혜성을 보였다는 사실은 “자발적 결사체는 도구적 성격을 지니지만 동시에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완성적 공동체일 것이다.”라는 <가설4>가 성립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창회가 신뢰와 호혜성에서 부분적으로 구성적 기대와 균형잡힌 호혜성을 보였을지라도, 전체적으로 신뢰와 호혜성의 수준이 높은데다가 그 정도도 완성적 동기에 기초하고 있다고 분석된 시민단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 “연고집단은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완성적 공동체인 동시에 도구적 공동체이다.”라는 <가설4>는 일반화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창회와 시민단체의 개인적 속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해 본 결과, 두 집단의 사회자본의 차이는 개인의 다양한 속성보다는 집단의 속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가설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 주었다.

따라서 각 집단의 사회자본이 집단의 속성에 기인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었으므로 <가설1>, <가설2>, <가설4>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설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동창회와 시민단체는 서로 다른 구성원리를 지닌다고 평가받는 두 집단의 대립적 성격에 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현실에서 두 집단은 강한/약한 유대를 동시에 지니면서 신뢰와 호혜성이 풍부한 완성적 공동체라는 점에서 이념형적 예측과 같이 대립적이지 않다.”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가 경험적 현실에서 대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전통적 구성원리로 간주되는 연고집단과 근대의 구성원리로 간주되는 자발적 결사체의 원리가 한국사회에서 서로 긴밀하게 중첩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연고집단의 원리가 현실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논의와 같이 강한 유대의 폐쇄성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한국사회에서 연고집단이 가지는 의미를 되짚어 보게 한다. 연고집단의 원리와 자발적 결사체의 원리는 사회자본의 축적과 유지에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양립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본 논문은 자아중심 연결망(ego-centric network)의 자료수집 방법을 통해 응답자가 친한 정도에 따라서 다섯 명을 선택하여 기술한 연결망에 의해 사회자본이 측정되었다. 따라서 응답자와 친분이 있는 다섯 명으로 구성된 연결망의 속성만을 보여준다. 특히 친한 정도에 따라 자아중심 연결망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인간관계의 연결망 속성을 보여준다는 방법론상의 한계를 가진다. 또한 집단의 내부 규범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사회자본이 축적되고 유지되는 근원으로 중요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그러한 함축적 의미를 포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두 집단이 사회자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이 집단의 속성에 기인한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방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소

홀히 다루었던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경험적 측정을 동일한 잣대를 사용하여 그 성격을 이해하는 작업의 시초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념형적 예측이 아니라 경험적 현실에서 실제로 연고집단과 시민단체가 작동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점은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경험적 연구에 새로운 관점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사회구성 원리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하고 객관적인 연구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상준, 2002, “성찰적 사회자본과 귀속적 사회자본”, 한국NGO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용학, 1997, “고신뢰 사회를 향한 연결망 구축방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_\_\_\_\_, 2003a, 「사회 연결망 이론」, 박영사
- \_\_\_\_\_, 2003b, 「사회 연결망 분석」, 박영사
- 박찬웅, 1999, “신뢰의 위기와 사회적 자본”, 사회비평19호
- 유석춘, 1998, “유교 자본주의와 IMF 개입”, 「전통과 현대」 6(가을호)
- \_\_\_\_\_, 2002, “한국 시민운동의 문제와 바람직한 개선방향”,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 \_\_\_\_\_. 김용민, 2000, “한국 시민단체의 목적전치: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 \_\_\_\_\_. 장미혜, 2002, “한국의 비영리·비정부 영역과 사회발전: 연고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 \_\_\_\_\_. 장미혜·김태은, 2002, “동아시아의 연고주의와 세계화”, 「전통과 현대」 13호(가을호)
- \_\_\_\_\_. 장미혜, 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8, 사회발전연구소
- \_\_\_\_\_. 장미혜·정병은·배영, 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그린
-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사상37호(여름호)
- \_\_\_\_\_, 2001, “의리인가 계약인가?: 인격주의와 개인주의의 갈등적 공존과 한국 사회의 체문제”, 석현호·유석춘 공편, 「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 현대
- 이재혁, 1996, “신뢰, 거래비용, 그리고 연결망”, 한국사회학 제30집(가을호)
- \_\_\_\_\_, 1998, “신뢰의 사회구조화”, 한국사회학 제32집(여름호)

- \_\_\_\_\_, 1999a, “동태적 구조이론의 가능성:행위와 구조의 되먹임”, 「한국의 사회 구조와 지역사회」, 김일철 외,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9b, “사회적 통제의 정치경제학-규범과 관습, 그리고 교환”, 「한국의 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대우학술총서, 아르케
- 장윤식, 2001, “인격윤리와 한국사회”, 석현호·유석춘 공편, 「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 현대
- 최종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사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 한국사회학 제38집 6호
- 한준, “연고주의는 네트워크의 걸림돌인가”, 중앙일보 2000.3.27 17면
- Fukuyama, Francis. 1995b, 「Trust: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구승희 역(1996), 「트러스트」, 한국경제신문사
- Bourdieu, Pierre. 1986, " The Forms of Capital" in John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Greenwood, pp241-258
- Coleman, Jame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s94-s121
- Fukuyama, Francis. 1995b, 「Trust: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Free Press
- Newton, Kennth.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e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March/April, pp575-586
- Lin, Nan. 2001, 「Social Capital: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rtes, Alejandro. 1998, "Socual Capital:Its Origin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pp1-24
- Putnam, Robert. 1993, "The Properous Community:Socai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spring), pp35-42
- Woolcock, Michael.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pp151-208

[www.kfem.or.kr](http://www.kfem.or.kr)

[www.gyewoo.com/default.asp](http://www.gyewoo.com/default.asp)

\* 부록 1

<중앙65교우회 설문지>

Group  ID

## 한국의 인간관계에 관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한국의 인간관계> 연구팀입니다. 저희는 2003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 인간관계의 유형과 성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가 갖는 형태와 특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귀하께서 주위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쭙어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며, 통계적인 분석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학술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만 활용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희의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주관 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의 인간관계> 연구팀
연구 책임자	사회학과 유석춘 교수
조사 담당자	사회학과 정병은 연구원
문의 전화	전화 02-2123-4220 & 019-336-6045 이메일 barbara2@freechal.com

면접원 :

응답자성명	전화번호		면접일시 및 소요시간 월 일 시 (총____분간)
	집전화번호 ( ) -	핸드폰번호 ( ) -	

【문1】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단체나 조직 중에서, 현재 귀하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모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집단 내부의 모임이나 단체는 제외시켜 주십시오)

- 1) 향우회                      2) 동창회                      3) 종친회  
4) 계/자조 모임              5) 취미/문화/연구/운동/스포츠모임  
6) 교육/학부모 모임        7) 자선/사회봉사            8) 정치조직/정당  
9) NGO/시민단체            10) 주민/거주지역 모임  
11) 노동조합                 12) 직업관련 모임/직능단체  
13) 종교모임                 14) 기타\_\_\_\_\_         15) 소속된 단체가 없다

다음은 귀하가 속해있는 **중앙65교우회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 관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시)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제외시키고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 귀하는 중앙65교우회에서 지난 1년 사이에 직접 만났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분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명
---

【문3】 귀하가 【문2】 에서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친한 정도에 따라서 다섯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다음에 예시되어 있는 표와 같이 응답의 보기를 보고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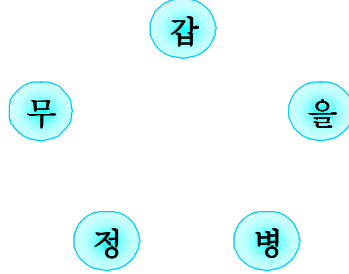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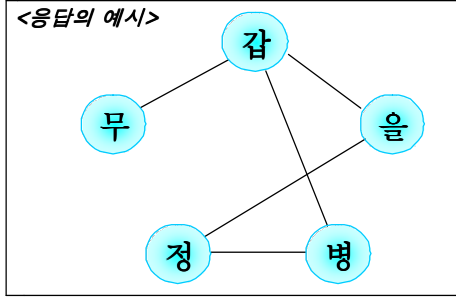
응답의 보기 (예시)	갑	을	병	정	무
1) 아는 사람의 이름 (단순히 사람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가명이나 직함을 쓰셔도 됩니다)	홍길동	김사장	박총무	이순희	최씨
2) 귀하와 어떤 관계입니까? (중복되는 경우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친(인)척                      ② 직장 상사/동료/부하 ③ 초,중,고교 동문            ④ 대학 동문 ⑤ 이웃                            ⑥ 같은 고향 사람 ⑦ 모임/단체의 회원(어떤 모임/단체?: ) ⑧ 기타(자세히 표기)_____	3 6	2 4 5 7	1 3	6	7 조기 축구 회
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1	1	1	2	1
4) 만 연령(잘 모를 경우 '20대 후반' 같이 적어주십시오)	41	57	45	28	33
5) 교육수준(중퇴, 재학 포함) ① 초등학교 졸업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⑥ 잘 모르겠다	4	6	3	4	3



응답의 보기

	갑	을	병	정	무
1) 아는 사람의 이름(가명, 직함을 쓰셔도 됩니다)					
2) 귀하와 어떤 관계입니까? (중복되는 경우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친(인)척                      ② 직장 상사/동료/부하 ③ 초,중,고교 동문              ④ 대학 동문 ⑤ 이웃                              ⑥ 같은 고향 사람 ⑦ 모임/단체의 회원(어떤 모임/단체?: ) ⑧ 기타(자세히 표기)_____ )					
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4) 만 연령 (잘 모를 경우 '20대 후반' 같이 적어주십시오)					
5) 교육수준(중퇴, 재학 포함) ① 초등학교 졸업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이상                  ⑥ 잘 모르겠다					
6) 직업 ①전문직/자유직 ②일반사무직/관리직 ③판매직/서비스직 ④생산직/기술직 ⑤농림/어업/축산업 ⑥학생 ⑦가정주부        ⑧무직/은퇴                      ⑨군인 ⑩기타(자세히 표기)_____ ⑪잘 모르겠다					
7) 직업의 종사상 지위 ①고용자                              ②피고용자                      ③지역업 ④해당되지 않음(가정주부,학생,무직/은퇴) ⑤잘 모르겠다					
8) 경제적인 수준 ①상류층의 상층 ②상류층의 하층 ③중류층의 상층 ④중류층의 하층 ⑤하류층의 상층 ⑥하류층의 하층 ⑦잘 모르겠다					
9) 출신지(고향) ①수도권 ②충청권 ③호남권 ④영남권 ⑤강원 ⑥제주 ⑦해외 ⑧이북 ⑨잘 모르겠다					
10) 평소 가장 선호하는 정당 ①열린우리당                      ②한나라당                      ③민주노동당 ④새천년 민주당                ⑤자민련                        ⑥기타 정당 ⑦없다                                ⑧잘 모르겠다					
11) 알고지낸 기간(1년 단위로 적어주십시오)					

【문4】 귀하가 【문3】 에서 응답해주신 분들께리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지 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분들께리 실선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단 문3에서 아무도 접촉하지 않았거나 1명만 접촉했을 경우에는 이 문항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5】 귀하가 【문 3】 에서 응답하신 분들은 중앙65교우회에서 1년에 한번 모이는 '총회'(전체 모임)에 어느 정도나 참여하십니까?

1년에 한번 모이는 총회(전체 모임)에 참가하는가?

항상 참여한다	대체로 참여하는 편이다	반반	대체로 참여하지 않는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총회가 없다/ 비해당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6					

【문6】 앞에서 응답하신 분들은 지난 1년 사이에 어떤 일 때문에 만났거나 또는 연락을 주고 받으셨습니까? 먼저 귀하께서 그 분들께 어떤 종류의 도움을 받으셨는지에 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다음의 보기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해 주십시오.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갑	을	병	정	무
1) 중요한 정보나 소식을 전해 들었다					
2) 급하게 돈을 꾸거나 중요한 물건(자동차 등)을 빌렸다					
3) 개인적인 고민을 의논하거나 위로를 받았다					
4) 집안일(이사,김장,아기돌보기)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					
5) 취직이나 승진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					
6) 명절 인사/선물이나 경조사 부조를 받았다					
7) 기타 ( )					

【문7】 이번에는 지난 1년 사이에 귀하께서 그 분들에게 어떤 종류의 도움을 제공하셨는지에 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다음의 보기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해 주십시오.

나는 그 사람에게.....	갑	을	병	정	무
1) 중요한 정보나 소식을 알려 주었다					
2) 급하게 돈을 꾸거나 중요한 물건(자동차 등)을 빌려주었다					
3) 개인적인 고민을 의논하거나 위로해 주었다					
4) 집안일(이사,김장,아기돌보기)에 관한 도움을 주었다					
5) 취직이나 승진에 관한 도움을 주었다					
6) 명절 인사선물이나 경조사 부조를 주었다					
7) 기타 ( )					

【문8】 앞에서 응답하신 분들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는 편입니까? 그 분을 실제로 만나는 경우, 전화를 주고받는 경우, 컴퓨터 인터넷(이메일, 메신저, 카페, 게시판 등) 상으로 만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의 보기	갑	을	병	정	무
<b>1) 실제로 만나는 빈도</b>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한번 ③ 1달에 한번                      ④ 3-4달에 한번 ⑤ 6개월에 한번                    ⑥ 1년에 한번					
<b>2) 전화를 주고 받는 빈도</b>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한번 ③ 1달에 한번                      ④ 3-4달에 한번 ⑤ 6개월에 한번                    ⑥ 1년에 한번					
<b>3) 컴퓨터 인터넷 상으로 만나는 빈도</b>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한번 ③ 1달에 한번                      ④ 3-4달에 한번 ⑤ 6개월에 한번                    ⑥ 1년에 한번 ⑦ 인터넷을 하지 않는다					

다음의 문제들은 귀하가 앞에서 응답하신 분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평소 그 분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시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문9】** 평소 그 분과의 관계에서 누구의 입장이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편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b>평소 누구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b>									
전적으로 나의 입장	대체로 나의 입장	반반	대체로 그 사람의 입장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문10】** 만약 귀하가 그 분의 가족을 모두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대접하였을 경우, 그것에 대한 보답은 어느 정도나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b>호의에 대한 보답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가?</b>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반반		보답이 아무리 늦어져도 상관없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문11】** 만약 【문10】 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한 보답의 정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b>보답의 정도는 또는 크기는 어떠해야 하는가?</b>									
내가 대접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아야 한다		반반		내가 대접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문12】 귀하가 그 분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예를 들면 3달치 생활비 정도)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3달치 생활비를 빌려가서 갚지 않을 경우**

법적인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낸다	반반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기다린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문13】 만약 그 분이 귀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귀하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	반반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는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문14】 그렇다면 【문12】 , 【문13】 의 상황과 같이 그 분들이 귀하의 기대와는 다른 처신을 할 경우에, 귀하는 다음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에 어긋나는 처신을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해 본다	그 사람과 나를 모두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 알아본다	기존에 있는 법이나 규칙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문15】 앞에서 응답해주신 분들에게 집안의 경조사(결혼, 장례 등)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보조하시겠습니까?(만원 단위로 적어주십시오)

갑	을	병	정	무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2) 여자

Q2. 귀하의 연령은?

만_____세
---------

Q3. 귀하는 현재의 지역에서 얼마나 거주하십니까?

_____년
--------

Q4.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중퇴, 재학도 포함)

-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졸업  5) 대학원 이상

Q5. 귀하가 하시는 일(직업)은 무엇입니까?

- 1) 전문직/자유직  2) 일반사무직/관리직  3) 판매직/서비스직  
 4) 생산직/기술직  5) 농림/어업/축산업  6) 학생  
 7) 가정주부  8) 무직/은퇴  9) 군인  
 10) 기타\_\_\_\_\_ (자세히 표기)

Q6. 직업의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1) 고용자  2) 피고용자  3) 자영업  
 4) 비해당(가정주부, 학생, 무직/은퇴의 경우 체크하십시오)

Q7. 귀댁의 한달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100만원 미만  2) 100-150만원  3) 150-200만원  
 4) 200-250만원  5) 250-300만원  6) 300-350만원  
 7) 350-400만원  8) 400-450만원  9) 450-500만원  
 10) 500-550만원  11) 550-600만원  12) 600-650만원  
 13) 650-700만원  14) 700-750만원  15) 750-800만원  
 16) 800만원 이상

Q8. 귀댁의 생활수준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상류층의 상층                      2) 상류층의 하층                      3) 중류층의 상층  
4) 중류층의 하층                      5) 하류층의 상층                      6) 하류층의 하층

Q9. 귀하의 고향(청소년기를 보낸 지역)은 어디이십니까?

- 1) 수도권                      2) 충청권                      3) 호남권                      4) 영남권  
5) 강원                      6) 제주                      7) 해외                      8) 이북

Q10. 귀하의 아버지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 1) 수도권                      2) 충청권                      3) 호남권                      4) 영남권  
5) 강원                      6) 제주                      7) 해외                      8) 이북

Q11. 귀하는 평소 어느 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편이십니까?

- 1) 열린우리당                      2) 한나라당                      3) 민주노동당                      4) 새천년민주당  
5) 자민련                      6) 기타 정당                      7) 없다                      8) 잘 모르겠다

Q12. 귀하는 중앙65교우회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 1) 회장                      2) 임원                      3) 평회원                      4) 동호인회(골프,등산,바둑 등) 리더  
5) 기타\_\_\_\_\_ (자세히 표기)

---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부록 2

<환경운동연합 설문지>

Group

2

ID

□ □ □

한국의 인간관계에 관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한국의 인간관계> 연구팀입니다. 저희는 2003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 인간관계의 유형과 성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가 갖는 형태와 특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귀하께서 주위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쭙어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며, 통계적인 분석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학술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만 활용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희의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주관 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의 인간관계> 연구팀
연구 책임자	사회학과 유석춘 교수
조사 담당자	사회학과 정병은 연구원
문의 전화	전화 02-2123-4220 & 019-336-6045 이메일 barbara2@freechal.com

면접원 :

응답자성명	전화번호		면접일시 및 소요시간 월 일 시 (총____분간)
	집전화번호 ( ) -	핸드폰번호 ( ) -	



【문1】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단체나 조직 중에서, 현재 귀하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모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집단 내부의 모임이나 단체는 제외시켜 주십시오)

- 1) 향우회                      2) 동창회                      3) 종친회  
4) 계/자조 모임              5) 취미/문화/연구/운동/스포츠모임  
6) 교육/학부모 모임        7) 자선/사회봉사            8) 정치조직/정당  
9) NGO/시민단체            10) 주민/거주지역 모임  
11) 노동조합                 12) 직업관련 모임/직능단체  
13) 종교모임                 14) 기타\_\_\_\_\_         15) 소속된 단체가 없다

다음은 귀하가 속해있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 관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시)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제외시키고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 귀하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지난 1년 사이에 직접 만났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분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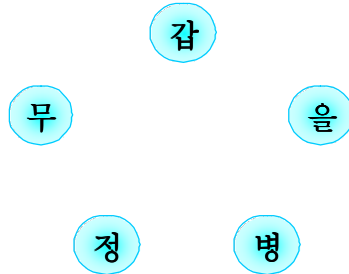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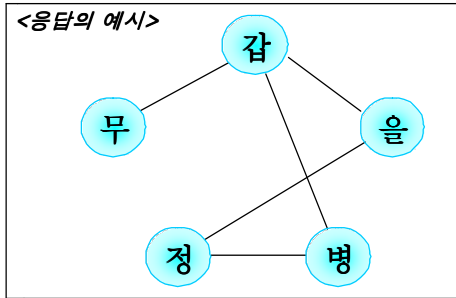
【문3】 귀하가 【문2】 에서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친한 정도에 따라서 다섯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다음에 예시되어 있는 표와 같이 응답의 보기를 보고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응답의 보기 (예시)	갑	을	병	정	무
1) 아는 사람의 이름 (단순히 사람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가명이나 직함을 쓰셔도 됩니다)	홍길동	김사장	박총무	이순희	최씨
2) 귀하와 어떤 관계입니까? (중복되는 경우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친(인)척                      ② 직장 상사/동료/부하 ③ 초,중,고교 동문            ④ 대학 동문 ⑤ 이웃                            ⑥ 같은 고향 사람 ⑦ 모임/단체의 회원(어떤 모임/단체?: ) ⑧ 기타(자세히 표기)_____ )	3 6	2 4 5 7	1 3	6	7 조기 축구 회
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1	1	1	2	1
4) 만 연령(잘 모를 경우 '20대 후반' 같이 적어주십시오)	41	57	45	28	33
5) 교육수준(중퇴, 재학 포함) ① 초등학교 졸업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⑥ 잘 모르겠다	4	6	3	4	3

응답의 보기

	갑	을	병	정	무
1) 아는 사람의 이름(가명, 직함을 쓰셔도 됩니다)					
2) 귀하와 어떤 관계입니까? (중복되는 경우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친(인)척                      ② 직장 상사/동료/부하 ③ 초,중,고교 동문              ④ 대학 동문 ⑤ 이웃                              ⑥ 같은 고향 사람 ⑦ 모임/단체의 회원(어떤 모임/단체?: ) ⑧ 기타(자세히 표기)_____					
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4) 만 연령 (잘 모를 경우 '20대 후반' 같이 적어주십시오)					
5) 교육수준(중퇴, 재학 포함) ① 초등학교 졸업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이상                  ⑥ 잘 모르겠다					
6) 직업 ①전문직/자유직 ②일반사무직/관리직 ③판매직/서비스직 ④생산직/기술직 ⑤농림/어업/축산업 ⑥학생 ⑦가정주부        ⑧무직/은퇴                      ⑨군인 ⑩기타(자세히 표기)_____ ⑪잘 모르겠다					
7) 직업의 종사상 지위 ①고용자                              ②피고용자                      ③지역업 ④해당되지 않음(가정주부,학생,무직/은퇴) ⑤잘 모르겠다					
8) 경제적인 수준 ①상류층의 상층 ②상류층의 하층 ③중류층의 상층 ④중류층의 하층 ⑤하류층의 상층 ⑥하류층의 하층 ⑦잘 모르겠다					
9) 출신지(고향) ①수도권 ②충청권 ③호남권 ④영남권 ⑤강원 ⑥제주 ⑦해외 ⑧이북 ⑨잘 모르겠다					
10) 평소 가장 선호하는 정당 ①열린우리당                      ②한나라당                      ③민주노동당 ④새천년 민주당                ⑤자민련                        ⑥기타 정당 ⑦없다                                ⑧잘 모르겠다					
11) 알고지낸 기간(1년 단위로 적어주십시오)					

【문4】 귀하가 【문3】 에서 응답해주신 분들께리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지 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분들께리 실선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단 문3에서 아무도 접촉하지 않았거나 1명만 접촉했을 경우에는 이 문항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5】 귀하가 【문 3】 에서 응답하신 분들은 환경운동연합에서 1년에 한번 모이는 '총회'(전체 모임)에 어느 정도나 참여하십니까?

1년에 한번 모이는 총회(전체 모임)에 참가하는가?

항상 참여한다	대체로 참여하는 편이다	반반	대체로 참여하지 않는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총회가 없다/ 비해당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6					

【문6】 앞에서 응답하신 분들은 지난 1년 사이에 어떤 일 때문에 만났거나 또는 연락을 주고 받으셨습니까? 먼저 귀하께서 그 분들께 어떤 종류의 도움을 받으셨는지에 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다음의 보기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해 주십시오.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갑	을	병	정	무
1) 중요한 정보나 소식을 전해 들었다					
2) 급하게 돈을 꾸거나 중요한 물건(자동차 등)을 빌렸다					
3) 개인적인 고민을 의논하거나 위로를 받았다					
4) 집안일(이사,김장,아기돌보기)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					
5) 취직이나 승진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					
6) 명절 인사/선물이나 경조사 부조를 받았다					
7) 기타 ( )					

【문7】 이번에는 지난 1년 사이에 귀하께서 그 분들께 어떤 종류의 도움을 제공하셨는지에 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다음의 보기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해 주십시오.

나는 그 사람에게.....	갑	을	병	정	무
1) 중요한 정보나 소식을 알려 주었다					
2) 급하게 돈을 꾸거나 중요한 물건(자동차 등)을 빌려주었다					
3) 개인적인 고민을 의논하거나 위로해 주었다					
4) 집안일(이사,김장,아기돌보기)에 관한 도움을 주었다					
5) 취직이나 승진에 관한 도움을 주었다					
6) 명절 인사선물이나 경조사 부조를 주었다					
7) 기타 ( )					

【문8】 앞에서 응답하신 분들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는 편입니까? 그 분을 실제로 만나는 경우, 전화를 주고받는 경우, 컴퓨터 인터넷(이메일, 메신저, 카페, 게시판 등) 상으로 만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의 보기	갑	을	병	정	무
<b>1) 실제로 만나는 빈도</b>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한번 ③ 1달에 한번                      ④ 3-4달에 한번 ⑤ 6개월에 한번                  ⑥ 1년에 한번					
<b>2) 전화를 주고 받는 빈도</b>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한번 ③ 1달에 한번                      ④ 3-4달에 한번 ⑤ 6개월에 한번                  ⑥ 1년에 한번					
<b>3) 컴퓨터 인터넷 상으로 만나는 빈도</b>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한번 ③ 1달에 한번                      ④ 3-4달에 한번 ⑤ 6개월에 한번                  ⑥ 1년에 한번 ⑦ 인터넷을 하지 않는다					

다음의 문제들은 귀하가 앞에서 응답하신 분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평소 그 분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시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문9】** 평소 그 분과의 관계에서 누구의 입장이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편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평소 누구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					갑	을	병	정	무
전적으로 나의 입장	대체로 나의 입장	반반	대체로 그 사람의 입장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					
1	2	3	4	5					

**【문10】** 만약 귀하가 그 분의 가족을 모두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대접하였을 경우, 그것에 대한 보답은 어느 정도나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호의에 대한 보답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갑	을	병	정	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반반		보답이 아무리 늦어져도 상관없다					
1	2	3	4	5					

**【문11】** 만약 【문10】 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한 보답의 정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보답의 정도는 또는 크기는 어떠해야 하는가?					갑	을	병	정	무
내가 대접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아야 한다		반반		내가 대접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					
1	2	3	4	5					

【문12】 귀하가 그 분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예를 들면 3달치 생활비 정도)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3달치 생활비를 빌려가서 갚지 않을 경우**

법적인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낸다	반반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기다린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문13】 만약 그 분이 귀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귀하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음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	반반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는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4	5					

【문14】 그렇다면 【문12】 , 【문13】 의 상황과 같이 그 분들이 귀하의 기대와는 다른 처신을 할 경우에, 귀하는 다음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에 어긋나는 처신을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해 본다	그 사람과 나를 모두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 알아본다	기존에 있는 법이나 규칙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	갑	을	병	정	무
1	2	3					



Q8. 귀댁의 생활수준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상류층의 상층                      2) 상류층의 하층                      3) 중류층의 상층  
4) 중류층의 하층                      5) 하류층의 상층                      6) 하류층의 하층

Q9. 귀하의 고향(청소년기를 보낸 지역)은 어디이십니까?

- 1) 수도권                      2) 충청권                      3) 호남권                      4) 영남권  
5) 강원                      6) 제주                      7) 해외                      8) 이북

Q10. 귀하의 아버지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 1) 수도권                      2) 충청권                      3) 호남권                      4) 영남권  
5) 강원                      6) 제주                      7) 해외                      8) 이북

Q11. 귀하는 평소 어느 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편이십니까?

- 1) 열린우리당                      2) 한나라당                      3) 민주노동당                      4) 새천년민주당  
5) 자민련                      6) 기타 정당                      7) 없다                      8) 잘 모르겠다

Q12. 귀하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 1) 상근활동가                      2) 소모임의 리더                      3) 일반회원  
4) 기타\_\_\_\_\_ (자세히 표기)

Q13. 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모임에 참여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년
--------

---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부록 3

#### 심층면접 질문지

- 1) ○○○에 언제 가입하셨습니다?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 2) ○○○에서 ○○직책을 맡고 계신데, 맡게 된 경위를 말씀해주세요..
- 3) ○○○에서 ○○직책을 맡게 되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4) ○○직책을 맡으면서 일반회원이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점이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 5) ○○직책을 맡으면서 가지게 되면서 ○○○에 대한 만족감이나 불만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6) ○○님께서 ○○○에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만족감이나 불만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7) 그러면 최근 ○○○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8) 혹시 회원들끼리 혹은 직책을 맡은 사람들 간의 서로 공유하는 규범이나 규칙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혹은 ○○○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어떠한 점은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9) 같이 일하는 동료 혹은 회원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보통 무슨 주제가 있는 모임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친목을 위한 자리인가요? 그때 만나시는 분들은 ○○○에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입니까? 만나면 하시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 10) 같이 일하는 동료나 회원들을 사적인 목적으로 만나시는 일이 자주 있으세요? 어떠한 경우에 그리하며,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만나서 하시는 일은 보통 무엇인가요?
- 11) 이와 덧붙여 ○○○ 회원들 간의 친목관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말씀해주셔도 되구요....
- 12) 같이 일하는 동료 간의 혹은 회원들 간의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들-예컨대 경

조사나 집안일이 생겼을 때 등 서로 돕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님이 알고 있고 겪으신 일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님에게 얼마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 아닌 ○○님이 속하신 다른 모임의 회원들과 비교했을 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13) ○○○ 내에서 친한 분들에 해당하는 질문인데요...그 분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세요? 가족이나 부모님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까? 함께 여행은 가보셨는지..고민이 있을 때 서로 기탄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는지..서로 돈을 빌리거나 신원보증을 서줄 수 있는지..취직부탁을 할 수 있는지...사정이 생겨 ○○님의 집에 체류해야 한다면 기꺼이 해주실 수 있는지...언제든지 부르면 나가서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지..그러한 일들은 ○○○ 회원 사이에 가능한 것인지 다른 모임의 회원들과도 공유될 수 있는 것인지...

14) ○○님께서 ○○○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이 가질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그리고 그 의미는 다른 모임이나 조직과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고 비슷할 수 있습니까?(예를 들어 동창회나 시민단체, 향우회, 교회 모임 등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서 느끼는 만족감은 어느 정도인지...다른 모임과 다르게 느껴지는 좋은 점과 불만족스러운 점 등...)

## **\*부록 4**

### **중앙65교우회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중앙65교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협동 발전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지 및 간행물 발간
2. 기금 조성
3. 모교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중앙고교 65회 졸업생
2. 특별회원-모교의 교우회 회칙에 의하여 모교의 교우로 인정된 자로서 총회에서 본회의 회원으로 승인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각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의원 제출권 및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회칙준수, 회비납부,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참석, 변동된 연락처의 본부への 통보 등의 의무를 진다.

#### **제3장 임원**

제7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총무 1명
4. 간사 20명 이내
5. 감사 1명

제8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10인 이상의 회원의 연서로서 추천받은 자 중에서 출석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부회장과 감사로서 구성되며, 선임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3. 부회장, 감사, 총무, 간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그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연임한다.

제10조(결원의 보충)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제8조와 같은 방법으로 보선하되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권한과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간사회의 의장이 되며 기타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에서 추진, 계획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며 감사와 함께 회장단에 속한다.
4. 간사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을 수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제4장 회의

제12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무전반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기총회는 6월 5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되 소집요청이 있는 후 60일 이내에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청자가 가소집할 수 있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 2)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및 간사의 선임
- 3) 예산 및 결산
- 4) 회원 10인 이상이 연서하여 부의한 안건
- 5) 기타

4. 총회는 회원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 회장이 결정한다.

제13조(간사회) 본회의 간사회는 회장단과 간사로써 구성하며 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1. 정기서 간사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간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 간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안건
- 2)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 3) 회무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 4) 기타

4. 간사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제5장 재정

제14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단 회비의 액수나 납부 방법은 간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5조(관리) 본회의 재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담당 임원이 명세장부에 기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 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 제6장 회칙개정

제17조(회칙 개정) 본회칙 개정의 발의는 임원 과반수 이상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연서로서 행하며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 제7장 부칙

제18조(발효) 본회칙은 1989년 6월 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경과 규정) 본회칙의 성립 이전에 의결 및 집행된 사항은 본회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부록 5

### 환경운동연합 2004정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민간환경운동을 주도해 온 공해추방운동연합, 부산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대구공해추방운동협의회,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 마산·창원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울산공해추방운동연합, 진주남강을지키는시민의모임, 목포녹색연구회 등 8개 단체는 구조적으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파괴로부터 우리들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민간환경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한 차원 높여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한다. 이에 전국의 운동 역량을 하나로 모을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아 2년여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전국단위 민간환경운동기구를 창립하게 되었다. 우리는 오늘 이 역사적인 환경운동연합의 창립총회를 맞아 우리나라 민간환경운동의 제2기 출범을 엄숙히 선언하며 이 모임의 기본 규범인 정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 1차 개정하는 지금 춘천, 원주, 대전, 전북환경연합 등 4개 신규지역이 추가되어 12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2차 개정하는 지금 서산·태안, 거제, 충주, 경기북부, 인천환경연합 등 5개 신규지역이 추가되어 17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3차 개정하는 지금 서천, 시흥, 남해환경연합 등 3개 지역이 추가되어 20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4차 개정하는 지금 과천, 속초·고성·양양, 여수, 청주환경연합 등 4개 조직이 추가되어 24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5차 개정하는 지금 창녕, 안양·군포·의왕, 광양, 안산환경연합 등 4개 조직이 추가되어 28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6차 개정하는 지금 제천, 고양, 제주, 천안·아산환경연합 등 4개 조직이 추가되어 32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7차 개정하는 지급 당진, 경주, 포항, 장흥환경연합 등 4개 조직이 추가되어 36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8차 개정하는 지급 강동·송파, 강서·양천, 횡성, 이천·여주, 강남·서초, 사천환경연합 등 6개 조직이 추가되어 42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9차 개정하는 지급 전북환경연합은 전주환경연합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순천, 오산·화성환경연합 등 2개 조직이 추가되어 44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10차 개정하는 지급 성남, 수원, 통영환경연합 등 3개 조직이 추가되어 47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11차 개정하는 지급 경기북부환경연합은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연합으로, 이천·여주환경연합은 여주환경연합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군산, 파주환경연합 등 2개 조직이 추가되어 49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제정 1993년 4월 2일

1차 개정 1994년 3월 5일

2차 개정 1995년 2월 11일

3차 개정 1996년 2월 2일

4차 개정 1997년 1월 25일

5차 개정 1998년 2월 7일

6차 개정 1999년 2월 20일

7차 개정 2000년 2월 12일

8차 개정 2001년 2월 24일

9차 개정 2002년 2월 23일

10차 개정 2003년 2월 22일

11차 개정 2004년 2월 21일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모임은 “환경운동연합”(약칭 ‘환경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약칭 ‘KFEM’)이라 한다.

### 제2조(목적)

환경연합은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그 곳에 터잡은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심각히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이 세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위상)

환경연합은 동일한 목적을 지닌 각 지역조직들의 결집체인 전국 단일조직이며 국제 환경운동단체인 지구의 벗의 회원이다.

### 제4조(소재)

환경연합 중앙조직의 사무실은 서울에 두고, 각 지역조직 사무실은 해당 지역에 둔다.

### 제5조(사업)

환경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2. 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선전 사업
3.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시 사업
4. 환경피해지역과 지역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
5. 환경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 사업
6.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7. 기타 환경연합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 제6조(자격 및 구성)

1. 환경연합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 환경연합의 회원은 각 지역조직 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7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정관과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환경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2)환경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3)환경연합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2.회원은 환경연합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소속 지역조직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8조(상벌)

1. 환경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하여는 내규에 따라 포상한다.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환경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내규에 따라 징계한다.

## 제3장 조직

### 제9조(대의원총회)

대의원총회는 환경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공동대표와 각 지역조직의 대표 1인
2. 중앙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 실·국장, 지역 사무처(국)장
3. 중앙조직 기관 및 기구의 대표, 사무국장 이상 상근 임원
4. 중앙집행위원
5. 각 지역조직의 회원수 100명당 1인에 비례하여 추천된 대의원

### 제10조(대의원총회의 기능)

대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강령 및 기본정책, 정관의 채택과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임
3. 감사, 사무총장 선출
4. 부설기관과 상설기구의 설치 및 대표자의 승인
5. 지역조직의 가입 추인 및 자격박탈(결정)승인
6.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7. 단체의 해산 의결
8. 전국대표자회의, 또는 대의원 20인 이상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9. 기타 중요 안건의 심의 의결

제11조(대의원총회 소집 및 의결)

1. 정기 대의원총회는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내에 대의원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대표자회의의 동의를 얻어 60일 한도 내에서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 대의원총회는 전국대표자회의 또는 대의원 정수의 10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대의원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총회 소집시 의장은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2주일 전까지 공고한다.
4. 대의원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지역조직이 추천한 대의원에 한하여 위임장에 의한 출석과 의결이 가능하다.

제12조(전국대표자회의)

1. 전국대표자회의는 환경연합의 상설 의결기관이며 그 구성은 제27조 1항에서 규정하는 임원으로 한다(단, 지역조직의 대표는 1인으로 한다).
2. 전국대표자회의 의장은 공동대표 중 1인으로 한다.

제13조(전국대표자회의의 기능)

전국대표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 내규 및 준칙의 제정과 개정
3. 예산 및 사업계획안 의결
4. 추천직 중앙집행위원의 선출
5. 상설위원회 및 대변인의 설치 의결
6. 특별위원회의 설치 승인
7.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및 기타 주요사업의 의결
8. 지역조직의 징계

제14조(전국대표자회의의 소집 및 의결)

1. 전국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년 4회 분기별로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사무총장 또는 전국대표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즉시 소집한다.
3. 전국대표자회의 소집시에는 전국대표자회의 의장이 개최 1주일 전까지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전국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전국대표자회의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5조(중앙집행위원회)

1. 대의원총회와 전국대표자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중앙집행위원회를 두며 결정사항은 전국대표자회의에 통보한다.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구성은 공동대표, 사무총장, 중앙조직의 기구 및 기관의 실무대표, 지역에서 추천한 광역대표 8인(부산, 울산·경남, 대전·충청, 광주·호남·제주, 서울, 강원, 인천·경기, 대구·경북)과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각계인사 약간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한다.
3. 기능
  - 1) 전국대표자회의의 위임사안 및 상시 의결사안 처리
  - 2) 사무처 제출안건 처리

제16조(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한다.
2. 공동대표는 환경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고문 및 지도위원)

1. 공동대표는 각계의 원로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중앙집행위원회는 환경운동의 각 분야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처)

1. 환경연합의 운영전반을 관장하는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환경연합 운영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관장한다.
3.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국대표자회의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 사무처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무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둘 수 있다.
5. 사무처는 원활한 사업 운영과 집행을 위해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를 둔다.
6. 사무처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9조(상설위원회)

1. 환경연합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인사위원회, 정책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조직위원회, 습지보전위원회, 녹색자치위원회, 반핵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조직의 적절한 인사를 위해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인사위원회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3. 정책위원회는 환경연합의 정책개발을 담당하며,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

정책위원회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4. 국제협력위원회는 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을 담당한다. 국제협력위원회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5. 습지보전위원회는 갯벌을 포함한 습지 및 철새보전에 대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습지보전위원회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6. 조직위원회는 조직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조직의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조직위원회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7. 녹색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녹색자치위원회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8. 반핵위원회는 핵산업 추방, 핵무기 철폐 운동을 통하여 민주적인 에너지 체계 구축과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제20조(환경교육센터)

1. 환경연합은 시민의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환경교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둔다.

2. 환경교육센터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제21조(시민환경연구소)

1. 환경연합은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위하여 시민환경연구소를 둔다.

2. 시민환경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제22조(시민환경정보센터)

1. 환경연합은 환경정보의 수집 및 관리, 보급을 체계화하기 위해 시민환경정보센터를 둔다.

2. 시민환경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제23조(공익환경법률센터)

1. 환경연합은 환경에 관한 소송·제도개혁 등을 통해 활동의 다양화 및 정책대안 제시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공익환경법률센터를 둔다.

2. 공익환경법률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제24조(에너지대안센터)

1. 환경연합은 에너지정책 전환 및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대안센터를 둔다.

2. 에너지대안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제25조(에코생활협동조합)

1. 환경연합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며, 생활환경문제를

를 해결하고 실천하기 위해 에코생활협동조합을 둔다.

2. 에코생활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대변인)

1. 환경연합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대변인을 둘 수 있다.

2. 대변인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7조(임원 및 감사)

1. 환경연합은 공동대표, 지역조직 대표, 사무총장, 중앙조직의 기관 및 기구의 대표를 임원으로 한다.

2. 환경연합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3인의 감사를 둔다.

3.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4장 지역조직

제28조(지역조직)

1. 환경연합은 조직의 근간으로서 전국 각 시·군·구와 광역시·도 지역에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2. 환경연합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광역도단위로 지역조직들의 협의체를 둘 수 있다.

3. 지역조직은 자체 정관에 의해 조직 인선과 운영에 자율성을 갖는다. 단, 중앙조직의 정관과 지역조직의 정관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중앙조직의 정관이 우선한다.

4. 지역조직은 중앙조직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책임이 있으며, 중앙조직은 지역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경주할 책임이 있다.

제29조(명칭)

1. 지역조직의 공식명칭은 시·군·구와 광역시·도 지역명을 붙여 “OO환경운동연합”(약칭 “OO환경연합”, 영어명:KFEM OO)이라 한다. 지역조직은 시·군·구 단위

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규에 따라 일정기간 복수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역조직에 속하는 소규모 지역단위는 OO지회라 칭한다.

제30조(자격취득 및 상실)

1. 환경연합의 지역조직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소정의 절차와 전국대표자회의의 결의와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2. 환경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지역조직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등)

1. 징계는 자격박탈,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활동정지, 기한을 정한 활동정지, 견책, 경고로 한다.

2. 징계에 관한 사실조사의 권한은 조직위원회에 있다.

3. 조직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에 붙여진 지역조직이 대표자나 기타 관련자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청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조직위원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기타 징계에 관한 절차는 조직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른다.

5. 조직위원회는 사실조사를 마친 뒤 징계에 관한 의견을 붙여 징계결정권자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징계에 관한 결정은 전국대표자회의에서 한다. 다만, 자격박탈결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제32조(조직구조)

1. 각 지역조직은 조직의 대표인 의장과 실무책임자인 상근 사무처(국)장을 둔다.

2. 지역조직은 활동기구로서 사무처(국) 및 필요한 부서를 둔다.

제33조(활동 및 재정보고)

1. 각 지역조직은 전국대표자회의 정기 회의가 열리기 2주일 전에 분기별로 그 활동 계획 및 실적을 중앙 사무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2. 지역조직은 매월 수입과 지출의 예정 및 실적 등 재정 상황을 중앙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인사에 관한 사항은 즉시 중앙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재정 및 회계

### 제34조(회계연도)

환경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5조(예산회계 준칙)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조직의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 수입의 종목과 지출 및 회계 방법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 제36조(예산 및 결산)

지역조직 및 중앙조직은 예산 및 결산안을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회계 준칙에 따라 중앙에 보고해야 하며, 사무총장은 지역과 중앙의 예결산안을 전국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재정 수입)

환경연합의 재정수입은 회원 회비, 지역조직의 분담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8조(재정 원조)

1. 지역조직은 회원의 회비 수입 중에서 내규로 정하는 비율을 중앙조직 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중앙 조직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조직에 대해 운영비의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원한다.

## 제6장 보칙

### 제39조(정치활동 제한)

제26조 1항에서 규정하는 임원과 감사, 지역조직 정관상의 임원과 중앙 사무처의 부장급 이상의 간부, 지역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정치활동을 제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0조(정관의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결의를 요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전국대표자회의의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나 대의원 1/3 이상 또는 지역조직의 대표 1/3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전국대표자회의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 및 준칙, 통상 관례에 따른다.

## 부칙

제1조(효력 발생)

본 정관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록6**

**동창회 Correlation Matrix**

		연결망 밀도	관계의 빈도	관계의 지속성	관계의 중복성	자원교환 총량
연결망 밀도	Pearson Correlation		-0.016	0.261	-0.153	-0.012
	Sig. (2-tailed)		0.876	0.009	0.129	0.905
	N		100	100	100	100
관계의 빈도	Pearson Correlation			0.237	0.102	0.489
	Sig. (2-tailed)			0.018	0.313	0.000
	N			100	100	100
관계의 지속성	Pearson Correlation				-0.050	0.073
	Sig. (2-tailed)				0.620	0.469
	N					100
관계의 중복성	Pearson Correlation					0.285
	Sig. (2-tailed)					0.004
	N					100

		이해관계 방향성	보답의 즉각성	보답의 등가성	물질적 기대	비물질적 기대	신뢰회복 방법
연결망 밀도	Pearson Correlation	-0.224	-0.068	0.071	-0.098	-0.122	-0.009
	Sig. (2-tailed)	0.025	0.503	0.485	0.330	0.225	0.931
	N	100	100	100	100	100	100
관계의 빈도	Pearson Correlation	-0.248	0.116	0.260	0.320	0.132	0.367
	Sig. (2-tailed)	0.013	0.252	0.009	0.001	0.189	0.000
	N	100	100	100	100	100	100
관계의 지속성	Pearson Correlation	-0.057	0.190	0.108	0.068	0.094	0.224
	Sig. (2-tailed)	0.575	0.058	0.287	0.499	0.351	0.025
	N	100	100	100	100	100	100
관계의 중복성	Pearson Correlation	-0.113	-0.055	-0.008	-0.126	0.000	-0.227
	Sig. (2-tailed)	0.264	0.584	0.939	0.213	0.998	0.023
	N	100	100	100	100	100	100
자원교환 총량	Pearson Correlation	-0.184	-0.040	0.153	0.206	0.220	0.057
	Sig. (2-tailed)	0.067	0.690	0.128	0.040	0.028	0.573
	N	100	100	100	100	100	100
이해관계 방향성	Pearson Correlation		0.114	-0.105	0.056	-0.151	0.087
	Sig. (2-tailed)		0.261	0.300	0.580	0.134	0.387
	N		100	100	100	100	100
보답의 즉각성	Pearson Correlation			0.694	0.384	0.175	0.304
	Sig. (2-tailed)			0.000	0.000	0.082	0.002
	N			100	100	100	100

		이해관계 방향성	보답의 즉각성	보답의 등가성	물질적 기대	비물질적 기대	신뢰회복 방법
보답의 등가성	Pearson Correlation				0.330	0.196	0.222
	Sig. (2-tailed)				0.001	0.051	0.026
	N				100	100	100
물질적 기대	Pearson Correlation					0.278	0.341
	Sig. (2-tailed)					0.005	0.001
	N					100	100
비물질적 기대	Pearson Correlation						0.225
	Sig. (2-tailed)						0.024
	N						100

**\*부록7**

**시민단체 Correlation Matrix**

		연결망 밀도	관계의 빈도	관계의 지속성	관계의 중복성	자원교환총량
연결망 밀도	Pearson Correlation		-0.181	-0.110	0.079	-0.147
	Sig. (2-tailed)		0.071	0.275	0.436	0.144
	N		100	100	100	100
관계의 빈도	Pearson Correlation			-0.201	0.155	0.549
	Sig. (2-tailed)			0.044	0.125	0.000
	N			100	100	100
관계의 지속성	Pearson Correlation				0.031	0.015
	Sig. (2-tailed)				0.760	0.886
	N				100	100
관계의 중복성	Pearson Correlation					0.046
	Sig. (2-tailed)					0.653
	N					100

		이해관계 방향성	보답의 즉각성	보답의 등가성	물질적 기대	비물질적 기대	신뢰회복 방법
연결망 밀도	Pearson Correlation	-0.122	0.084	-0.122	-0.045	-0.108	-0.242
	Sig. (2-tailed)	0.226	0.404	0.226	0.653	0.286	0.015
	N	100	100	100	100	100	100
관계의 빈도	Pearson Correlation	0.311	0.212	0.297	0.209	0.125	0.194
	Sig. (2-tailed)	0.002	0.035	0.003	0.037	0.215	0.053
	N	100	100	100	100	100	100
관계의 지속성	Pearson Correlation	-0.104	-0.246	-0.051	0.109	0.010	0.020
	Sig. (2-tailed)	0.302	0.014	0.611	0.279	0.919	0.847
	N	100	100	100	100	100	100
관계의 중복성	Pearson Correlation	-0.039	-0.112	0.083	-0.051	-0.038	-0.017
	Sig. (2-tailed)	0.701	0.267	0.412	0.615	0.710	0.864
	N	100	100	100	100	100	100
자원교환 총량	Pearson Correlation	0.236	0.090	0.146	0.428	0.313	0.191
	Sig. (2-tailed)	0.018	0.375	0.147	0.000	0.002	0.056
	N	100	100	100	100	100	100
이해관계 방향성	Pearson Correlation		0.080	0.183	0.213	0.195	0.131
	Sig. (2-tailed)		0.430	0.068	0.033	0.052	0.196
	N		100	100	100	100	100
보답의 즉각성	Pearson Correlation			0.610	0.185	0.193	0.185
	Sig. (2-tailed)			0.000	0.066	0.054	0.065
	N			100	100	100	100

		이해관계 방향성	보답의 즉각성	보답의 등가성	물질적 기대	비물질적 기대	신뢰회복 방법
보답의 등가성	Pearson Correlation				0.241	0.182	0.197
	Sig. (2-tailed)				0.016	0.070	0.049
	N				100	100	100
물질적 기대	Pearson Correlation					0.462	0.108
	Sig. (2-tailed)					0.000	0.283
	N					100	100
비물질적 기대	Pearson Correlation						0.396
	Sig. (2-tailed)						0.000
	N						100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Social Capital between an Alumni Association and an NGO**

Park, So-Youn  
Dep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elationship which have been controversial on social capital in Korea. That is, this study tries to verify how do the affective linkage groups and volunteer associations exist and operate, which are regarded as being contrary to each other in Korea.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network, trust and reciprocity which have been regarded as the important factors of social capital. The characteristics of network determines whether ties are strong or weak(close or open), while trust and reciprocity determines whether the groups are based on instrumental or consummatory motivations. Do the affective linkage groups have strong ties and consummatory motivations, while do the volunteer associations have weak ties and instrumental motivations as ideological predictions?

An alumni association and an NGO are selected to represent the affective linkage groups and volunteer associations. It is because not only an alumni

association continuously influences on Korean society but also an NGO plays an important role in civil society. 200 members are interviewed to be analyzed quantitatively and 10 members are interviewed to be analyzed qualitatively.

The overall results of study show not only the distinct groups have strong/weak ties at the same time, but also both are based on consummatory motivations. That is, both are not opposed to each other and it implies that both groups are easily likely to link in reality. This is contrary to the ideological predictions which are natural results in Korean society.

Based on these findings, although there is a matter of degre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affective linkage groups and volunteer associations are not oppo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affective linkage groups and volunteer associations as the Korean characteristics. It is because both groups are essential for the accumulation and maintenance of the social capital but also it is possible for both to be compatible in Korean society.

---

Key words : the affective linkage groups, volunteer associations, an alumni association, an NGO, social capital, network, trust, reciprocity, closure, open, strong ties, weak ties, instrumental motivations, consummatory motivations